

# 6

June 2023  
Vol.378

#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OLUMN  
유일과 전쟁 레퀴엠

COVER STORY  
장적무지컬 '야구왕, 마린스!'

나눔락  
클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레스피기  
고풍적 아리아와 춤곡 제3모음곡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9번

바르톡  
디베르티멘토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 조성진 & 발트 앙상블

SEONG-JIN CHO & WALD ENSEMBLE

2023. 6. 23 FRI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AKE BELIEVE

# 에릭요한슨展

상상을 찍는 작가

2023. 6. 27. - 10. 8.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매주 월요일 휴관



ERIK JOHANSSON

동화속 발레갈라콘서트 **영도 봉래홀에 바자다**

# 백조의 호수 SWAN LAKE

2023. 6.8(목) 오후 2시, 7시 30분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대공연장)



영도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주관 |



영도문화예술회관



부산발레시어터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입장료 | 일반회원 2만원, 정기회원 1만5천원, VIP회원 1만원 예매 | 영도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예스24, **나눔티켓**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관람연령 | 48개월이상관람가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여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도문화예술회관의 (동화속 발레갈라 콘서트)는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문화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점 통해 국민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코자 합니다.

# BODY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 CONCERT



영도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2023. 6. 27 TUE 7:30 PM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대공연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영도문화예술회관



AMBIGUOUS  
DANCE  
COMPANY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티켓 일반2만원, 정기회원 1만5천원, VIP회원 1만원 예매 영도문화예술회관, 예스24, **나눔티켓**

문의 051-419-5571~4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김수현

# 6월 한 달간 계속되는 음악의 향연!



2023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원먼스 페스티벌**  
우리동네 문화살롱 페스타 2nd  
06.01-06.30



**부산★라이징스타 콘테스트**  
BUSAN RISING STAR CONTEST 04.01-05.22

**프롬나드 콘서트**  
06.03 SAT 13:00-16:00

2023

06

JUN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01 문화주소 동방 이주미밴드 · 재즈 19:00	02 필수파스 양상불 클라몬 · 팝 클래식 19:00	03 오션컬처락토리 홍영호트리오 · 재즈 19:00
04 공간523 라이징스타 14:00	05 성원아트홀 팀 · 김태라 19:00	06 공간523 강해인 윌렛 · 재즈 19:00	07 무지크비움 기타&반도네온 · 클래식/필드뮤직 11:00	08 BOF아트홀 로사앤 이미지 · 록콘서트 19:30	09 스페이스 울 갯츠 · 라틴 재즈 19:30	10 금사락 제이비드 · 팝밴드 19:00
11 구백갤러리 점곳 · 국악/클래식 15:00	12 프린지 하니소리 · 오카리나 19:00	13 이상한 나라의 밀가루공장 양상불 우니크 · 클래식 19:30	14 금정아트홀 B & F · 플루트 앙상블 19:30	15 220볼트 이지트 조윤환 외 2 · 클래식 상악 19:00	16 음악당 라온 스트링과르넬트앙블 · 클래식 19:00	17 스페이스 수정 라이징스타 소리채 · 류진악 14:00
18 카페0101 헤이브 · 퓨전국악 13:00	19 무지카 아트홀 유직스토리움 · 클래식 19:30	20 음악홍경 양상불 프로무지카 · 클래식 19:30	21 문화공작 피어밴드 · 크로스오버 20:00	22 영도콘서트하우스 지피유직앙상블 · 클래식 12:00	23 카페 진옥 브리조온 · 클래식 18:30	24 콘서트르 보충 라이징스타 피에르르재즈 · 재즈 16:00
25 비바아펠 오방가르드 라이징스타 15:00	26 엠빌아트홀 양상불 클래식 · 클래식 & 크로스오버 19:30	27 가림아트홀 양상불 리에트 · 클래식 19:30	28 콘체르트 보충 홍 · 크로스오버 19:30	29 무무다 양상불 팀 · 클래식 19:30	30 오느린 윌헤인 · 인디 포크 19:30	06.03 프롬나드 콘서트 프로 8팀 · 라이징스타 2팀 13:00 - 16:00

SUN	MON	TUE	W
<p><b>예매</b></p>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b>사전예약기간</b></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캐릭터 뮤지컬 '피터팬과 후크선장' • 관람시간 : 6월 9일(금)-7월 23일(일) 평일 오전 단체관람,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 • 입장료 :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p>	<p><b>전시실</b></p> <p>제27회 부산화화제 6월 6일(화)-6월 10일(토) • 개막식 : 6월 7일(수) 오후 5:00 • 문의 : (사)부산미술협회 서양화분과 010-2870-0505</p> <p>2023 국제현대미술 우수작가 초대전 6월 14일(수)-6월 17일(토) • 시상식 : 6월 17일(토) 오후 1:00 • 문의 : (사)한국현대미술협회 644-0005</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상상을 찍는 작가 예력 요한 6월 27일(화)-10월 8일(일) • 입장료 : 성인(만19세이상) 청소년(중,고등학생) 어린이(36개월~) •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p>
<p><b>4</b></p> <p>제40회 부산창작관악축제 17:00 <b>중</b> 한국관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010-6886-5896)</p>	<p><b>5</b></p>	<p><b>6</b></p> <p>뮤즈락 네 번째 콘서트 18:00 <b>중</b> 뮤즈락 동요예술문화협회(010-2558-9250) 금찬이 피아노 독주회 17:00 <b>캠</b> 금찬이(010-5701-6424)</p>	<p><b>7</b></p> <p>2023 제39회 부산음악 <b>대</b> 부산MBC(760-112) 2023 제39회 부산음악 <b>중</b> 부산MBC(760-112) 2023 제39회 부산음악 <b>캠</b> 부산MBC(760-112)</p>
<p><b>11</b></p> <p>한울림합창단 제43회 정기연주회 17:30 <b>대</b> 초대/한울림합창단(010-9044-7576) 2023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콘체르토 페스티벌 19:30 <b>중</b> 초대/(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1-4577) 마르떼 심포니 오케스트라[MSO] 제5회 정기연주회 '실내악 시리즈 I' 19:00 <b>캠</b> MSO(055-312-0953, 010-8355-7308)</p>	<p><b>12</b></p>	<p><b>13</b></p> <p>부산시여성합창페스티벌 17:00 <b>대</b> 부산시여성연합창단(010-7755-0436) 한국가곡 대축제 19:30 <b>중</b> 4만원·2만원/(사)KNN방송교향악단(010-7990-9568) 청년외침음악회 19:30 <b>캠</b> 더뉴앙상블(988-3087)</p>	<p><b>14</b></p> <p>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 미완성음악회II' 19:30 <b>대</b> 전석 5천원/(재)부산 필로스색소폰오케스트라 <b>중</b> 필로스색소폰오케스트라 청년외침음악회 19:30 <b>캠</b> 더뉴앙상블(988-3087)</p>
<p><b>18</b></p> <p>재부 고교 동문 연합합창제 17:00 <b>대</b> 부산여고동문동백합창단(010-9315-5300) 뮤지컬 '알사탕' 11:00, 14:00, 16:00 <b>중</b> 6만원·4만원/(주)썩크브릿지(1533-7244)</p>	<p><b>19</b></p>	<p><b>20</b></p> <p>해설과 함께 떠나는 오페라 여행 그 세 번째_ 콘서트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19:30 <b>캠</b> 전석 2만원/SJ엔터테인먼트(010-9582-3899)</p>	<p><b>21</b></p> <p>벨리씨미 성악연구회 '나 <b>캠</b> 벨리씨미 성악연구회</p>
<p><b>25</b></p> <p>제32회 부산무용제 19:00 <b>중</b> (사)대한무용협회 부산시지회(632-5116) 이명로 첼로 리사이틀 19:30 <b>캠</b> 전석 2만원/첼리스트의 서재(010-5029-5807)</p>	<p><b>26</b></p>	<p><b>27</b></p> <p>아름다운 시와 함께하는 詩歌음악회 19:30 <b>대</b> 7만원·5만원·4만원·3만원 부산문화(1600-1803)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제24회 정기연주회 '새로운 시작' 19:30 <b>중</b> 5만원·3만원·2만원/아트락(010-5468-4658) DONO 제2회 정기연주회 19:30 <b>캠</b> 초대/DONO(010-2831-0981)</p>	<p><b>28</b></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 노프랭키 필하모니 챔버 19:30 <b>중</b> 2만원·1만원/(재)부산 오토리오(OTrio) 제3회 <b>캠</b> 전석 1만원/오토리오</p>

DATE	THU	FRI	SAT
10/1	1	2	3
10/7	8	9	10
10/14	15	16	17
10/21	22	23	24
10/28	29	30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
<p><b>예매</b></p>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b>전시실</b></p> <p>제22회 연목서화회 회원전 6월 13일(화)-6월 18일(일) 전시실1</p> <p>제10회 전국한필서예작가전 6월 20일(화)-6월 25일(일) 전시실1, 2</p> <p>부산해석회 회원전 6월 27일(화)-7월 2일(일) 전시실1, 2 문의: 부산시민회관 630-5212</p>		
<p><b>4</b></p> <p>2023 최현우 'THE BRAIN' 13:00, 17:00  <b>대</b> 8만8천원-6만6천원                      (주)하늘이엔티(02-333-9009)</p> <p>2023 제20회 부산국제연극제 축하공연 부산연극제작소 동벽 '1945' 17:00  <b>소</b> 3만원-2만원                      (사)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802-8003)</p>	<p><b>5</b></p>	<p><b>6</b></p>	<p>2023 제20회 부산국제연극제 '부산국제연극제의 현황'  <b>소</b> (사)부산국제연극제</p>
<p><b>11</b></p>	<p><b>12</b></p>	<p>부산국제아트센터 프리뷰 공연 -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19:30  <b>대</b> 부산시 문화시설개관준비과(888-5724)</p>	<p>부산시립극단 청소년용 '소년B가 사는 집' 10:30  <b>소</b> 전석 2만원/(재)부산</p>
<p><b>18</b></p> <p>뮤지컬 '빨래' 14:00  <b>대</b> 7만7천원-5만5천원                      (주)하늘이엔티(070-4282-2932)</p>	<p><b>19</b></p>	<p><b>20</b></p>	<p><b>2</b></p>
<p><b>25</b></p> <p>2023 바가노바무용학원 콘서트 15:00  <b>소</b> 바가노바무용학원(010-3859-5162)</p>	<p><b>26</b></p>	<p><b>27</b></p>	<p>부산시민회관 배시시 명품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  <b>소</b> 무료(선착순, 전체 관람)</p>



ED	THU	FRI	SAT
	1	2	3
		2023 제20회 부산국제연극제 축하공연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1945' 19:30 ☎ 3만원·2만원 (사)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802-8003)	2023 최현우 'THE BRAIN' 15:00, 19:00 대 8만8천원·6만6천원 (주)하늘이엔티(02-333-9009) 2023 제20회 부산국제연극제 축하공연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1945' 17:00 ☎ 3만원·2만원 (사)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802-8003)
7	8	9	10
연극제 20주년 심포지엄 과 미래' 14:00 조직위원회(802-8003)			
4	15	16	17
위한 특별공연 0, 14:00(단체관람) 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극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소년B가 사는 집' 10:30, 14:00(단체관람) ☎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부산시립극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소년B가 사는 집' 10:30, 14:00(단체관람), 19:30(일반관람) ☎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뮤지컬 '빨래' 14:00, 18:00 대 7만7천원·5만5천원 (주)하늘이엔티(070-4282-2932) ✦ 부산시립극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소년B가 사는 집' 17:00(일반관람) ☎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1	22	23	24
	부산시립예술단 토크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9:30, 10:40(단체관람)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3116)	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_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재밋는 국악, 신나는 국악' 10:30(단체관람) ☎ 전석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3136)	
8	29	30	
극장 ' 19:00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오디션을 거친 신인연주자와 한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성악가가 선사하는 유쾌한 드라마

토크오페라

G. Rossini

# 세비야의 이발사



지휘 백승현



연출·해설 이의주



연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 백승현

연출 및 해설 이의주

무대구성 이의주

의상디자인 한승수

조명디자인 김민재

분장디자인 구유진

무대감독 박재현

음악코치 도민영

영상제작 아트 포레스트 조은빈

피가로 안세범, 유용준

알마비바 김동녘, 강도호

로지나 권소라, 박나래, 김소연, 김리라

바질리오 이준석

바르톨로 박순기, 황동남

요정 한세빈


무대제작 남기혁

조연출 전하라, 박서경

2023. 7. 6. (목) 14:00, 19:30

7. 7. (금) 10:30, 1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입장료 | 균일 20,000원 (정기회원 20% 할인) 예매 | [www.bscc.or.kr](http://www.bscc.or.kr)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051)607-6000(ARS 1번), 051)607-3110, 3113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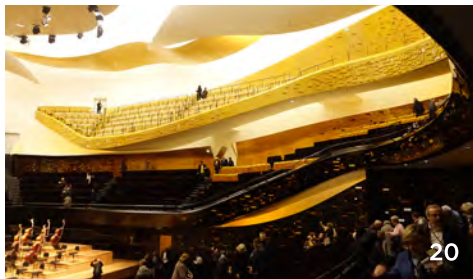
# CONTENTS

## 6

월간문화예술정보지



16



20



24

- 10 **Column**  
유월과 전쟁 레퀴엠
- 12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창작뮤지컬 '아구왕, 마린스'
- 16 **거꾸로 보는 미술사 ㉓**  
집에 부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꽃 그림
- 20 **세계의 콘서트홀 ㉔**  
필하모니아 드 파리와 불협화음
- 24 **골목에서 만나다\_생활 속 문화공간**  
배우고 익히고 나누니 즐겁지 아니한가  
나눌락
- 26 **서울통신원**  
한국 아동극 100주년,  
국립어린이청소년극장 필요하다
- 29 **Preview**
- 42 **문화가 화제**
- 48 **Review**
- 50 **Program Guide**
- 66 **New Book**
- 67 **BSCC News**

예술의 조대 June 2023 Vol.378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일 2023년 5월 25일  
발행인 이정필 편집인 김명숙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위원 등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편집장 정복엽  
디자인·제작 호민디앤피

# 유월과 전쟁 레퀴엠

정두환 문화유목민, 음악평론가

...  
삶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찌르는 가시를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

<6월의 시 / 이해인>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유월이다. 우리네 삶의 유월은 아름답고 화려한 저 장미보다 더 붉은 핏빛의 아픔이다.

지난 100년의 세계사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처럼 강인하고 다양하며, 적극적인 삶을 살았던 민족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요구하는 진정한 평화의 길은 아직도 묘연하다. 평화를 위한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전쟁을 막아야 함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직접 경험한 우리네 어른들이 한분 두분 세월의 언덕을 넘어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위기에 강한 민족의 특성을 잘 반영하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였음에도 불안하고 허전한 생각은 왜일까?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생각과 사고의 성장은 이루어졌는가? 서로를 향한 마음과 진정한 회복은 이루어졌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뒤섞이는 유월이다.

유월이 오면 필자는 벤자민 브리튼(Benjamin Britten, 1913-1976)의 <전쟁 레퀴엠(War Requiem)>을 듣는다. 이 곡은 브리튼이 1961년과 1962년 사이 작곡하였으며, 초연은 1962년 5월 30일, 메레디스 데이비스(Meredith Davies, 1922-2005)가 지휘하는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Birmingham Symphony Orchestra)에 의해 이루어졌다.

텍스터는 미사와 더불어 영국 시인이자 군인이었던 윌프레드 오웬(Wilfred Edward Salter Owen, 1893.3.18-1918.11.4)의 시가 사용되었다.

*“나의 주제는 전쟁이며, 전쟁의 아픔이다...”*

*한 시인이 오늘날 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경고일 뿐이다.”*

시인 윌프레드 오웬의 말이다. 시인은 시(詩)로 전쟁의 아픔을 경고한다. 하지만, 현실은 시인의 가슴 저린 아픔의 사연을 외면한다. 모두 6악장으로 구성된 브리튼의 <전쟁 레퀴엠>은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Requiem aeternam)’ d단조의 비극적인 세계를 시작으로 오웬의 네 개의 시가 들어있는 ‘분노의 날(Dies Irae)’을 지나 ‘봉헌문’, ‘거룩하시도다(Sanctus)’, ‘저를 구하소서(Libera me)’, 그리고 구원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면 ‘천국에서(In paradisum)’는 솔리스트와 합창이 모두에게 축복을 빌며 음악이 끝이 난다.

이 <전쟁 레퀴엠>은 1958년 새로이 건축된 코벤트리 대성당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 브리튼에게 작곡 의뢰하여 거행된 미사 음악이다. 1940년 영국은 전쟁으로 거의 폐허가 된 코벤트리 대성당을 존치시키며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고자 옛 대성당 옆에 코벤트리 대성당을 새롭게 지었다.

우리는 ‘한(恨)’의 민족일까? ‘흥(興)’의 민족일까?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필자는 우리 민족을 ‘흥’의 민족으로 이야기한다. 죽음이라는 슬픔 속에서도 죽은 자의 넋과 산 자의 한을 달래기 위하여 진혼가를 노래하는 민족이다. 격렬한 리듬과 소리 속에 망자와 산 자의 한을 한 덩어리로 엮어 소리의 제물을 올리니 말이다. 우리도 전쟁의 아픔으로 얼룩진 유월이 오면 가슴 저린 슬픔과 사연들이 생의 한가운데로 소환되어 울부짖는다. 생사의 확인도, 애달픈 사연의 전달도, 점점 어려워지는 시간을 맞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세월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져 내일을 알 수가 없다.

유월이다. 필자는 또다시 <전쟁 레퀴엠>을 듣는다. 언제까지 이 행위를 반복할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산 자는 망자를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조국을 위해 희생당한 이들을 기억하는 것은 산 자의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한 총부리를 이제는 치워야 한다.

유월의 망령(亡靈)이여!

그대들의 송고한 정신을 빌어 기도하오니

이 땅에 전쟁을 거두어 주소서!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으로

아군도 적군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동행하게 하소서!

## 인기스포츠 '야구'와 K-뮤지컬의 만남



### 일시 7월 5일(수)-16일(일)

수-목요일 오전 10:30,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일요일 오전 11:00  
(월-화요일 공연없음)

###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48개월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라이브㈜ 02-332-4177

7월, 또 하나의 새로운 웰메이드 K-뮤지컬이 부산을 찾는다.

(재)부산문화회관과 라이브㈜가 2년에 걸쳐 공동 기획·제작하여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창작뮤지컬 '야구왕, 마린스'는 부산의 문화 아이콘이자 국내 1위 인기 스포츠 '야구'와 세계가 주목하는 K-뮤지컬의 만남으로, 제작에서부터 화제가 된 작품이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 2019년 연극 '율리우스 카이사르'(연출 김지용)를 시작으로, 오페라 '리골레토'(연출 이의주), 2020년 연극 '결혼'(연출 김광보), 2021년 무용 'MoTI/어디로부터'(안무 이정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연출 이의주), 2022년 무용 '드래곤즈'(안무 안은미), '슈퍼타이거'(안무 이정윤) 등 매년 '메이드 인 부산' 공연을 제작해오면서 제작극장으로써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공동제작사 라이브㈜는 다양한 한국 창작뮤지컬의 해외진출을 기록하며, 600회 이상 해외시장에 가장 많은 한국 창작 뮤지컬을 선보인 제작사로, 특히 2022년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로 가족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으며, 가족 관객들의 두터운 지지를 받은 바 있다.

### 유소년 야구단의 감동 성장 스토리

창작뮤지컬 '야구왕, 마린스'는 가상의 부산 유소년 야구단 '마린스 리틀 야구단'을 배경으로, 전국 최강을 꿈꾸는 '마린스 리틀 야구단'의 꿈과 열정, 갈등과 화해, 성장과 우정을 그린 작품이다. '마린스 리틀 야구단'을 중심으로 라이벌 구단 '크로우즈', 해설과 캐스트, 응원단, 마스코트 등 무대 위 19인의 배우가 출연하며, 특히 야구를 연상시키는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실제 응원전을 방불케하는 신나는 뮤지컬 음악으로 가족 관객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본격적인 제작에 앞서 (재)부산문화회관과 라이브㈜는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주·조연 배우 오디션을 진행, 10:1의 경쟁률을 뚫은 실력 있는 배우 22명과 주연급 배우 4명을 캐스팅했다. 유소년 야구단의 꿈과 희망을 다룬 작품인 만큼, 국내 대형



뮤지컬에 출연하는 실력과 아역 배우들이 캐스팅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연극, 뮤지컬은 물론 영화, 드라마, 예능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한 국민 배우들의 출연으로 또 한번 화제성을 입증했다.

### 실력과 아역배우와 국민배우와의 만남

극 중 초등학생이라고 믿기 어려운 키와 외모를 갖고 태어났으며, 야구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이남호' 역에 명품 아역배우 이충현과 김주혁이 캐스팅됐다. 뮤지컬 '마틸다'의 '브루스' 역을 통해 성인 못 지않게 넘치는 에너지로 무대를 장악하며 주목받은 바 있는 이충현과 김주혁은 순수하고 청량감 넘치는 연기와 가창력, 힘찬 에너지로 캐릭터와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한다. KBO 프로야구의 레전드였던 큰아버지를 보며 자연스레 야구의 길로 접어든 '주현우' 역에 최유현과 김주안이 무대에 오른다. 뮤지컬 '하모니', '금악', '신아위'를 통해 완벽한 캐릭터 소화력을 인정받은 최유현과 뮤지컬 '베토벤', '블루헬멧 메이샤의 노래', '팬텀' 등 다양한 작품에서 대중의 눈도장을 찍은 김주안이 팀 내 갈등을 풀어내는 리더이자 뛰어난 운동 신경을 바탕으로 야구의 매력을 한껏 전하는 '주현우'를 완벽하게 소화할 예정이다.

유튜브에서 해설을 하며 진심으로 마린스의 우승을 원하는 '해설(김영배)' 역에 배우 김수로와 강성진이 캐스팅됐다. 특히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 '점쟁이들', 드라마 '구경이', '공부의 신' 등 장르를 불문하고 활약하며 특유의 유쾌함으로 매 작품마다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김수호가 오랜만에 무대로 돌아온다. 또, 무대와 브라운관을 종횡무진 넘나들며 실력과 인지도를 인정받은 강성진



배우 김수로



배우 강성진

은 뛰어난 캐릭터 해석으로 본인만의 '해설(김영배)'을 탄생시킬 것으로 기대감이 높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스태프들이 대거 참여하여 주목받고 있다. 제5회 한국뮤지컬어워즈 프로듀서상, 해외 40개 도시 600회 이상 공연, 한국 창작 뮤지컬 세계화의 선두주자 강병원 프로듀서를 필두로, 뮤지컬 '렛미플라이', '블러디 사일런스', '소크라테스 패러독스', '쓰릴미', '데미안' 등 위트가 돋보이는 코미디부터 인간의 삶과 자아 정체성 등 추상적 소재를 도발적으로 이야기한 문제작들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이대웅이 연출을 맡았다. 또, 뮤지컬 '니진스키', '디아길레프', '구내과병원' 등 마니아 작품은 물론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 '드라랄랄 치과' 등 가족뮤지컬에서도 인정받는 실력과 콤비 김정민 작가와 성찬경 작곡가가 참여한다.



2023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서울 오디션(2023.3.27)



2023 <야구왕, 마린스> 리딩 연습

## 스포츠의 감동을 무대에서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박병성 칼럼니스트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야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중 스포츠로 떠올랐다. 현재 10개 프로야구 구단 중 순위에 관계없이 팬덤이 강한 팀은 부산의 롯데디자인츠일 것이다. 부산하면 아름다운 바다와, 영화를 비롯한 문화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야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부산 노래방이라고 할 정도로 롯데디자인츠 사직구장은 열정적인 팬들의 응원문화로 야구장을 찾는 재미를 추가한다. 야구의 도시 부산에서 야구를 소재로 한 가족 뮤지컬 한 편이 오른다. 유소년 리틀야구단의 꿈과 우정을 그린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가 그것이다.

### 스포츠 소재 연극(演劇)

무대는 작다면 작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연극적 상상력이 가미되면 마법과 같이 무한히 확장된다. 다양한 동물들이 쟁투를 벌이는 아프리카 사바나부터 광활한 우주 공간까지 저 네모반듯한 한정된 무대는 마법처럼 무한 팽창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연극적 상상력과 관객들과 배우들과의 연극적 약속이다. 스포츠를 소재로 한 연극은 단순히 공간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그 공간 안에서 스펙터클하게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경기를 표현해내야 한다. 그래서 스포츠 연극은 복싱이나 레슬링과 같이 좁은 공간에서 실제 재현할 수 있는 작품이 많이 만들어졌다. 복싱을 소재로 한 <이기동 체육관>, <재생불량소년>, 유도를 소재로 한 <유도소년>, 레슬링의 <레슬링 시즌> 등이 바로 그러한 작품이다.

그러나 큰 경기장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농구와 야구, 축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실적 공간을 그대로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경기 동작이나 상징적인 장소의 특징을 잘 포착해 연극적 상상력을 불어넣는다. 아일랜드와 영국의 정치적, 종교적 갈등 때문에 유망한 축구선수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뮤지컬 <뷰티풀 게임>은 축구 동작을 응용한 안무로 무대 위에서 박진감 넘치는 축구 경기를 재연했다. 뮤지컬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는 해설자와 캐스트의 설명과 음향으로 한 편의 드라마틱한 경기를 상상하게 했다. 농구 장면을 춤과 노래로 풀어낸 <전설의 리틀 농구단>, 무대 전체를 핸드볼 경기장으로 꾸민 연극 <다른 여름> 등 대형 스포츠가 종종 무대에 올랐다.

스포츠 소재의 공연이 심심치 않게 만들어지고 또 관객들의 좋은 반응을 받는 이유는 박진감 넘치는 스펙터클한 움직임을 볼 수 있고,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이 경기에서 정직하게 달성되는 감동을 맞볼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소재 연극은 경기가 주는 긴박감도 흥미롭지만 다양한 사연을 지닌 인물들의 스토리가 감동을 주기도 한다.

### 최강을 꿈꾸는 리틀 야구단의 성장기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는 스포츠 소재의 연극이 주는 재미를 모두 취한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야구 경기 장면은 해설자와 캐스트의 내레이션과 영상 등을 활용해 긴박한 경기를 그려내고, 유소년 선수들이 우승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꿈과 우정, 그리고 스포츠의 즐거움을 일깨우는 성장 스토리가 감동을 준다.



마린스 리틀야구단은 창단 1년 동안 단 한 번의 경기도 이겨 본 적이 없는 구단이다. 주장이자 에이스인 주현우 이외에 그를 받쳐줄 선수가 없어 매번 패배만 한다. 코치인 고우철은 성패를 떠나 즐기는 야구를 주장해서 패배를 가볍게 여긴다. 이 구단에 통계를 통한 데이터 야구를 강조하는 유안나가 감독으로 부임해 온다. 유안나 감독의 등장 이후 새로운 멤버들이 보강되는데 모두들 장점이 명확하지만 단점도 명확한 멤버들이다. 현우가 발굴한 이남호는 천재적인 야구 감각을 타고났지만 야구에 대한 기본 상식이 부족하다. 달리기만 잘하는 차지윤이 1번 타자로, 골키퍼 출신의 유준환이 포수로 투입되는데 어느 특정 능력은 뛰어나지만 다른 능력은 부족한 이들이다. 기존의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좋은 감각을 지녔지만 타석에만 서면 긴장해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김민수, 그와 반대로 의욕만 앞서 흥분해서 실수를 하는 선우홍 등 모두가 부족한 부분을 안고 있다. 데이터를 맹신하는 감독 유안나 역시 다르지 않다. 유안나 감독은 지옥 훈련을 통해 이들에게 단점을 보완하고 진정한 야구의 재미를 느끼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방식은 역효과를 발휘하기도 하는데….

많은 스포츠가 그렇듯 야구 또한 함께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스포츠이다. “9점짜리 선수 한 명보다, 1점짜리 선수 아홉 명이 모여, 아홉 명이 하나된 것처럼”(뮤지컬 넘버 ‘퍼펙트 나인’ 중) 조화를 이루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경기가 야구다. 리틀야구단의 가장 막강한 우승 후보인 크로우즈 리틀야구단은 초등학생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최고 실력자 에이스 박지민을 중심으로 전국 우승을 놓치지 않은 팀이다. 혼자서 아홉 명의 역할을 하는 스타가 이끄는 크로우즈 리틀야구단을 결점을 가진 아홉 명의 선수들이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예측한 대로 진정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아역 배우\_야구 트레이닝 <사진제공 라이브쥬>

한 야구의 재미를 느낀 선수 아홉 명이 서로를 독려하며 감동적인 승리를 맞는다.

김정민 작가와 성찬경 작곡가 콤비는 뮤지컬 무대의 특성을 살려 야구 경기 장면을 음악으로 긴장감 넘치게 풀어낸다. 스포츠의 경쾌함과 스펙터클함이 잘 드러난 음악으로 스포츠 뮤지컬의 재미를 준다. <렛미플라이>, <소크라테스 패러독스> 등 뮤지컬과 연극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대웅이 연출가로 참여해 무대적 상상력으로 감동적인 스포츠 드라마를 담아낼 예정이다. 이외에도 박동기 무대, 송승규 영상, 권도경 음악, 최윤정 의상, 김유선 분장 등 내로라하는 실력과 스태프들이 가세해 믿음을 더한다.

특히 이 작품은 리틀야구단 배우들을 아역 배우로 캐스팅해 끼 많고 재능 많은 아역배우들의 눈부신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다수의 아역 배우들이 등장해 신선한 활력과 에너지를 선보인 <마틸다>나 <빌리 엘리어트>처럼 아역 배우들의 에너지가 충분한 가족 뮤지컬의 등장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이 작품은 부산시와 (재)부산문화회관,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는 <마리 퀴리>, <팬레터>의 제작사 라이브쥬가 공동 제작하는 프로덕션이다.

# 집에 부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 꽃 그림

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집에 돈이 들어오게 하는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 중국처럼 ‘복(福)’을 거꾸로 걸거나 황금 돼지나 두꺼비상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황금빛 해바라기 그림을 집에 걸어두는 것도 유행이 되었다. 집에 걸어두면 돈이 들어온다는 풍수 아이디어라는데, 실상 풍수지리에서는 사실무근인 개념이라 한다. 그럼에도 진짜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서라기보다는 그저 부자가 될 거 같은 기분에 걸어두는 것인지 모른다. 실제 보기에다 화사하니 좋으니 말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해바라기 그림인 반 고흐(Van Gogh)의 작품 역시 인테리어를 목적으로 그려진 것이었다.

### 노란 집을 꾸미기 위한 노란 해바라기 그림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는 마치 태양처럼 꽃잎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듯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다. 반 고흐 하면 생각나는 선명한 노란빛이 너무나 잘 담긴 작품이다.<sup>1</sup> 이외에도 반 고흐는 당시 해바라기를 여러 점 그렸다. 작품마다 조금씩 색과 형태는 다르지만 노란 꽃잎의 해바라기를 자신만의 개성적인 붓질로 담아



1  
반 고흐, <해바라기>  
1888년, 캔버스에 유채,  
네덜란드 반 고흐 미술관 소장



2



3

2  
폴 고갱,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 고흐>  
1888년, 캔버스에 유채,  
73×91cm, 네덜란드  
반 고흐 미술관 소장

3  
반 고흐,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  
1889년, 캔버스에 유채,  
60.5×50cm, 런던  
코톨드인스티튜트 소장

내었다. 그런데 왜 반 고흐는 해바라기를 좋아했던 걸까? 너무나 곤궁해서 요즘의 의미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린 것일까?

반 고흐가 해바라기를 그린 것은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 그가 기다리던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그 사람은 화가 고갱(Paul Gauguin)으로, 반 고흐가 머물던 아를에서 함께 작업하기로 했었다.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동료가 절실했던 반 고흐는 고갱과 함께 사용할 작업실로 일명 ‘노란 집’이라 불린, 말 그대로 벽이 노란 건물의 2층 방을 빌렸다. 그리고 고갱이 작업실을 좋아했다면 하는 마음에 노란 벽에 어울리는 해바라기를 그리고 걸었다. 마저 다 그리지 못했을 때 고갱이 도착해버렸지만, 이후 그들은 해바라기를 함께 그리면서 작업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반 고흐의 바람과 달리 둘의 관계는 계속 삐걱거렸다.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반 고흐는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고, 고갱은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는 반 고흐의 모습을 그렸다.<sup>[도판 2]</sup> 고갱은 강렬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해바라기 그림을 보고, 반 고흐의 붓끝에서 해바라기가 캔버스를 튀어나오는 듯하게 그렸다. <해바라기> 그림을 아는 우리 역시 그러한 해석에 고개를 끄덕일 법하다. 게다가 고갱은 자신에게 좋은 기회를 선사해준 동료 화가를 그려, 그에게 찬사

를 보내고 싶었다. 그런데 정작 반 고흐 자신은 이 그림을 보고 분개하였다. 자신을 마치 미치광이처럼 그렸다는 거다. 그리고 보면 고갱이 그린 반 고흐의 눈빛이 조금 흐리멍덩해 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반 고흐는 그보다 자신의 그림이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항상 ‘보이는 대로’ 그리고자 했는데, 고갱이 표현한 모습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어렵긴 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반 고흐의 그림들은 사실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반 고흐는 그렇게 생각했고, 이후에도 고갱과 두 달여를 함께 지내면서 자주 싸웠다. 그리고 반 고흐는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밤 자신의 귀를 잘랐다.<sup>[도판 3]</sup> 그리고 다음날 고갱은 아를을 떠났다.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에는 친구를 위해 작업실을 해바라기로 가득 채우려 했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다. 하지만 결국 그 마음은 좋은 결말을 갖지는 못했다.

이외에도 서양미술에서 해바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의 신 헬리오스를 짝사랑한 요정이 변한 꽃이기도 하고, 왕의 권위에 대한 충성심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현대에서는 새롭게 ‘부유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예전에 우리에게 부유함을 비는 의미가 있는 이미지는 무엇이 있었을까?

### 궁중 여인들 필수아이템, 모란 병풍

최근 사극을 보면, 상상에 기반한 다채로운 이야기만큼이나 화려한 궁궐이나 양반가의 모습이 등장한다. 허구의 이야기인 경우 시대 고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드라마를 보다 보면 시대에 맞는지 아닌지를 생각해보게 된다. 그러다 문득 여성의 공간, 가령 중전의 처소인 중궁전이나 후궁 혹은 대비가 머무는 처소 내부가 화려한 꽃 그림으로 가득차 있는 모습이 점차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관적인 느낌이므로 확실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고궁박물관 등에서 보았던 병풍이나 벽장식, 그림 등이 드라마에 많이 등장했다. 이는 아마도 조선의 궁궐을 다시 복원하거나 고증한 한복을 재현하는 등과 마찬가지로, 과거 궁중에서 사용했던 장식화에 대한 연구가 축적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조선은 기록의 나라라 불릴 만큼 왕조실록이 많이 남아있고, 못지 않게 다양한 행사에 대한 기록을 글뿐 아니라 그림으로도 기록해두었다. 그 방대한 자료를 여러 연구자들이 차근차근 조사하고 정리하며, 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드라마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조선 여인들의 화려한 생활공간이 반영되고 있다.

그 중에서 왕의 뒤편에 <일월오봉도> <sup>[도판 4]</sup>가 있다면, 중전의 뒤편에는 주로 <모란도>가 있다. 그 형태는 <일월오봉도>만큼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화려한 색감의 모란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모습을



4 작자 미상, <일월오봉도 병풍>, 조선, 견에 채색, 359.8×195.4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5 작자 미상, <모란도 10폭 병풍>, 조선 1820년대, 비단에 채색, 194.0×580.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볼 수 있다. 가령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란도 10폭 병풍> <sup>[도판 5]</sup>은 병풍의 칸을 넘어서 서로 연속하듯이 모란이 기암 괴석과 함께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화려한 모란이 더욱 확장되고 화려해 보인다.

이러한 모란은 꽃이 크고 화려해서 동양권에서는 오래전부터 ‘꽃 중의 왕’인 ‘화왕(花王)’으로 일컬어진다. 그리고 화려한 만큼 부귀함을 상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선덕여왕과 관련한 모란 그림 이야기 기록으로 전해지기도 한 만큼, 오래전부터 모란은 즐겨 표현된 소재로 보인다. 실제 그림 뿐 아니라 도자나 공예에서도 적지 않게 모란이 새겨져있다. 그러다 조선 말기에 오면서 모란 그림이 많이 그려졌다. 실물이 다 남아있지는 않지만, 조선 왕실의 의례와 행사 때를 묘사한 그림에서 모란 병풍이 펼쳐져 있는 경우가 많다. 왕실에서 사용한 궁중화는 오래된 경우 수정하거나 폐기



6 작자 미상, <모란괴석도> 8폭 중 부분  
 조선 연도미상, 종이에 채색, 143.5×47.5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하기 때문에 모든 병풍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기록을 통해 생활 속에 자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왕실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혼례에 사용되었다. 민가에서 결혼을 할 경우 고을의 수령이나 양반가에서 신랑·신부에게 혼례복이나 병풍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이때도 모란도 병풍이 사용되었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평생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에도 혼례 장면에서 등장한다. 그리고 궁중에서처럼 훌륭하지는 않아도 조선 말기와 근대기에 민간에서 사용된 모란도 병풍도 있다. 화려한 색감과 섬세한 묘사가 없지만, 민간의 그림 역시 그만의 맛과 멋이 있다. <sup>[도판 6]</sup>

궁중부터 민가까지 모란은 좋은 날을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상징이었고, 왕실 여인들의 부귀함을 보여주는 꽃이기도 했다. 그리고 서양의 장미보다도 더 화려하고 크게 피어나며 그윽한 향을 풍기는 모란의 고귀함은 누구나 탐낼 만하다.

### 흐드러지게 핀 모란처럼, 부와 행운이 가득하길...

해를 바라보며 높게 자라는 노란 해바라기가 가지는 화사함도 좋지만, 붉고 희게 여러 겹의 입으로 피어나는 화려한 모란도 눈을 즐겁게 한다. 실상 어떤 그림을 걸어놓는다고 그 의미가 실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안다. 하지만 반신반의하는 마음 혹은 그 이미지를 보면서 갖게 되는 소망이 조금씩 쌓여 실제로도 부와 행운을 누리게 되길 바라는 것은 아닐까. 황금빛 해바라기가 부귀함을 주는 것이 그저 노란 색과 금의 색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루어진 믿음이듯, 우리 조상들은 모란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것을 보고 꽃 중에서 가장 화려한 화왕처럼 나와 가족의 삶이 멋지게 피길 바랐을 것이다. 올 여름에는 모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귀영화를 꿈꿔보면 어떨까? 우리가 화왕의 고귀함 한 조각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 지난 호 첫 문장의 '칠레'를 '멕시코'로 수정합니다.

# 필하모니아 드 파리(Philharmonie de Paris)와 불협화음

글, 사진, 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1 필하모니 드 파리 콘서트홀

오케스트라 전용 홀인 콘서트홀을 다루는 이번 연재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콘서트 홀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상주하고 있는 빈의 뮤직페라인, 암스테르담 로열 컨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의 컨세르트허바우,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콘체르트하우스와 같은 역사적인 공연장 이야기는 그저 부러움의 대상일 뿐 크게 시사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호는 비교적 최근에 개관한 필하모니아 드 파리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

프랑스 음악계에는 필하모니 프로젝트 이전, 오케스트라 전용 연주홀인 콘서트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지난 1989년 세워진 바스티유 오페라 이후 파리를 대표할 만한 공연장이 없기 때문이다. 오페라와 발레가 공연되는 바스티유, 가르니에와 달리 파리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등 프랑스와 파리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물론 상젤리제 근처에 위치한 살 플레엘과 상젤리제 극장이 있지만 살 플레엘의 경우 협소한 공간, 부족한 음향시설로 한계가 있고, 상젤리제 극장은 잘 알다시피 프로시니엄 타입의 다목적 공연장이다. 유럽 최고의 문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콘서트홀의 부재가 이 필하모니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유이다.

필하모니아 드 파리는 2008년 세계적인 건축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하고 마드리드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루체른 KKL홀, 파리 아랍문화원, 아부다비 루브르, 국내에는 삼성미술관 리움 현대미술관을 설계한 건축가 장 누벨이 디자인했다. 52m 높이의 미래지향적 우주선 모양의 건축물로, 장 누벨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다양한 기술을 도입해 음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실용적 건축물 설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필하모니는 총 2,4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부터 가장 먼 좌석이 불과 32m 떨어져 있어 공연자와 관객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 여타 공연장과 비교해 가장 큰 특징이다. 덕분에 저렴한 가격의 좌석에서도 최대한의 현장감을 만끽할 수 있다. 음향은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의 도요타 야스히사와 뉴질랜드의 해럴드 마셜 등 전문가들이 담당했다. 관현악단과 합창단이 오를 수 있는 크지 않은 무대를 중간에 두고 360도 객석이 나선형으로 둘러싼 빈야드 형태의 구조이다. 1960년대 베를린 필하모니아가 개관된 이후 신규로 건설되는 대부분의 콘서트홀이 이 형태를 고집하고 있다. 예외로는 루체른의 KKL 정도가 유일하다.



2 라빌레트 공원 3 라빌레트 공원에서 바라 본 필하모니 드 파리 4 우주선과 같은 필하모니 드 파리 외관

필하모니가 지어진 이곳은 파리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한 파리 북동부 교외의 라빌레트 지구이다. 이 지역을 중요한 문화거점으로 삼겠다는 취지에서 필하모니아가 들어섰으며, 이곳을 기준으로 주변에 이미 많은 팝, 록, 재즈 공연장들이 들어서고 있다.

### 라빌레트 공원

원래는 도축장이었다. 고기를 파는 정육점과 33ha에 달하는 푸른 녹지에 육고기를 만들기 위해 동물을 사육하고 도축하던 곳을, 1973년 프랑스 당국에 의해 기존시설들이 우선 철거, 이전 되었다. 원래는 공원 조성이 아닌, 주거와 활동적인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빈 공간을 쓰다보니 도축장에서 콘서트도 열고, 유명인사도 부르면서 어느 순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건 어떨까 하는 시민 여론이 형성되었다. 결국 공원 조성을 위한 국제공모전이 열리고, 건축가 베르나르 추미(Bernard Tschumi)가 공모전에 당선, 그의 대표적인 업적이 되었다.

필하모니 건립에 프랑스 국민 45%, 파리 시민 45%, 일드프랑스 지방민 10%의 세금이 투자되었다. 그만큼 누구나 이곳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계획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필하모니 운영진도 상대적으로 티켓 가격을 최대한 낮게 책정하고 있다. 또 하나 재미있는건 연주회 시작 시간이다. 파리 외곽에 위치하다보니 일반적인 공연 시작 시간에 맞추어 업무를 끝내고 오기가 녹록치 않았다. 그래서 평일 저녁 연주회 경우 저녁 8시 30분에 공연을 시작한다. 일반적인 공연 시작 시간보다 한 시간 늦은 셈이다.

필자의 경우도 파리 시내 중심가 어느 위치에서든 호텔을 잡고 6시 30분쯤 출발하면 공연장까지 한시간 남짓 소요, 8시 전후로 도착했던 기억이 있다. 파리 시내의 비교적 극심한 교통 체증을 감안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외곽에 공연장을 두고 택한 절묘한 묘안이기도 하다. 도시 내에 2천 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는 대공간을 신규로 계획하는 것이 녹록치 않다. 주차장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도시 외곽에 새로운 문화적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효과도 볼 수 있으니 금상첨화이다.



## 파리市 Vs 건축가 장 누벨

하지만 정작 건축가 장 누벨은 2015년 필하모니아 드 파리 개관 시 파리와 불협화음 기사를 쏟아내었다. 당시 연합뉴스에 소개된 기사는 아래와 같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벨과 그가 설계한 파리 필하모니 콘서트홀(필하모니 드 파리)측이 공사비 초과분을 놓고 상대방 탓을 하며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파리의 새로운 명소가 된 필하모니 드 파리는 프랑스 현대건축의 거장으로 꼽히는 장 누벨이 설계를 맡았지만 설계 변경과 공사비 초과를 놓고 양측의 갈등이 격화, 장 누벨이 설계자 이름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장 누벨의 건축설계 사무소인 '아틀리에 장 누벨(AJN)'은 필하모니 드 파리 측이 제기한 공사비 초과분 1,700만 유로(222억 원)의 반환 요구 소송에 맞서 지난 14일 파리 중죄법원(TGI)에 필하모니 드 파리 측을 상대로 공금 횡령, 부정 청탁,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고 일간 르 몽드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 누벨 측이 그동안 제기한 민사소송 패소와 조정 결렬 이후 형사 고소라는 정면 대결을 택한 것이다. 필하모니 드 파리 측은 장 누벨 측의 설계가 잘못되어 공사비가 당초 계약액을 초과했으므로 장 누벨 측이 초과 대금 연체 이자를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AJN은 필하모니 드 파리 측의 건축비 초과분 지불 요구가 터무니없고 건축가의 설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필하모니 드 파리는 파리와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북부에 파리를 대표하는 새로운 대규모 음악당을 짓는다는 구상으로 2007년 공모전을 통해 1억 1,800만 유로(1,544억 원)의 건축비로 시작한 대형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중간에 건축가와 건축주 간의 의견 충돌에 이어 설계 변경이 수차례 이어지면서 건축비 총액은 당초 예상액의 갑절가량인

3억 2,800만 유로(4,291억 원)까지 치솟았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필하모니 드 파리의 건축비 총액을 5억 3,400만 유로(7천억 원)로 추산하기도 했다. 필하모니 드 파리는 준공되기도 전에 여러 논란으로 건축계와 문화계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5년 1월 14일 야심차게 개관했지만, 건축가인 장 누벨은 건물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면서 개관식 참석을 거부했다. 이후 그는 이 건물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AJN은 자사의 역대 작품 리스트에서도 필하모니 드 파리를 지워버렸다.

필하모니 드 파리의 건축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문화계의 초대형 건축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발주자 측이 건축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비단 필하모니아 드 파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플래그십 콘서트홀인 함부르크의 엘프필하모니아는 더한 흥역을 치루었으며, 너무나도 유명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도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국제아트센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많은 불협화음 기사를 접하였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책임 소재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 수 없다. 아직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오페라 극장과 콘서트홀이 생기는 산고의 과정이며, 선행해보지 못했기에 더더욱 그렇다.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는 냉정한 지적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애정을 가지고 응원하는 시선도 필요하다.



5 필하모니 드 파리 객석

배우고 익히고 나누니  
즐겁지 아니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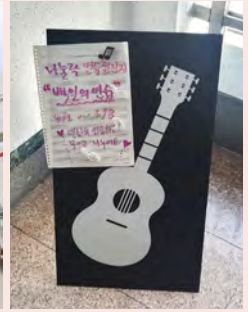


박나무 자유기고가

한자 ‘樂’은 몹시 재미있는 글자다. 뜻에 따라 다른 소리로 읽는데, 즐거울 때는 ‘락’. 우리가 흔히 쓰는 오락, 쾌락, 극락 등이 그것이다. 동네 이름 안락동, 민락동, 삼락동에서도 이 락을 쓴다. 두음법칙에 따라 앞자리에 올 때는 ‘낙’, 낙원, 낙천, 낙관... 노래하고 연주할 때는 ‘악’인데 악기, 악단, 악보, 관현악, 타악 등 음악과 관련된 단어로 구성되면 모두 악으로 읽는다. 좋아할 때는 ‘오’라고 하는데, 요산요수(樂山樂水)가 그 예. 지혜로운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에서 나온 말인데, 락산이나 악수로 읽는 것보다 요산요수가 부드럽고 좋은 것 같기는 하다. 노래하고 연주하며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같은 뜻과 음일 수도 있겠다.

오늘 만난 재송동 나눔락의 사람들은 이 글자의 여러 뜻과 음을 통쳐서 나눔 ‘樂’으로 부른다.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음악적 재능을 나누고, 맛난 커피와 차로 도란도란 모여 사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 즐거운 음악과 교류의 향연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기타와 피아노는 기본이며, 드럼, 퍼커션, 플루트에 보컬까지... 학원이라고 명명하기에는 좀 어색하지만 맞춤형 강사와 수강생이 만나는 배움의 시간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빼곡하다.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나눔락의 회원이며, 이들이 배운 것을 뽐내는 날이 일 년에 두 번 있는 하우스파티. 그저 평범한 직장인 혹은 주부, 학생이라도 2층 스튜디오에 들어서면 아티스트로 변모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곳이다.





“우리 지역의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고 또 자처합니다. 세상살이의 고단함 때문에 현대인들은 자기 테두리를 벗어나기가 힘든데, 여기 모여 배우고 나누면서 가까워지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이 공간의 가치를 느끼는 거죠. 음악은 즐겁자고 하는 것이지, 고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공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함께 즐겁고 서로 나누는 이 시간들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요.” 공간을 운영하는게 녹록치 않을텐데, 박선영 대표는 펍 편안해 보인다. 그저 하루를 행복하게 살면 그 날들이 모여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것 아닐까 싶다. 신입회원이 100일을 끊임없이 연습하면 하루 500원씩을 나눔락이 적립한다. 그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실력도 쌓이고, 적립금도 늘어난다. 뜨거운 어느 여름날, 삼계탕을 만들어 장애인복지관에 나누고, 쌓은 실력으로 위로를 드리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연중행사. 어떤 이의 100일은 그리도 기쁘게 나누어진다.

나눔락은 15평 정도의 어쿠스틱홀, 그리고 3명 정도가 연습할 수 있는 개인연습실, 음료와 추천도서를 즐길 수 있는 라운지 등으로 이루어진 아담한 공간이다. 어쿠스틱홀은 이름처럼 어쿠스틱 공연에 맞춤형 곳인데, 많아야 50명 정도 관람이 가능하다. 소공연장 중에서도 소공연장인 셈이지만 그만큼 좋은 소리의 울림을 깊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한 달에 1~2회 있는

귀한 공연에 입장만 성공한다면 귀호강을 보장한다. 나눔락을 비롯한 소공연장들이 연합해 벌이고 있는 ‘원먼스페스티벌’이라는 게 있다. 6월 한 달간 각 공연장들이 릴레이로 공연을 이어가니 소공연장 애호가들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일텐데, 나눔락은 6월 17일 ‘소리치레’라는 국악퓨전밴드의 공연을 펼치려 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모여 못쓰게 된 악기를 예술품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워크숍을 열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분들을 모시고 공연이나 강좌를 열기도 한다. 몹시 작은 곳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못 할 것도 없는 곳이다.

우선은 라운지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슬쩍 책장을 둘러보는 척 하다가 매니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첫 만남의 수순이겠다. 이 곳에서 어떤 악기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회원이 되려면 어떡해야 하는지, 언제 오면 귀호강을 할 수 있는지... 나눔락에 안 가 본 사람은 많아도, 한 번만 가 본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했던가. 나눔락에서 나눔의 기쁨을 배로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란다. 이런 공간들이 동네 곳곳에 생겨나고, 사람들이 저마나 악기 하나쯤은 연주하는 세상을 상상해본다.

**문의 나눔락** 051-715-7080, [instagram.com/nanulak\\_music\\_studio](https://www.instagram.com/nanulak_music_studio)  
※ 일요일·공휴일 휴무

# 한국 아동극 100주년, 국립어린이청소년극장 필요하다

장지영 국민일보 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3년 5월 1일 소파 방정환(1899~1931)이 발표한 ‘어린이해방선언(원명 소년운동선언)’의 일부로 어린이해방을 위한 기초조건 3개다. 1924년 국제연맹 총회의 ‘제네바 아동권리선언’보다도 1년 앞선다.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선포했던 방정환은 어린이날 1주년을 기념해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어린이해방선언을 발표한 후 사람들에게 전단을 나눠줬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해방’을 외치며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이후 어린이날은 점점 전국적으로 열리게 됐다. 다만 5월 1일이 노동절과 겹쳤기 때문에 1927년 5월 첫째 일요일로 옮겼다. 그런데, 어린이날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일본 총독부는 어린이날 행사가 민족의식을 높일 것을 염려해 1934년 한국 최초의 순수 어린이 잡지 ‘어린이’를 폐간한 데 이어 1937년 어린이날 행사도 금지했다. 그러다가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어린이’가 다시 발행됐으며 어린이날 역시 부활했다. 아예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으며,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어린이날은 국가적 행사가 됐다.

올해 어린이날 101주년과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

국방정환재단 등 다양한 어린이 단체들이 5월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행사를 개최했다. 종로구 방정환 생가터에 모인 500여 명은 세종문화회관 뒷마당까지 행진한 뒤 100년 전 방정환처럼 어린이해방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행진과 어린이해방선언 낭독 외에 거리공연, 전통놀이 체험 등이 펼쳐졌다.

그런데, 올해는 한국 공연예술 역사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해다. 바로 아동극(최근엔 어린이극과 청소년극을 더한 어린이·청소년극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100주년이기 때문이다. 1923년 3월 창간된 잡지 ‘어린이’에는 동요·동화·동극(童劇·아동극) 등이 실렸는데, 방정환이 창간호에 실은 동극 ‘토끼의 재판’, ‘노래 주머니’는 한국 아동극의 출발점으로 간주된다.

아동극은 어린이의 교육이나 놀이 등을 위해 만든 극을 말한다. 그 대상은 유아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포함된다. 형태는 어른 배우들이 공연하는 연극,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공연하는 연극, 어린이들만이 공연하는 연극의 세 가지로 나뉜다. 아동극의 근본 목적은 어른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어떤 형태를 취하든 어린이들의 생리에 맞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아동극의 역사를 살펴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요나 동화보다 훨씬 늦게 등장했다. 유럽에선 14세기에 소년극단이 활동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18세기에 프랑스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 아동극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본격적인 아동극은 20세기 들어 영국과 미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과정에 아동극이 채택되면서부터다.



올해 어린이날 101주년과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행사가 5월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됐다. ©아시테지 코리아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어린이해방선언 낭독 ©아시테지 코리아

한국의 경우 방정환에 의해 아동극이 시작됐지만 어린이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 때문에 광복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특히 1946년 아동극이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6·25 한국전쟁 이후 어린이잡지를 통한 아동극 발표 외에도 아동극집의 발간 및 상연이 꾸준히 이루어지는가 하면 1961년부터 전국아동극경연대회가 개최됐다. 1980년대 이후 아이들이 중심이 된 아동극 상연은 줄어들었지만, 기성 극단들이 아동극을 올리는가 하면 아동극을 전문으로 하는 극단들이 잇따라 생겼다. 특히 경제적, 문화적 수준이 좋아지면서 제작비가 많이 투입된 아동극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00년이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극장(극단)이 아직도 없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연극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공적 지원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청소년극단이 있는 것과 비교된다. 한국의 경우 오랫동안 공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아동극을 성인극의 부수적 존재로 여긴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청소년극은 가족이나 친구 문제로 방황하는 청소년의 모습을 그리는 게 대부분이었다. 이마저 대학 입시에 쫓긴 청소년들이 극장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물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청소년극보다 수요가 있는 어린이극의 경우 나이에 따른 섬세한 접근 없이 저학년 이하 학생들의 흥미 위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어린이·청소년이 교육과 훈육,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공연계에서도 소재와 완성도는 물론 사회적·철학적 시선을 담은 어린이·청소년극을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이 커졌다. 자연스럽게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의 고유성을 고려한 독립적 정책을 토대로 국가적 차원의 어린이청소년극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책, 어린이서점,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시민적 열망이 커지면서 2006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개관한 것은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줬지만, 더 진전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2010년 국립극단이 국립극장 전속단체에서 재단법인으로 독립하면서 전환점이 마련됐다.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창단을 목표로 2011년 국립극단 부설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가 만들어진 것이다. 연구소는 국내에 유난히 부족한 청소년극에 집중해 다수의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드는 등 성과를 냈지만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창단 목표를 달성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최근 어린이청소년극계가 국립어린이청소년극장 개관을 목표로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극단 사무국, 공연장, 연습시설로 활용 중인 서울 서계동 일대 부지 7,904.5㎡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과 관련해 중극장이나 소극장 가운데 1곳을 어린이청소년전용극장으로 만들어 달라며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해외에선 국립어린이청소년극장의 경우 놀이시설 등 다양한 시설까지 함께 갖추고 있지만, 국내에선 전용극장이라도 하나 마련하는 게 최우선인 상황이다. 다행히 문화체육관광부 측에서도 필요성에는 공감한 상태라고 한다. 국내 어린이청소년극계의 숙원이 이번에는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 INVITATION TO THE

## G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 D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 M

무지크바움	070-7692-0747
-------	---------------

## B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 S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시네바움	010- 2774- 345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 E

액터소극장	611-6616
에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 C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 H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 K

KBS부산홀	620-7181
--------	----------

## S

SM아트홀	1600-1602
-------	-----------

# ARTS



부산시립교향악단

# 600개의 금자탑을 쌓다

## 정기연주회 600회 맞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최수열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0회 정기연주회 말리의 마지막 교향곡

- 일 시 6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부산시립교향악단이 6월 1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600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무대는 지난해 창단 50주년에 이어 또다시 쌓아올린 기념비적인 자리로, 그동안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함께 자축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제600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전통적인 교향곡에 이별을 고하고 새로운 음향의 시대를 열었다는 작품으로 평가받는 말리의 마지막 교향곡인 '교향곡 제9번'을 들려준다. '교향곡 제9번'은 연주시간만 1시간 22분이 소요되는 대작으로, 협연자 없이 오롯이 부산시립교향악단만의 연주로 600회의 의미를 되새긴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난



2017년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후 올해로 6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최수열 예술감독이 작곡가들이 남긴 마지막 교향곡을 소개하는 ‘6 Last Works’ 세 번째 무대로, 말러가 세상을 향해 남긴 ‘고별사’라 불리는 ‘교향곡 제9번’을 통해 부산시민들에게 감사와 이별의 아쉬움을 미리 전한다.

말리의 ‘교향곡 제9번’의 주제는 흔히 ‘죽음’과 ‘작별’로 해석된다. 말러는 1907년, 빈 궁정 오페라 감독직 사임, 큰딸 ‘푸치’의 죽음, 자신의 심장병 진단 등 흔히 ‘운명의 세 타격’으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불행한 사건들을 겪은 후, 미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희망을 꿈꿨으나 언어의 장벽과 현저히 떨어진 체력은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다가왔다. ‘교향곡 제9번’에는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며 너무나도 사랑했던 인생에 대한 회한과 미련을 토로하고 그토록 갈망했던 이상을 향한 마지막 동경과 체념이 담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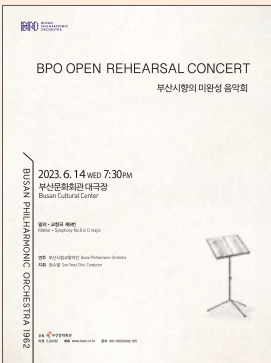
현대음악에 대한 탁월한 재능과 아카데미화하면서도 창의적인 프로그래밍으로 인정받고 있는 최수열 예술감독은 함께 하는 연주자들을 먼저 배려하면서도 책임감을 잃지 않는 리더십을 지닌 지휘자이다. 바로크부터 동시대 음악까지의 영역을 아우르는 그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에 이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라벨의 관현악곡 전곡 사이클을 국내 최초로 완주한 바 있다. 최수열 예술감독은 작곡가 윤이상, 진은숙, 김택수, 신동훈의 작품에 각별한 애정이 있으며, 이 시대의 중요한 현대음악은 반드시 악보가 아닌 연주로 보존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는 말러 ‘교향곡 제9번’은 정기연주회 외에도 ‘미완성음악회(6월 14일)’, ‘BPO OdysseyII: 경험이 가득한 긴 여정(6월 15일)’, 그리고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23 교향악축제’ 폐막무대(6월 25일)에서도 만날 수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I**

<p>•일 시 6월 14일 수요일 오후 7:30</p>
<p>•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p>
<p>•입장료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p>



제600회 정기연주회 오픈 리허설 형식으로 진행되는 ‘미완성음악회’에서는 실제 리허설을 바탕으로 오케스트라가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연주를 앞두고 지휘자와 단원들이 호흡을 맞추어 가는 과정을 직접 육성으로 듣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전문가는 물론 클래식 매니아들에게도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인 말리의 ‘교향곡 제9번’의 연습과정을 관객들에게 공개하며 최수열 예술감독으로부터 작품의 특징 및 숨겨진 에피소드를 직접 들을 수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 BPO Odyssey II: 경험이 가득한 긴 여정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제갈삼



작곡가 김택수

•일 시 6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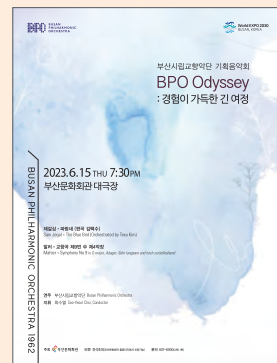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초대(1인 4매 예약)

부산시립교향악단의 'BPO Odyssey: 경험이 가득한 긴 여정'은 부산 음악계를 굳건히 지켜

온 지역의 원로 음악인들과 함께 하는 자리로, 지난한 부산음악사를 다시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지난해 첫 번째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을 맞아 부산시립교향악단을 거쳐간 원로 단원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이번 무대에서는 제 600회 정기연주회를 기념하는 의미로, 부산음악계 최고 어른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제갈삼 선생(1925년생-98세)의 음악인생을 조명하고 그의 작품 '파랑새'를 연주한다.

'파랑새'는 제갈삼 선생이 한하운 시인의 동명의 시를 모티브로 작곡한 피아노 독주곡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 김택수가 편곡한 관현악 버전을 들려준다. 작곡가 김택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선정한 '2021 올해의 예술가로,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초대 상주작곡가'를 역임하고 현재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교수로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 외에도 제600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인 말러의 '교향곡 제9번' 중 제4악장을 들려준다.



## 2023 교향악축제



소프라노 서예리

•일 시 6월 25일 일요일 오후 5:00

•장 소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입장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B석 1만원

부산시립교향악단은 6월 25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23 교향악축제' 폐막무대에 선다. 이날 무대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말

러의 '교향곡 제9번' 외에도 모차르트 '환호하라, 기뻐하라'를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서예리 교수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서양음악사 시작과 끝에 놓인 고음악과 현대음악을 넘나드는 가장 독보적인 소프라노로 해외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서예리는 크리스탈과 같이 매혹적인 음색과 정확한 디션, 치밀한 학구적 해석을 바탕으로 세계 최정상급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현대음악의 메카인 독일 다름슈타트 음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2019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문화부 장관상을 수여받았다.





## 전석 매진의 신화! 연극 12인의 성난사람들

몰입감 넘치는 이야기와 섬세한 연출로 관객과 평단을 동시에 사로잡은 수작 '12인의 성난사람들'이 부산을 찾는다.

### 극중 인물들로 보는 동시대의 다양한 인간군상

인간에 대한 통찰과 세상에 대한 반문을 현대적이며 감각적인 창작활동으로 무대화해 온 극단 산수유가 지난 2016년 초연한 후 2017년, 2019년까지 전석 매진의 신화를 이루며 호평받은 '12인의 성난 사람들'은 2017년 한 해만 제4회 이데일리문화대상 연극부문 최우수상, 월간 한국연극 선정 2016 공연베스트7, 공연과 이론 작품상을 수상하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이야기는 16세 소년이 친아버지의 살해범으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서게 되고, 모든 정황과 증거가 그 소년을 범인으로

로 지목한 상황에서 시작된다. 모두가 '유죄'를 주장하며 토론을 끝내려는 그 때, 오직 한 명의 배심원이 소년의 '무죄'를 주장한다. 배심원들이 추론과 반론을 거듭하다가 '살인자도 하나의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전제에 직면하면서 그동안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간과했던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인간의 본성을 찌르는 통찰을 담은 이 작품은 프롤로그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배심원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극적 구조와 긴장감 넘치는 언쟁 장면을 통하여 관객들의 몰입감을 극대화시킨다.

### '편견과 왜곡의 잔인성'을 상기시키는 드라마

'12인의 성난 사람들'은 살인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배심원들의 법정 드라마 같지만 100분 간의 치열한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편견을 깨고 자아를 끌어안는 반성의

**시 간** 7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8일 토요일 오후 3:00    **장 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14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드라마이다. 작품은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열 명의 죄인을 풀어주는 것보다 부당하다’는 격언 속에 나타난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합리적 의심의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해볼게 한다. 또한,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력을 되돌아보고, 편견과 왜곡이 가질 수 있는 잔인함을 상기시킴으로써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에 둘러싸여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재조명하고 있다.

이번 작품의 연출을 맡은 연출가 류주연은 “소년의 유무죄를 놓고 펼쳐지는 진실공방에서 오는 흥미진진함

은 물론이고, 열두 명의 인물들을 통하여 보여지는 다양한 인간 군상이 주는 재미가 쏠쏠하다.”며 “등장인물들은 우리 옆 집에서, 지하철에서, 직장에서 붓직한 사람들이며, 이들을 좇아 극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작품은 내가 가진 편견이 무엇인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인지,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 등 수많은 질문을 던진다. 무엇보다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반 세기 전의 이 질문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지극히 현재적이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진실을 알지 못할지라도

김소연 연극평론가

<12인의 성난 사람들>(원제: 12 Angry Men)은 1950년대 미국에서 TV드라마, 희곡, 영화 등으로 제작되었던 작품이다. 영화(레지널드 로즈 각색, 시드리 루멧 연출)는 1957년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했고, 아

카데미 작품상 후보에도 올랐다. 미국의 배심원제도의 의미를 환기하는 빼어난 법정드라마라는 평가는 지금도 여전해서, 발표된지 7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OTT 등에서 상연되고 있는 미국 영화의 대표적 고전이다. 또 미국에서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꾸준히 연극이 오르고 있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서 영화로 리메이크되기도 했다.

살인사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판사의 선고에 앞서 피고의 유무죄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는 드라마의 전개는 희곡과 영화 모두 같다. 드라마는 이미 검사

와 변호사의 논박이 끝난 직후에 시작된다. 첫 장면은 배심원들에 대한 판사의 주문이다. 연극에서는 아직 배심원들이 등장하지 않은 텅 빈 무대에 목소리만 들린다. 피고의 유죄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무죄 평결을, 그렇지 않다면 유죄 평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결정이든 만장일치여야 한다는 것. 판사는 이러한 주문과 함께 “한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며 이들의 결정의 무게를 환기한다. 12명의 배심원들은 재판정을 떠나 배심원실에 모인다. 16살 소년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존속살인이다. 중요한 사건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사건은 자명하고 피고가 유죄임을 보여주는 증거도 의심할 도리가 없다. 이들은 논의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는데, 단 한 명의 배심원이 무죄에 표를 던진다. 11:1. 평결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저 결론이 조금 늦어질 뿐



인 건가. 대체 어떻게 단 한 사람의 의견이 다른 열 한 사람의 의견을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러나 쉽게 ‘합의’에 이를 줄 알았던 토론은 지난하고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진다. 이미 재판정에서 의심할 바 없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했던 증거들은 다시 검토된다. 의견과 의견이 맞부딪치고, 반론이 반론으로 이어진다. 이 작품이 빼어난 법정 드라마라 상찬받는 것은 사건의 증거와 증인을 하나하나 논박하는 과정이 추리극적 긴

장감 속에서 전개되는 한편, 이들의 논박이 격렬한 토론극의 긴장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쉽게 끝날 줄 알았던 토론은 출구 없는 미로에 빠져버린다.

혼돈은 이들이 증거를 다시 검증하는 일의 어려움만은 아니다. 생면부지의 12명의 배심원들은 모두 제각각이다. 논리적 근거로 토론에 참여하는 이들도 있지만, 토론에 별 관심이 없거나, 이편저편으로 의견이 근거 없이 흔들리기도 하고, 완력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한다. 편견 없이 자신의 이해와 처지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면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지난한 것이다. 특히 이들의 토론이 격렬해지면서 빈민가 흑인 소년인 피고에 대한 편견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12명의 배심원들은 여러 직업과 계층으로 구성되었지만, 모두 백인 남성이다.

지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 미국 청소년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 학습 교재로 쓰일 만큼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하지만, 잘 짜인 드라마들이 그렇듯이 이 작품 역시 50년대 미국사회가 촘촘히 들어서 있다. 흑인 소년 피고인에 대한 백인 남성 배심원들의 평결이라는 구도는 빈민가 청소년에 대한 편견에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완강한 배면을 이룬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21세기 한국이다.

극단 산수유의 <12인의 성난 사람들>은 세 명의 여성 배심원을 추가함으로써 ‘남성’을 물러세우고, 한국 배우들이 연기하는 만큼 백인도 물러 세운다. 이 드라마에서는 정작 피고는 직접 등장하지 않는데, ‘흑인’ 소년을 굳이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흑백갈등을 물러세운다. 사회의 공적 역할에 참여한다는 표식 같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정장차림은 편안한 일상복으로 바뀌었다. 영화에서 방을 가득 채우고 있던 육중한 테이블도 치웠다. 그리고 사면의 벽은 마치 가축 우리처럼 가로지른 쇠막대가 대신한다. 영화에서 정장차림의 백인 남성들이 커다란 회의 테이블을 앞에 두고 앉아 벌어지는 논쟁은,

무대를 종횡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변화했다. 무대를 성큼성큼 가로지르고, 논쟁은 상대의 몸을 향한 총돌 직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논쟁의 과정에서 이리저리 무리가 흩어지고 모인다. 주장은 그야말로 온몸으로 펼쳐진다.

영화가 클로즈업으로 정적 긴장을 전개한다면 연극은 배우의 몸으로 공간을 흔들면서 격렬함을 두드러지게 드러낸다. 이러한 드러냄은 정적인 갈등을 동적으로 전환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이 작품의 배면을 이루고 있는 1950년대 미국사회 빈민가 흑인 소년에 대한 인종차별적 편견이 물러선 자리에 논쟁에서의 태도가 들어선다. 몸과 행동이 두드러지는 연극의 전개에서는 격렬함이 논쟁의 대립을 넘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에 대한 공격성으로 드러난다. 그 공격성은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신념으로 정당화된다. 정의에 대한 신념은 혐오마저도 거침이 없다.

연극 역시 영화와 마찬가지로 배심원들이 평결을 위해 모이고 '만장일치'의 합의에 이른다. 이 작품을 잘 짜인 법정드라마로 본다면 지난한 논쟁을 거쳐 약한 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정의로운 평결을 세운 것이 될 것이다. 결론만을 놓고 본다면 영화와 연극 모두 그렇다. 하지만 연극의 도착점은 좀 다른 것 같다. 가축 우리 같은 배심원실은 난장판이 되어 간다. 정의에 대한 신념은 멈출 줄 모르고 질주하면서 스스로를 고스란히 벌거벗긴다. 이 연극의 결말에서 배심원실을 떠나는 이들의 뒷모



습은 패배자의 그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이들이 도착한 '무죄'라는 평결은 소년의 죄없음을 밝힌 것이기 보다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재판이라는 법적 제도에서 소년을 살인범이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정의가 진실일 때만 실현되는 것이라면, 이들이 도착한 결말이란 진실은 알 수 없고 정의는 유예된 것일 게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소년이 살인범이라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결론은 진실을 알지 못하는 미숙한 인간이 살인자에게 죄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진실을 알 때에만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 우리 삶의 대부분은 알 수 없는 진실에도 불구하고 혹은 불완전한 진실 앞에서의 선택과 행동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정의와 무관한 것일까. 그러나 이 연극이 도착한 결말이 정의로운 것이라면, 모호한 진실 앞에서도 우리의 삶이 정의를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은 이 불완전한 진실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만장일치의 합의는 이 불완전한 진실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어진다 는 것이 아닐까.

너무 초라한가? 그렇지 않다. 이 작품이 민주주의에 대한 연극이라면 지극히 합당한 결말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정의가 민주주의에 의지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가 진실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도달한 것이 불완전한 진실일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소년 B가 사는 집



◆ **지난해 부산시립극단이 청소년들의 예술문화체험을 위해 특별히 제작, 호평 받았던 창작극 ‘소년 B가 사는 집’이 다시 한번 관객과 만난다.**

‘소년 B가 사는 집’은 현실 사회의 문제를 섬세하게 다루는 이보람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한 소년과 그를 바라보는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세상의 냉담한 시선을 다룬 청소년들을 위한 성장드라마이다. 이보람 작가는 작가의 글에서 “한 순간만이라도 분노를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그렇게 반복되어온 폭력의 굴레를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이 희곡이 그런 시간을 잠시라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작품은 열네 살 때 친구를 죽이고 복역을 하던 중 모범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출소한 주인공 ‘대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대환의 엄마와 아빠는 대환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지만 주변인들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 ‘악마의 집’으로 낙인찍힌 채 살아가는 대환의 집에는 아이들이 던진 돌이 날아들기도 하며 집 앞의 가로등조차 제대로 수리를 해주지 않아 해가 지면 늘 어둠 속에 묻혀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대환의 아버지는 대환을 비롯해 가족 모두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루하루 더딘 시간 속에서 소년 B의 환영이 대환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번 무대의 연출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부산연극제작소 동북의 상임연출가 최용혁이 맡았다. 처음 이 작품을 접하며 ‘범죄 이후의 소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최용혁 연출가는 “내가 만약 ‘대환’이라면? 내 가족이 만약 ‘대환’이라면? 그리고 만약 내 친구가 대환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소년 A인가, 소년 B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공연장을 찾아온 관객들이 “무대 위 주인공 ‘대환’이 아닌 지극히 ‘나’의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관람하면 더욱 깊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연출가 최용혁은 그동안 ‘썬사인의 전사들’, ‘뮤지컬 이몽룡’, ‘운약’ 등을 연출한 바 있으며, 2019년 부산연극제 연출상, 최우수작품상과 더불어 대한민국연극제 은상(단체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감동과 반향을 던지는 무대로, 공연기간인 6월 14일부터 사흘간 오전에는 청소년예술교육으로,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공연은 일반공연으로 진행된다.

**일 시** 6월 14일-15일 수-목요일 오전 10:30, 오후 2:00(단체관람), 16일 금요일 오전 10:30, 오후 2:00(단체관람),

7:30(일반관람), 17일 토요일 오후 5:00(일반관람) **장 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단체관람 문의 607-3111~3**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성진 & 발트 앙상블**



피아노 조성진



발트 앙상블

◆ 어떤 수식어도 필요없는 클래식계의 스타 조성진이 다시 한번 부산을 찾는다. 특히 해외 명문 오케스트라의 악장 및 수석, 단원들로 결성된 발트 앙상블이 조성진과 함께 무대에 선다.

압도적인 재능과 타고난 음악성을 겸비한 조성진은 같은 세대의 연주자들 중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지난 2015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조성진은 2022/23 시즌,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안드리스 넬슨스가 이끄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공연했으며, 세몬 비치코프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과는 티에리 에스케쉬의 피아노 협주곡을 초연했다. 사이먼 래틀 경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명훈 지휘의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해외 투어에도 함께 했으며,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와는 2023년 봄, 독일 투어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조성진은 두 곡의 협주곡을 들려준다. 1부에서는 현대 피아노 협주곡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9번'을, 2부에서는 우아한 선율이 돋보이는 쇼팽 '피

아노 협주곡 제2번'을 연주한다. 조성진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발트 앙상블은 두 곡의 협주곡 외에도 레스피기의 '고풍적 아리아와 춤곡 제3모음곡'과 바르톡 '디베르티멘토'를 들려준다.

독일어로 '숲'을 뜻하는 '발트(WALD)' 앙상블은 다양한 나무들이 어우러져 울창한 숲을 이루듯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젊은 연주자들이 음악을 즐기며 함께 공감하고, 다양한 관객들과 거리감 없이 음악을 공유하기 위해 모인 팀이다. 동양인 최초로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제2바이올린 종신 악장에 오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시작한 이지혜를 필두로, 해외 명문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수석 및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발트 앙상블은 지난 2015년 2월, 예술의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그 해 8월,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열린 'The Development' 공연으로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꾸준히 관객들과 음악적인 교감을 나누고 있다. 특히 2021년 한국 벨기에 수교 120주년을 맞아 가진 벨기에 초청연주회에서 뛰어난 연주실력으로 성공적인 유럽 데뷔 무대를 가졌으며, 한국 민요를 편곡, 연주하는 플래시몹을 선보이며 벨기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일 시 6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3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

## 이바노프랭키 필하모니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



◆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전문연주자들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이바노프랭키 필하모니 챔버 오케스트라가 6월 2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그동안 정기공연, 청소년 교육사업 외에도 해외교류공연을 통해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한국국제예술교류협의회가 지난 2003년부터 가져온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는 그동안 자포리자(Zaporozhye), 크멜리니츠크(Khmelnyskyi), 리보브(Lviv), 체르니우치(Chernivtsi), 부코비니안(Bukovinian) 등 우크라이나의 유수 교향악단을 소개해왔다. 올해 부산을 찾는 우크라이나 이바노프랭키 필하모니 챔버 오케스트라는 이들 교향악단의 수석 연주자들로 구성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실내악단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김현국의 지휘로 첼리스트 양육진, 오보이스트 권성은, 피아니스트 황성훈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지휘자 김현국은 유럽을 중심으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다, 2008년 비엔나 국립음대 지휘과에 입학하면서 지휘자로 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부터 우크라이나 자포리지에, 도네츠크, 체르니우치, 리보브 필하모니 등 다수 교향악단의 객원지휘자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아카데미 심포니 오케스

트라, 자포리지에 글린카 필하모니 부지휘자, 명예지휘자와 국내 악단인 Apec Nuri 필하모니 상임지휘자로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멘델스존의 '현악 교향곡 제2번'을 시작으로 브루흐 '콜 니드라이', 치마로사 '오보에 협주곡 다장조', 바르토크 '루마니아 민속 무곡', 멘델스존 '세레나데와 알레그로 지오코스', 엘가 '세레나데 마단조' 등 우리 귀에 친숙한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콜 니드라이'의 협연을 맡은 첼리스트 양육진은 미국 줄리어드음대, 메네스음대를 거쳐 뉴욕주립대 스톤이부룩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뉴욕 아카데미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관현악과 교수, IPB, Wonder Cello 음악감독으로 있다. 치마로사의 '오보에 협주곡'을 들려줄 오보이스트 권성은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도독, 폴크방 에센 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 실내악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후 독주회를 비롯해 독일 알고우 오케스트라 내한연주회, 부산음악축제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엘가의 '세레나데'를 협연할 피아니스트 황성훈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거쳐 하노버 국립음대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지난 1999년 Bellini 국제콩쿠르 1위 입상을 시작으로 그동안 50여 차례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일 시** 6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부산시립합창단 제190회 정기연주회

# 모차르트 레퀴엠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이기선



소프라노 김제니



알토 추희명



테너 김세일 ©Jino Park



베이스 노대산

◆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미사와 레퀴엠 음악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해온 부산시립합창단이 올해는 모차르트 '레퀴엠'으로 호국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넋을 기린다.

레퀴엠은 가톨릭 미사에 사용되는 죽은 자들의 넋을 달래는 곡으로,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그의 유일한 '레퀴엠'이자 모차르트가 마지막으로 남긴 미완성 유작이다. 모차르트 사후 그가 남긴 스케치를 토대로 제자 쥘스마이어가 지금의 곡을 완성하였으며,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로 수많은 레퀴엠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예술감독 이기선이 지휘하고 부산시립합창단과 KNN방송교향악단, 그리고 소프라노 김제니, 알토 추희명, 테너 김세일, 베이스 노대산 등 국내 최정상 솔리스트가 함께 출연하여 관객들에게 안식과 평안의 시간을 선사한다.

소프라노 김제니는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성악과 및 가곡과, 프랑스 에콜노르말 성악과, 프랑스 파리 시립음악원 고음악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프랑스 마르세유 국립 성악가진흥원(CNIPAL) 소속 가수로 활동했으며, 이탈리아 콜자니 국제성악콩쿠르, 스페인 발라게르 국제성악콩쿠

르, 프랑스 부르그뉴 국제성악콩쿠르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미국 줄리어드 음대 대학원을 졸업한 추희명은 제33회 동아음악 콩쿠르 입상, 제6회 이대웅 콩쿠르 1위, 뉴욕 푸치니 국제 콩쿠르 입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현재는 안양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테너 김세일은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 2위, 카바니스 리트 듀오 콩쿠르 1위, 네덜란드 IVC 콩쿠르 가곡상, 베르비에 페스티벌 아카데미 최고의 성악가상 등 저명한 국제 콩쿠르에서 다수 입상하고 현재 국립강원대학교 교수 및 부학장으로 있다. 북미 및 남미, 유럽, 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노대산은 Cardiff singer of the world 국제콩쿠르, Puccini Opera 국제콩쿠르, Liederkrantz Foundation voice 국제콩쿠르 등 다수 콩쿠르에서 1위 입상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다.

이번 무대의 연주를 맡은 KNN방송교향악단은 지난 2016년 창단 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회, 유명 아티스트 초청공연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지휘자 서희태가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맡아 부산, 경남 지역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일 시 6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수미 &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소프라노 조수미  
 ©Warner Music Korea\_lee soo jin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Peter Adamik

◆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 조수미와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가 한 무대에 선다. 특히 이번 무대는 세계적인 명성의 베를린 필하모닉의 현역 첼리스트 12명으로 구성된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의 창단 50주년 기념 무대로, 소프라노 조수미와 함께 마법과도 같은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12첼리스트, 그들은 첼로의 진정한 거장이다(카라얀), ‘그들의 독창성을 존경한다(클라우디오 아바도), ‘12첼리스트는 훌륭한 그 자체이다(사이먼 래틀)’ 등 세계적인 마에스트로의 찬사를 받은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는 오랫동안 세계 음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1972년, 율리우스 글렌켈의 ‘12대의 첼로를 위한 찬가’를 녹음하기 위해 모이면서 설립된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는 첼로라는 단일 악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오케스트라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경이로운 사운드와 풍부한 하모니를 자랑하며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아왔다. 특히 클래식, 재즈, 탱고, 아방가르드 등 어떤 곡을 연주하든 12개의 첼로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하고 매혹적인 음색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켜 왔으며 지난 2001년과 2005년, 2017년에는 독일의 권위 있는 음악상인 에코 클래식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신이 내린 목소리’ 소프라노 조수미는 1986년 오페라 ‘리골레토’

의 ‘질다’ 역으로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한 후 1988년,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라는 카라얀의 극찬과 함께 오디션에 초청되는 영광을 누렸다. 카라얀의 급작스러운 서거로 게오르그 솔티 경이 대신 지휘했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베르디 오페라 ‘가면무도회’에 출연하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그는 이후 앞만 보며 달리는 콜로라투라의 대가로 이탈리아 라 스칼라, 런던 코벤트 가든,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프랑스 바스티유 오페라 등 세계 정상급 오페라 하우스와의 공연에서 주역으로 출연하여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았다. 조수미는 2008년 푸치니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여 성악가에게 있어 자랑스러운 명예이자 큰 영광인 ‘푸치니 상(The Puccini Award)’을 수상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제29회 북경올림픽에서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안젤라 게오르규와 함께 ‘세계 3대 소프라노’로 선정되어 독창회 무대를 가졌다. 2019년에는 오페라 업적에 기여한 공적으로 이탈리아 정부가 주는 친선훈장과 기사 작위를 받았으며, 2021년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오늘날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를 있게 한 율리우스 글렌켈의 ‘12대의 첼로를 위한 찬가’를 비롯하여 클래식에서부터 탱고, 영화음악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일 시** 7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 16만원, R석 12만원, S석 8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 토코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예술단 토코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가 7월 6일과 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토코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는 지난해 ‘우라아이 첫 오페라’를 콘셉트로 첫선을 보인 작품으로, 오디션을 거친 부산지역 청년성악가 8인과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연출과 해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라이브 연주를 선보이며 유료 객석 점유율 88.6%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올해는 지난 3월 오디션을 통해 부산지역 소프라노 권소라, 박나래, 김소연, 김리라, 테너 강도호, 바리톤 유용준, 베이스바리톤 황동남 등 7명이 선발되어 일찌감치 공연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소프라노 박나래와 바리톤 유용준, 테너 강도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디션에 도전, 토코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주역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다시 만난다.

박나래 외 새롭게 선발된 권소라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이탈리아 밀라노 G. Verdi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김소연은 이탈리아 밀라노 ‘G. Verdi’ 국립음악원 석사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오페라주역으로, 전문연주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최연소로 참가하는 소프라노 김리라는 프랑스 베르사유 국립음악

원과 스위스 베른 고등음악원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전문연주자로 활동해왔다. 작품 해석, 표현, 에너지가 특히 기대되는 오디션 선발자 7인은 모두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연주자들로, 평균연령은 35세이다. 오디션 선발자 외 정상급 성악가 바리톤 안세범, 테너 김동녕, 베이스바리톤 박순기가 함께 참석하고, 지난해 무대에서는 없었던 바질리오에 독보적인 베이스 이준석이 출연한다.

특히 올해 무대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로 2023년부터 부산 활동을 시작한 백승현 지휘자가 새롭게 합류하고, 연출가 이의주가 다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유럽에서 다양한 연주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귀국 후에도 수많은 교향악단을 지휘한 백승현은 현재 대한민국 음악의 미래를 책임질 대표주자로 손꼽히고 있다. 연출가 이의주는 이탈리아에서 ‘세비야의 이발사’를 연출, 현지 언론과 평론가로부터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면서도 음악과 대본, 기본에 충실한 연출’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한 편의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기 위한 갈라 공연으로 구성,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라이브 연주와 아이디어 넘치는 연출, 토코로 작품의 이해를 도와주는 ‘세비야의 이발사’는 평일 낮공연에서는 토코 중 추첨을 통해 관객을 선발, 라이브로 오페라 분장체험을 진행하며 또 하나의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일 시** 7월 6일 목요일 오후 2:00, 7:30, 7일 금요일 오전 10:30, 오후 2: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단체관람 별도문의)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0, 3113

## 2023 제20회 부산국제연극제

The 20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23

6월 2일(금)-18일(일)

영화의전당, 부산시민회관, 해운대문화회관,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외  
부산시내 소극장

부산국제연극제 802-8003, [www.bipaf.org](http://www.bipaf.org)



개막작\_ 사다리움직임연구소 '한여름밤의 꿈'



폐막작\_ 스페인 일라나(Yllana) 프로덕션 '마에스트리시모(Maestrissimo)'

올해로 성년을 맞은 부산국제연극제가 6월 2일 그 화려한 축제의 문을 연다.

지난 2004년 첫 발을 내딛은 부산국제연극제는 매년 세계 각국의 연극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제작, 문제작을 선보이며 부산 최대의 공연예술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팬데믹 기간을 이겨내고 다시 대면행사로 열리는 이번 연극제에서는 '상상20th'라는 컨셉으로, 지금까지의 20년을 돌아보고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올해는 20주년을 맞아 기존 프로그램 외에도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공연발굴을 위한 '주목할 작품'을 신설, 총 다섯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 참가작 중 우수작품은 2024년 부산국제연극제 공식초청작으로 다시 한번 관객과 만나며, 루마니아 바벨페스티벌 초청공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부산국제연극제는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을 위해 극장공연과 야외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극장공연으로는 개폐막작을 포함한 국내외 초청작과 축하공연, 주목할 작품이 무대에 오르며, 버스킹 형태의 공연인 '다이너미스트리트 프리즈'와 시민들이 만들고 공연하는 '10분연극제'는 야외공연으로 만날 수 있다. 개막작은 사다리움직임연구소의 '한여름밤의 꿈'으로, 셰익스피어 원작의 '요정의 숲'에서 고구려 비류국으로 시대적 배경을 옮겨와 우리나라 전통연희와 탈을 활용한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인 '봉산탈춤'과 16~18세기 이탈리아에서 유행했던 희극 양식인 '코메디아 델 아르테'를 토대로, 진실한 사랑을 찾는 연인들이 벌이는 한바탕 소동을 유쾌하게 그려낸다. 폐막작은 2009년과 2013년 부산국제연극제 전회 전석 매진 신화를 이룩한 스페인의 일라나(Yllana) 프로덕션의 신작 '마에스트리시모(Maestrissimo)'이다. 10년 만에 다시 부산을 찾는 일라나 프로덕션은 이번 작품에서 17세기와 18세기 바로크, 신고전주의 시대의 현악사중주 라운드를 등장시켜 창작과 윤리, 독창성과 예술의 가치 등 사회



해외초청작\_

- 1 콜롬비아 CASA DEL SILENCIO '마누 혹은 시간의 환상 (MANU or The Illusion of Time)'
- 2 Fleur Elise Noble '루맨(Rooman)'
- 3 Theatre Re의 '네이처 오브 포갯팅(The Nature Of Forgetting)'



축하공연\_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1945'

행사 일정

-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1945' 축하공연  
6월 2일(금) 오후 7:30, 3일(토)-4일(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다이내믹스트릿 프린지 참여프로그램  
6월 3일(토)-4일(일) 오후 1:00~3:00 밀락더마켓  
6월 3일(토) 오후 12:00~5:00, 4일(일) 오후 3:00~8:00 광안리 만남의광장
- 20주년 심포지엄 '부산국제연극제의 현황과 미래' 부대프로그램  
6월 7일(수)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마르셀 마르소 탄생 100주년 기념 '마스터 클래스' 부대프로그램  
6월 8일(목)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사다리움직임연구소 '한여름밤의 꿈' 개막작  
6월 9일(금) 오후 7:30, 10일(토)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 극단 까망 '변신' 주목할 작품  
6월 10일(토)-11일(일) 오후 5:00 공간소극장
- 10분연극제 참여프로그램  
6월 10일(토)-11일(일) 영화의전당 야외광장
- 극적공동체 고도 '위버멘쉬2' 주목할 작품  
6월 11일(일) 오후 5:00, 12일(월) 오후 7:30 하늘바람소극장
- CASA DEL SILENCIO '마누 혹은 시간의 환상' 해외초청작  
6월 12일(월)-13일(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극단 문지방 '시추' 주목할 작품  
6월 12일(월)-13일(화) 오후 7:30 용천지랄소극장
- Fleur Elise Noble '루맨' 해외초청작  
6월 13일(화)-14일(수)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 곡두환영 '구멍' 주목할 작품  
6월 15일(목)-16일(금) 오후 7:30 하늘바람소극장
- Theatre Re '네이처 오브 포갯팅' 해외초청작  
6월 16일(금) 오후 7:30, 17일(토) 오후 5: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M.M.S.T '오셀로' 주목할 작품  
6월 16일(금) 오후 7:30, 17일(토) 오후 5:00 용천지랄소극장
- 일라나 프로덕션 '마에스트리시모' 폐막작  
6월 16일(금) 오후 7:30, 17일(토)-18일(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속 주제를 코미디극으로 풀어낸다.

해외 초청작으로는 전쟁의 고통과 상실의 아픔을 신체언어로 빚어낸 콜롬비아 CASA DEL SILENCIO의 '마누 혹은 시간의 환상(MANU or The Illusion of Time)', 2020년 런던 국제 마임 페스티벌에서 찬사를 받았던 호주의 혁신적 아티스트 Fleur Elise Noble의 새로운 비주얼 씨어터 공연 '루맨(Rooman)', 런던, 뉴욕, 에든버러, 홍콩, 서울, 상파울루, 리마, 영국 등 전역에서 매진 신화를 이룬 Theatre Re의 '네이처 오브 포갯팅(The Nature Of Forgetting)'이 소개된다. 본격적인 연극제에 앞서서는 올해 대한민국 연극제 부산지역 출품작인 부산연극제작소 동녘의 '1945'가 축하공연으로 무대에 올라 2023년 부산국제연극제의 포문을 연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주목할 작품에서는 실험적인 공연을 통해 새로운 연극양식을 시도해온 극단 까망의 '변신'과 극예술 중심의 문화공동체인 극적공동체 고도의 '위버멘쉬2', 제12회 서울미래연극제에서 우수상, 연출상을 수상한 극단 문지방 '시추', 다양한 분야의 청년예술인들로 구성된 곡두환영의 '구멍', 그리고 일본의 예술단체인 M.M.S.T의 '오셀로'가 관객과 만난다. 특히 M.M.S.T의 '오셀로'는 지난해 후쿠오카에서 열린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서 부산의 배우들과 공동 작업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재창작한 작품으로, 일본과 한국, 대만의 예술가들이

협업하여 M.M.S.T만의 방식으로 셰익스피어를 해석한다.

야외공연으로는 우선 부산을 닮은 열정과 즐거움으로 가득찬 거리극 프로그램 '다이나믹스트리트 프린지'가 부산 곳곳에서 펼쳐진다. 거리와 광장을 무대 삼아 연극, 마임, 음악, 무용, 신체극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공연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올해 다이나믹스트리트 프린지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6개의 참여팀이 문화복합공간 밀락더마켓과 광안리 만남의광장에서 시민들과 축제의 즐거움을 나눈다.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무대에 오르는 '10분연극제'는 매년 실내에서 경연을 벌이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올해부터 영화의전당 야외광장에서 펼쳐진다. 10분연극제는 1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짧은 공연들을 번뜩이는 재치와 아이디어, 가능성 등을 엿볼 수 있는 참신한 릴레이 공연으로, 올해는 일반부 14개팀, 전공대학부 7개팀이 참가하여 경연을 펼친다.

이 밖에도 부산국제연극제는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로 프랑스의 역사적 아티스트인 마르셀 마르소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8시간 워크숍 '마스터 클래스', '부산국제연극제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마련했으며, 국내외 초청작 상연 후 마련되는 <아티스트 토크>는 올해도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대화를 통해 배우와 관객의 진솔한 대담이 이루어진다.



주목할 작품

- 1 극단 까망 '변신'
- 2 극적공동체 고도 '위버멘쉬2'
- 3 극단 문지방 '시추'
- 4 곡두환영 '구멍'
- 5 M.M.S.T '오셀로'

# 2023년 제19회 부산국제무용제

## 춤과 하나로! 부산과 세계로!



6월 2일(금)-4일(일)

-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부산시민공원 야외공연장

-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868-7881, www.bidf.kr)

해양수도 부산의 6월을 아름답게 수놓을 춤의 향연 '제19회 부산국제무용제(The 19th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BIDF)'가 6월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그 화려한 막이 오른다. 특히 부산국제무용제는 아름다운 부산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전 세계 춤의 향연이 펼쳐지면서 시민과 관객들에게 춤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춤이 있어 더욱 특별한 도시 부산을 알려왔다.

올해 부산국제무용제는 '춤과 하나로, 부산과 세계로'라는 주제로 전 세계 15개국, 40여 공연단체가 참가한다. 우선 올해 국내외 공식 초청무용단은 총 17개 단체로,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과 만난다. 해외초청작으로는 필리핀 바콜로드시티 마스크라 페스티벌 댄스그룹, 카자흐스탄 댄스 앙상블 쿠간제르 '카자흐스탄 민속춤 YELI, ZHORGA', 프랑스 코레그라피 '침묵의 울부짖음', 대만 이치민속춤극장 '성인식', 싱가포르 싱가포르중국무용극장 '가려지다, 우리통제안의 형태', 프랑스 에르베쿠비 무용단 '낮이 밤에 빛진 것', 국내 초청작으로는 서울교방 '결',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 '바디 콘서트 리믹스', 정형일 발레 크리에이티브 '옛지 오브 앵글', 안은미 컴퍼니 '만경창파', 광주광역시립발레단 '다이애나&악테웅', 모던테이블 '다크니스 폼바', 현대용단 자유 '파라다이스', 더파크댄스 '손목이 꼬여버린 낮산', 인천시티발레단 창작발레 '춘향'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올해 무용제에서는 처음으로 전 세계



프랑스 에르베쿠비 무용단 '낮이 밤에 빛진 것'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 '바디 콘서트 리믹스' ©Sebastian Marcovici

미디어의 찬사와 뜨거운 호평을 받은 프랑스 에르베 쿠비 무용단의 '낮이 밤에 빛진 것' 전막공연이 6월 3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BIDF 특별초청공연으로 펼쳐지며,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캐나다 퀘벡 당스텐타클트리브의 '고스트' 무대도 선보인다.

올해 부산국제무용제는 6월 2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식과 개막갈라공연을 시작으로 해운대해변 특설 무대에서 3일과 4일 이틀간 펼쳐진다.

## 한달간 계속되는 음악의 향연

# 2023 원먼스페스티벌

## 우리동네 문화살롱 페스타 2ND

6월 1일(목)-30일(금)

- 부산지역 32곳 소공연장 | 무료

- (사)부산소공연장협의회 557-3369, <http://bsaha.or.kr>

한 달간 소공연장에서 릴레이 콘서트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음악의 향연 '2023 원먼스페스티벌'이 부산의 6월을 음악으로 물들인다.



이번 '원먼스페스티벌'은 지난해, (사)부산소공연장연합회가 문화예술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

한 '우리동네 문화살롱 페스타' 두 번째 무대로, 부산의 16개 구·군, 32곳의 소공연장에서 한달간 매일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소공연장 8곳에서 32곳으로 참여공연장이 크게 늘면서, 보다 확대되고 풍성한 무대로 꾸며진다.

올해는 '2023 원먼스페스티벌' 외에도 (사)부산소공연장연합회 합동기획공연인 '프롬나드 콘서트'와 지역의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부산 라이징스타 콘테스트'가 펼쳐진다. 우선 '원먼스페스티벌'에서는 공간별 특색을 반영한 각 참여 소공연장들의 기획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참여 소공연장으로 는 강서구 오션컬처팩토리, 성원아트홀, 진목, 금정구 음악당

라온, 금사락, 카페0101, 금정아트홀, 기장군 오페라바움, 남구 가람아트홀, 오방가르드, 무지카아트홀, 문화골목, 동구 스페이스 수정, 동래구 스페이스 움, 부산진구 콘체르토보눔, 북구 무사이, 이상한 나라의 밀가루공장, 사상구 공간523, 노마드아트홀, 사하구 음악풍경, 서구 구박갤러리, 문화주소 동방, 수영구 필수파스, 엘림아트홀, 연제구 무지크바움, 영도구 콘서트하우스, 220볼트아지트, 중구의 게네랄파우제, BOF아트홀, 해운대구 나눌락, 쿠무다, 비바아첼 등 총 32곳으로, 30일간 총 34회의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클래식에서 크로스오버, 퓨전국악, 재즈, 밴드, 포크 등 다양한 장르의 팀이 참가하고 모든 공연이 무료로 진행되면서 관객들은 자신만의 다양한 성찬을 즐길 수 있다.

6월 3일 오후 1시부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리는 '프롬나드 콘서트'는 '2023 원먼스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대규모 야외공연으로, 클래식과 재즈, 국악, 인디밴드, 퍼포먼스 등 각 장르별로 수준급 지역 아티스트들로 라인업을 구성,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무대를 선사한다. 참가 연주팀으로는 크로스오버 듀엣 휴와 양상블 클라운, 서민진밴드, 흥영호취텃, 친친탱고, 날라리와 쟁이, 이달현트리오, 블랑누아 등 8개팀이 무대에 선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부산 라이징스타 콘테스트'에서 선발된 신인 10개 팀 중 상위 2개팀의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또한, '부산 라이징스타 콘테스트' 수상자들은 4일 523 갤러리, 17일 스페이스 수정, 24일 콘체르토보눔, 25일 비바아첼에서 특별공연을 갖는





다. 한편, 페스티벌 기간 중 열리는 모든 공연은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 상영되며, 이후에도 지역의 공연예술 콘텐츠 아카이빙 자료로도 유익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2월, 가칭 부산소공연장 네트워크라는 명칭으로 첫 발을 내딛은 (사)부산소공연장연합회는 민간운영체의 소공연장 대표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위해 지역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돕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반을 제공, 사회적 관계성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 매개공간으로서 지역문화 활성화에 앞장서왔다. 현재 대표로 있는 스페이스 움을 비롯하여 게네랄파우제, 나눌락, 음악당 라온, 무사이, 오션컬처팩토리, 필슈파스, 콘체르트보눔, 비비아첼챔버홀, BOF아트홀 등 10곳의 공연장이 회원 소공연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20명의 일반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다.



2022 우리동네 문화살롱 페스타 1st

## 일정

- |        |          |                                    |        |          |                                  |
|--------|----------|------------------------------------|--------|----------|----------------------------------|
| 1일(목)  | 오후 7:00  | 문화주소 동방 <b>이주미밴드</b>               | 17일(토) | 오후 2:00  | 스페이스 수정 <b>부산 라이징스타 콘테스트 수상팀</b> |
| 2일(금)  | 오후 7:00  | 필슈파스 <b>양상블 클라운</b>                |        | 오후 5:00  | 나눌락 <b>소리치레</b>                  |
| 3일(토)  | 오후 7:00  | 오션컬처팩토리 <b>홍영호 트리오</b>             | 18일(일) | 오후 1:00  | 카페0101 <b>퓨전국악팀 헤이브</b>          |
| 4일(일)  | 오후 2:00  | 공간523 <b>부산 라이징스타 콘테스트 수상팀</b>     | 19일(월) | 오후 7:30  | 무지카아트홀 <b>뮤직스토리움</b>             |
|        | 오후 7:00  | 성원아트홀 <b>봄</b>                     | 20일(화) | 오후 7:30  | 음악풍경 <b>양상블 프로무지카</b>            |
| 5일(월)  | 오후 2:00  | 오페라바움 <b>바음콘서트연주단</b>              | 21일(수) | 오후 8:00  | 문화골목 <b>피버밴드</b>                 |
| 6일(화)  | 오후 7:00  | 공간523 <b>강혜인퀸텟</b>                 | 22일(목) | 오후 12:00 | 영도콘서트하우스 <b>지피뮤직양상블</b>          |
| 7일(수)  | 오전 11:00 | 무지크바움 <b>기타&amp;반도네온</b>           | 23일(금) | 오후 6:30  | 진목카페 <b>브리즈온</b>                 |
| 8일(목)  | 오후 7:30  | BOF아트홀 <b>로사앤아미치</b>               | 24일(토) | 오후 4:00  | 콘체르트보눔 <b>부산 라이징스타 콘테스트 수상팀</b>  |
| 9일(금)  | 오후 7:30  | 스페이스 움 <b>갯초</b>                   |        | 오후 7:00  | 게네랄파우제 <b>피오르트 재즈텟</b>           |
| 10일(토) | 오후 7:00  | 금사락 <b>제이비드</b>                    | 25일(일) | 오후 3:00  | 비비아첼 <b>부산 라이징스타 콘테스트 수상팀</b>    |
| 11일(일) | 오후 3:00  | 구박갤러리 <b>Art Creative Group 잼갯</b> |        | 오후 7:00  | 오방가르드 <b>굿카펜터스</b>               |
| 12일(월) | 오후 7:00  | 노마드아트홀 <b>바라/하늬소리</b>              | 26일(월) | 오후 7:30  | 엘림아트홀 <b>양상블 클래식</b>             |
| 13일(화) | 오후 7:30  | 이상한 나라의 밀가루공장 <b>양상블 우니크</b>       | 27일(화) | 오후 7:30  | 가람아트홀 <b>양상블 리에토</b>             |
| 14일(수) | 오후 7:30  | 금정아트홀 <b>B&amp;F</b>               | 28일(수) | 오후 7:30  | 콘체르트보눔 <b>크로스오버 휴</b>            |
| 15일(목) | 오후 7:00  | 220볼트아지트 <b>성악가 조윤환 외</b>          | 29일(목) | 오후 7:30  | 쿠무다 <b>양상블 튠</b>                 |
| 16일(금) | 오후 7:00  | 음악당 라온 <b>스트링콰르텟 브릿지</b>           | 30일(금) | 오후 7:30  | 무사이 <b>오느린 윤헤린</b>               |

## 음악 해석에 희석된 무용단의 역사와 미래

### 부산시립무용단 제87회 정기공연 ‘천두 번째의 밤-춤추는 세헤라자데’

◆ 이상현 춤 비평가

1973년 10월 12일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부산시립무용단(이후 ‘무용단’) 창단공연 <아! 동래성>(안무 황무봉, 구성 강이문)이 무대에 올랐다. 전국 최초 시립무용단의 창단을 알리는 한국 무용사에 남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그로부터 50년, 2023년 5월 12일~13일 같은 장소에서 창단 50주년을 기념하는 제87회 정기공연 <천두 번째의 밤-춤추는 세헤라자데>가 막을 올렸다. 50년을 씬 없이 달려 온 무용단과 함께한 부산 시민들에게 지난 시간을 갈무리하고 도래할 미래를 맞이하는 매무새를 보여 주는 헌정 무대였다. 이번 공연이 그동안 여든여섯 차례 치른 정기 공연보다 더욱 특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시민에게 헌정한다는 까닭은 무용단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었고, 관심과 응원으로 성장해서이다.

팸플릿에 “아라비안나이트(천일야화)를 모티브로 창·제작한 작품으로 동서양의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우리 시대에 메시지를 전하는 다원 예술작품이다.”라고 이번 공연의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특히, 부산시립교향악단(지휘/최수열 예술감독)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를 연주하고 이정윤 예술감독이 연출과 안무로 재해석해 무용단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작품이 될 것이라며 관객의 기대를 높였다. 오케스트라 연주와 무용단의 춤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었고, 음악이 춤을 해설하고 춤이 음악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방식이라 시민 관객들이 쉽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을 것이다.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의미이고, 그런 면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서두에 설명했다시피 이번 공연은 반드시 특별해야 했었기에 대중성을 확보했다고 목적을 이루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중성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 공연의 충분조건은 무용단의 역사와 미래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팸플릿에 그렇게 하겠다고 자신있게 내세운 내용이다.

무대를 가로로 반을 나누었고, 뒤쪽에 오케스트라가 계단식으로 자리 잡았다. 춤의 영역은 오케스트라 바로 앞부터 무대 끝까지이다. 시민회관 대극장은 평소 정기공연 무대로 사용하는



문화회관 대극장보다 작고, 거기에 더해 반 이상을 오케스트라에 할애하다 보니 무용수가 움직일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춤추기에 협소한 공간은 몇 가지 문제를 만들었다. 수십 명을 좁은 공간에 옥여넣다시피 올려놓다 보니 팔을 벌리기 힘들 정도로 간격이 여유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군무의 힘과 변화가 악화하였고, 무용수가 밀집해서 몰려다녀 무대가 갑갑하게 느껴졌다. 조명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공간에 여유가 없어 부분 조명을 쏘아도 빛이 주변에 묻어나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없었고, 무대 끝까지 무용수를 세운 탓에 관객은 조명에서 벗어난 무용수의 어두운 등과 얼굴을 보는 황당함을 견뎌야 했다. 이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연주도 음량을 조정해야 했기에 소리의 풍성함이 사라졌고, 연주의 퍼포먼스 효과도 무용수에 가려져버렸다. 무용과 연주 모두에게 득이 없는 공간과 연출이 된 것이다.

이제 특별한 의미에 관해 살펴보자. 한국무용이 바탕인 무용단이라도 서구의 서사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이 묻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세헤라제데>에 무용단의 50년 역사와 미래를 지향하는 메시지를 녹여냈다는 주장은 공감하기 힘들었고, 창단 공연이 부산의 역사를 담은 작품이었던 것과도 비교되는 지점이었다. 공연은 줄곧 음악을 춤 이미지로 해석하는 데 열중했고, 무용극 형식과 발레적 구성을 뒤섞은 방식에 어떤 특별함을 녹여냈는지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무용단의 역사적 의미가 음악의 내러티브에 희석된 것처럼 보였다. 아무리 무용이 음악을 이미지화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무용의 기본 성격 중 하나이지 중요한 의미를 담아야 하는 공연에서 음악의 내러티브를 동어 반복하듯 풀어내는 것이 과연 적절했을까 싶다.

작품 외적으로 무용단이 공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도 의문이 든 부분이 있다. 시립무용단은 시민의 것이고, 무용단 50년은 수많은 단원과 안무자, 스텝의 땀으로 일군 역사이다. 이번 공연은 이 모두를 아우르는 의미를 담았어야 했다. 그런데 공연 홍보물부터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쉽게 읽을 수 없었다. 각종 언론에서 공연을 알리는 기사가 연이어 나왔고, SNS에도 계속해서 포스터와 영상을 내보냈다. 무용단 50주년이 중요하고 의미가 크기 때문이었다. 무용단과 교향악단



의 두 예술감독이 나온 온라인 포스터를 처음 접하고 50주년 공연에 왜 두 사람을 전면에 내세웠는지 의아했지만, 공연을 알리는 본격적인 포스터가 따로 있고, 그것은 궁금증을 일으키기 위한 임시 이미지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다. 시립무용단 50주년 기념 공연을 알리는 대표 홍보물에 임기제 예술감독들을 표지 인물로 사용해 마치 그들의 작품 발표회인 것처럼 착각하게 했다. 도대체 이 공연이 누구를 위한 공연이며, 이 공연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었다.

이번 공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이 부담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여기면 어느 정도 수긍은 간다. 교향악단과 적극적인 협연을 시도하는 것으로 공연의 중요한 의미를 음악적인 도움을 받아 표현하고 싶었을 것이다. 두 단체를 한 무대에 세우면 음악적 효과가 극대화해 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을 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100명 가까운 인원을 그 공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등장시킬 것인지, 음악과 춤의 균형을 어떻게 조절할지, 어떻게 의미를 담아내며 메시지 전달을 어떤 방식으로 뚜렷이 할 것인지, 홍보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등을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했지만,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다. 물론 작품을 만든 입장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창작이 예술가의 몫이듯 평가와 해석은 관객의 몫이어서 입장 차이는 당연하다. 다만, 이번 공연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은 많은 사람의 노력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야 한다. 공연은 끝났고, 지난 50년을 달려 온 것처럼 앞으로 많은 시간을 달려 가야 한다. 지금의 쓴소리가 무용단을 지켜보는 시민의 애정과 자긍심을 되새기는 데 부디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부산문화회관

양지민 첼로 리사이틀

일 시 | 6월 3일 토요일 오후 5:00 **첼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중후한 음색과 섬세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연주를 들려주는 첼리스트 양지민 독주회.

부산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도독,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디플롬, 에센 폴크방 최고연주자과정, 실내악 과정을 졸업한 양지민은

독일 Bonn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을 비롯해 고양심포니오케스트라, 뉴서울필하모닉, 라푸즈 플레이어즈 등 오케스트라 부수석 및 단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무대에 서었다.

양지민은 현재 J 스트링 앙상블 음악감독 및 지휘자, 부산 챔버필 오케스트라 첼로수석, 클링엔 트리오, 모네카르넬 멤버로 활동중이다.

- 사회/한유정
- 피아노/박지혜
- 바이올린/이상엽

금찬이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6월 6일 화요일 오후 5:00 **첼버홀**  
 문 의 | 금찬이 010-5701-6424



현재 한국피아노학회 이사 및 교재개발연구회 수석연구원, 프로이데 무지카 예술감독, 글로벌영재 음악교육원 전담교수로 음악교육 보급에 힘쓰고 있는 피아니스트 금찬이 독주회.

신라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도독, 뒤셀도르프 국립음대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세종대학교 피아노교수학 박사과정을 졸업한 금찬이는 '앨리스의 유럽여행', '요정뮤즈의 춤추는 숲', '제니의 꿈나라' 등 창작그림악보집을 발간했으며, 세 작품 모두 창작그림 동화뮤직콘서트로 제작되어 부산문화재단 우수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현재 고신대학교 객원교수, 일반대학원 피아노교수학 전담교수로 있는 금찬이는 이번 무대에서 하이든, 베토벤의 소나타와 질곡의 '낭만파 양식의 서정적 전주곡'을 들려준다.

부산하모니합창단 제19회 정기연주회  
 Dona Nobis Pacem 평화, 온 땅에...

일 시 | 6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하모니합창단 610-1304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합창단인 부산하모니합창단(단장 장연수) 정기연주회.

부산하모니합창단은 지난 2003년 창단 후 미국 뉴욕 링컨센터, 이태리 노비 리구레 시,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홀 등

초청연주회와 국내외 대회 수상, 유튜브 활동 등으로 명성을 쌓으며 민간합창단의 활동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팬데믹 회복을 축하하고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무반주 아카펠라 합창을 비롯하여 한국창작 합창, 대중음악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 지휘/김강규
- 피아노/김민선
- 특별출연/앙상블 플리르 현악5중주단

2023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마스터클래스 박세리

일 시 | 6월 9일 금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세 번째 주인공은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여자 골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명으로 불리는 '리치 언나' 박세리.

2016년 리우올림픽, 2021년 도쿄올림픽 감독을 거쳐 현재는 바즈인터내셔널 대표로 있는 박세리는 이번 무대에서 선수에서 감독으로, 또 기업의 대표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정신, 도전을 인생의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강연에 앞서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오보에 수석 고관수, 피아노 부수석 이은정이 히사이시 조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 중 '또 다시를 들려준다.

앙상블 땅브르 샘플러 시리즈 I  
 바로크에서 현대까지

일 시 | 6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첼버홀**  
 입장료 | 초대(사전예약 필수)  
 문 의 | 앙상블 땅브르 010-2174-2142



바이올리니스트 신지현, 더블베이스리스트 박혜란, 피아니스트 김문영으로 구성된 앙상블 땅브르의 샘플러 시리즈 첫 번째 무대.

앙상블 땅브르는 바이올린과 더블베이스, 피아노 등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세 악기의 음색(Timbre)이 조화를 이루는 팀으로, 전형적인 피아노 트리오의 편성에서 벗어나 세 악기의 하모니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구성의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로크에서 현대까지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특징이 잘 담겨있는 곡들을 솔로와 듀오, 트리오를 통해 들려준다. 특히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을 맞아 준비한 피아노 트리오 '비가'는 기존의 첼로 파트를 더블베이스가 맡아 색다른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캐릭터 뮤지컬 피터팬과 후크선장

일 시 | 6월 9일(금)-7월 23일(일) 평일 오전 단채극관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 **사랑채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부산문화회관의 어린이 전용 공연장인 사랑채극장에서 열리는 어린이 캐릭터 뮤지컬 '피터팬과 후크선장'.

부산지역 어린이공연 전문단체인 극단 오오씨어터가 제작한 '피터팬과 후크선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피터팬'의 이야기를 새롭게 재구성한 작품으로, 웬디와 친구들이 떠난 후의 피터팬 이야기이다.

이번 무대를 통해 피터팬과 모험을 떠났던 어린이 관객들은 언제가 밤하늘을 날아서 찾아올 피터팬을 기다리는 설렘을 간직할 것이다.

## 부산장로성가단 제19회 정기연주회 Soli Deo Gloria

일 시 | 6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지난 1986년 부산,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장로들이 오직 순수한 합창의 열정으로 만든 부산장로성가단의 무대.

부산장로성가단은 지난해 성남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손동현 지휘자를 초빙, 그의 탁월한 곡 해석과 리허설 능력으로 실력을 쌓으며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단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합창 무대와 어린이합창, 그리고 전문연주자들과 함께 다양한 레파토리로 관객과 만난다.

- 지휘/손동현 • 반주/이주화

## 김여진 플루트 독주회

일 시 | 6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여진 010-4599-2581



다채로운 음색과 힘있는 소리를 가진 플루티스트 김여진 독주회.

경성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한 김여진은 그동안 다수 콩쿠르에 입상하며 플루티스트로서의 기량을 인정받았으며, 부산시립교향악단, 진주시립교향악단, 창원시립교향악단,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대구솔리스트앙상블, 김해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협연했다.

현재는 경상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수석,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뮤토 플루트 앙상블 리더로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현제는 경상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수석,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뮤토 플루트 앙상블 리더로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 피아노/박현경
- 플루트/이승호(서울심포니 수석)

## 한울림합창단 제4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11일 일요일 오후 5: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한울림합창단 010-9044-7576



지난 1978년 창단된 후 오랜 세월 합창음악 발전에 앞장서온 한울림합창단 정기연주회.

한울림합창단은 2005년 부산시로부터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았으며, 그동안 '다시 부르는 겨레의 노래' 전국 5개 도시 순회 연주회, 창작 연가곡 '아름다운 부산', 윤이상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한국초연 주관), 광복 60주년 기념 아시아 한마당, 한형석 항일음악회(중국 북경극립중앙음악원)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한울림합창단 트레이너와 부지휘자를 거쳐 현재 지휘자로 있는 김창돈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존 루터의 'Feel The Spirit'와 영화음악 OST, 대중가요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 피아노/전해란 • 메조소프라노/정은영

## 2023 BSO 콘체르토 페스티벌

일 시 | 6월 11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미래 음악계의 주인공이 될 지역의 차세대 우수 연주자들과 함께 마련하는 2023 BSO 콘체르토 페스티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지휘자인 다니엘S김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윤지선, 이수정, 최예린, 마림바니스트 김찬민, 피아니스트 김다송, 윤지혜가 열정적인 무대를 펼친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21번 다장조 작품 467  
린친칭/마림바 협주곡 제1번  
시벨리우스/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작품 47 등 수곡

- 지휘/다니엘S김(BSO 부지휘자)

## 한국가곡 대축제

일 시 | 6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2만원(학생 30% 할인)  
문 의 | (사)KNN방송교향악단 010-7990-9568



부산, 경남지역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인재육성의 중심이 되어온 KNN방송교향악단이 부산을 대표하는 성악가들과 함께 마련하는 '한국가곡대축제'. 매년 정기연주회와 유명 아티스트 초청공연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KNN방송교향악단은 지난해부터 지휘자 서희태가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맡아 새로운 도약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고향, 이별, 그리움, 꽃 등 주제별로 아름다운 시에 곡을 붙인 한국가곡을 들려준다.

이별, 고향, 그리움, 꽃 등 주제별로 아름다운 시에 곡을 붙인 한국가곡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신정순, 고예정, 박하나, 왕기현
- 테너/김성진, 김준연, 조윤희
- 바리톤/조규희, 문정현, 허종훈

##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I

일 시 | 6월 14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제600회 정기연주회 오픈 리허설 형식으로 진행되는 '미완성음악회'.

실제 리허설을 바탕으로 오케스트라가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연주를 앞두고 지휘자와 단원들이 호흡을 맞추어

어 가는 과정을 직접 육성으로 듣고 볼 수 있어 음악전공자는 물론 클래식 매니아들에게도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인 말러의 '교향곡 제9번'의 연습과정을 관객들에게 공개하며 최수열 예술감독으로부터 작품의 특징 및 숨겨진 에피소드를 직접 들을 수 있다.

###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BPO OdysseyII :경험이 가득한 긴 여정

일 시 | 6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1인 4매 예매)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 음악계를 굳건히 지켜온 지역의 원로 음악인들과 함께 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BPO Odyssey :경험이 가득한 긴 여정'.

이번 무대에서는 제600회 정기연주회를 기념하는 의미로, 부산음악계 최고 어른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제갈삼 선생(1925년생-98세)의 음악인생을 조명하고 그의 작품 '파랑새'를 연주한다.

'파랑새'는 제갈삼 선생이 한하운 시인의 동명의 시를 모티브로 작곡한 피아노 독주곡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 김태수가 편곡한 관현악 버전을 들려준다.

이외에도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제600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인 말리의 '교향곡 제9번' 중 제4악장을 들려준다.

### 제1238회 MBC목요일음악회 6월 성악의 향기

일 시 | 6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 (사)문화도시네트워크 760-1494



부산성악협회 소속 남성 성악가들의 중후하고 화려한 모습을 한 무대에서 즐길 수 있는 제1238회 MBC목요일음악회.

부산을 대표하는 남성성악가들과 함께 프라그라스 콰이어(The Fragrance Choir)가 특별출연, 예술가곡에서부터 칸초네, 오페라 아리아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프라그라스 콰이어는 부산와인스쿨 동문회를 중심으로 합창을 통해 동문들간의 끈끈한 우애와 결속을 다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선한 영향력을 지닌 합창단이다.

- 테너/양승엽, 장지현, 김성배, 김성
- 바리톤/한정현, 유용준 • 베이스/권영기
- 베이스바리톤/박순기 • 피아노/전미리
- 특별출연/프라그라스 콰이어

### 메조 소프라노 손미숙 독창회

일 시 | 6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부산시립합창단 알토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광역시 여성연합합창단 트레이너, 동래중앙교회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메조 소프라노 손미숙 독창회.

손미숙은 중앙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한 후 이탈리아 Arsago Opera in Canto에서 디플롬을 취득한 후 Arsago Music Festival 초청연주를 가졌으며, 그동안 솔리스트뿐 아니라 가곡의 밤, 2인 음악회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가곡에서부터 오페라 아리아, 고전음악까지 연주자가 사랑한 음악과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는 음악을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까지 다양한 악기 연주로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 피아노/이주하
- 게스트/바이올린 손은혜, 첼로 윤주연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0회 정기연주회 말리의 마지막 교향곡

일 시 | 6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정기연주회 제600회라는 금자탑을 쌓아올린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함께 자축하는 특별한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전통적인 교향곡에 이별을 고하고 새로운 음향의 시대를 열었다는 작품으로 평가받는 말리의 마지막 교향곡인 '교향곡 제9번'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난 2017년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후 올해로 6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최수열 지휘자가 작곡가들이 남긴 마지막 교향곡을 소개하는 '6 Last Works' 세 번째 무대로, 말리의 '교향곡 제9번'을 통해 부산시민들에게 감사와 이별의 아쉬움을 다시 한번 전한다.

- 지휘/최수열(예술감독)

### 필컴퍼니 기획공연 2023 대한민국 희망콘서트

일 시 | 6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0만원, S석 7만원  
 문 의 | 필컴퍼니 010-2510-3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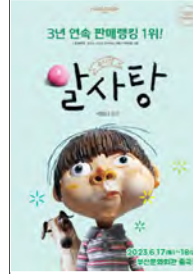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희망을 노래하며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in 부산 '함께가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 음색과 매너를 자랑하는 최정상 멀티 테너 류정필과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클래식 타임즈 상에 빛나는 우아한 음색

과 고혹적인 아름다움의 소프라노 진은희, 오사카 국제콩쿠르 실내악 부문에서 우승한 코야모리 스미노, 그리고 펠린 미켈 칼보 탱고커플이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테너 류정필의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이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기 위한 특별한 무대이다.

### 뮤지컬 알사탕

일 시 | 6월 17일-18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중극장**  
 입장료 | 동등이석(1층) 6만원, 구슬이석(2층) 4만원(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40% 할인)  
 문 의 | (주)씽크브릿지 1533-7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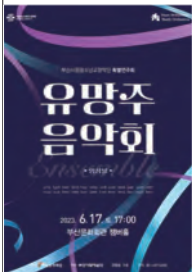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작가 백희나의 동명의 그림책을 뮤지컬로 제작한 '알사탕'.

'알사탕'은 누구에게도 쉽게 말을 건네지 못하고 혼자 놀기 좋아하는 아이 동동이와 구슬을 사러간 문방구에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알사탕을 사면서 벌어지는 신기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원작의 기발한 상상력과 따뜻한 감성에 아름다운 음악과 다채로운 무대효과를 더해 그림책의 감동을 무대 위에 그대로 재현하면서 온 가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Ensemble

일 시 | 6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매년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현악4중주, 피아노3중주 등 다양한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 프로그램

하이든/현악4중주 제62번 '황제'  
스메타나/현악4중주 제1번 '나의 생애로부터'  
그리그/현악사중주 사단조 작품 27  
베토벤/피아노3중주 제4번 '거리의노래'  
브람스/피아노3중주 제2번 작품 87 등  
• 지휘, 지도/백승현(수석지휘자)

## 해설과 함께 떠나는 오페라 여행 그 세 번째 콘서트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타카나

일 시 | 6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SJ 엔터테인먼트 010-9582-3899



해설과 함께 떠나는 오페라 여행 그 세 번째 무대. 베리조모(사실주의) 오페라의 대표작인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타카나(시골기사)'를 콘서트 오페라의 형식으로 관객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최고의 기량을 지닌 오페라 가수들과 스트링, 팀파니가 함께 어우러져 더욱더 극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 출연/소프라노 배수진(예술총감독), 테너 윤석, 바리톤 김우주,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 연주/비올라 조완수(음악감독), 바이올린 송혜민, 고은아, 첼로 박호진, 팀파니 정중혁, 피아노 이희연, 헤렌다멘 싱어즈(테너 이성원, 소프라노 최영순, 신옥수, 김숙희)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성진 & 발트 앙상블

일 시 | 6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13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클래식계의 스타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해외 명문 오케스트라의 악장 및 수석, 단원들로 결성된 발트 앙상블의 무대.

압도적인 재능과 타고난 음악성으로 같은 세대의 연주자들 중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조성진은 이번 무대에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9번'과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등 두 곡의 협주곡을 연주한다.

### 프로그램

레스피기/고풍적 아리아와 춤곡 제3모음곡  
모차르트/피아노협주곡 제9번  
바르톡/디베르티멘토  
쇼팽/피아노협주곡 제2번

## Candlelight Guitar 한은

일 시 | 6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의 | 기타리스트 한은  
[www.candlelightguitar.com/contact](http://www.candlelightguitar.com/contact)



부드럽게 일렁이는 촛불 속에서 최고의 기타리스트들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Candlelight Guitar'.

6월 무대에서는 스페인 국제기타콩쿠르 'Valle de Alcudia-Sierra Madrona' 1등을 비롯해 다수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연주실력을 인정받은 기타리스트 한은이 관객과 만난다. 2017년, 기타리스트 허유림과 함께 국내 유일의 여성 클래식기타 듀오인 '보티'를 결성, 한국을 대표하는 앙상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은은 이번 무대에서 고요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푸홀의 'Verde Alma'부터 웅장한 메아리 망고레의 'La Catedral'에 이르기까지 여섯 줄의 클래식 기타로 매혹적인 연주를 들려준다.

## 김지윤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6월 24일 토요일 오후 7:00 **챔버홀**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김지윤 010-2886-3947



탁월한 음악적 해석과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정진하여 나아가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 독주회.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도미, 이스트만 음악대학에서 바이올린 연주 및 문헌 전공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김지윤은 귀국 후 더뉴앙상블과의 협연무대를 시작으로 솔로 주자로서 비르투오소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김지윤은 유학시절 Rochester Philharmonic Orchestra 객원단원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에 대한 열정을 키웠으며, 실내악주자로서도 고된 기량을 갖추면서 다양한 앙상블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비발디 '샤콘느'를 비롯하여 베토벤, 에이미 비치, 슈만, 풀랑크의 곡을 들려준다.

## 이명로 첼로 리사이틀 고난의 작곡가들, 그들을 기리며

일 시 | 6월 25일 일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첼리스트의 서재 010-5029-5807



첼리스트의 서재 공동대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첼리스트 이명로 독주회.

계명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재학중인 이명로는 그동안 10차례 독주회를 비롯해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체코 바츨라프 하벨 대통령 추모기념공연, 드브로자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Solists K, Enosh Trio, OBS 멤버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장하운과 함께 가난과 병 속에서 세상을 떠난 슈베르트가 죽기 일년 전에 작곡한 '겨울나그네'를 첼로 연주로 들려주며, 스탈린 체제의 소련 정부로부터 감시와 압박을 겪었던 쇼스타코비치의 '첼로협주곡 제2번' 등 주제와 어울리는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아름다운 시와 함께하는 詩歌음악회

일 시 | 6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7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아름다운 시어(詩語)와 함께 작곡된 유명 곡들을 소개하는 詩歌음악회. 정지용의 '향수'를 비롯하여 김소월의 '개여울', 허림의 '마중',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도종환의 '다시 오는 봄' 등 주옥같은 시들로 만들어진 곡들을 가수 최성수와 성악가 장진규, 김아름이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시낭송가 이숙례가 출연, 낭송과 노래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무대를 선사한다.

- 가수/최성수 • 시낭송/이숙례
- 테너/장진규 • 소프라노 김아름
- 피아노/김경미 • 바이올린/박미정
- 첼로/박웅 • 플루트/윤혜진
- 아코디언/박혜리

###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제24회 정기연주회 바이올린 김영욱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일 시 | 6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S석 5만원, A석 3만원, 2층 2만원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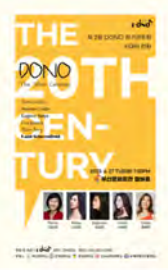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문연주자들로 결성된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6년간의 상주단체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부산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과 함께 차이콥스키 서거 130주년을 맞아 '잠자는 숲속의 공주' 중 '왈츠',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356,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협연자 김영욱은 현재 노부스 콤파넬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세계 무대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지휘/박성은 • 바이올린/김영욱

### DONO 제2회 정기연주회 The 20th Century-시대의 전향

일 시 | 6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DONO 010-2831-0981



독일 라히프치히 국립음대 학·석사, 미국 신시내티 음대 연주학 박사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은정, 경성대와 부산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신희정과 부산대와 한양대 대학원, 미국 뉴욕주립대 대학원을 졸업한 소프라노 이승은, 부산대와 국민대 종합예술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인제대 음악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서혜은, 부산대 음악학과와 인제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첼리스트 정혜주로 구성된 DONO의 무대. 지난 2021년 11월 창단연주회를 통해 바로크와 낭만음악의 정수를 선보였던 DONO는 이번 무대에서 낭만시대를 지나 다양한 음악의 출현과 시도가 돋보이는 20세기 음악을 선보인다.

### 2023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 우크라이나 이바노프랭키 필하모니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

일 시 | 6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전문연주자들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이바노프랭키 필하모니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 우크라이나 이바노프랭키 필하모니 챔버 오케스트라는 지난 2003년 시작된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를 통해 부산을 찾은 우크라이나의 우수 교향악단의 수석 연주자들로 구성된 실내악단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김현국의 지휘로, 첼리스트 양욱진, 오보이스트 권성은, 피아니스트 황성훈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 o Trio 제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오토리오 010-5516-8231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박민선,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준, 첼리스트 김새로미로 구성된 오토리오(o Trio)의 무대. IPB(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단원으로 만나 다양한 앙상블 음악을 펼쳐보고자 뜻을 모은 오토리오(o Trio)는 2021년 6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재, 비올리스트 황여진이 게스트로 출연하며, 글리에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8개의 소품과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을 맞아 라흐마니노프 '슬픔의 피아노3중주', 슈만의 '피아노5중주 작품 44'를 들려준다.

### 부산시립합창단 제90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레퀴엠

일 시 | 6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미사와 레퀴엠 음악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해온 부산시립합창단 제90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레퀴엠'. 레퀴엠은 가톨릭 미사에 사용되는 죽은 자들의 넋을 달래는 곡으로,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그의 유일한 '레퀴엠'이자 모차르트가 마지막으로 남긴 미완성 유작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예술감독 이기선이 지휘하고 부산시립합창단과 KNN방송교향악단(지휘/서희태), 그리고 소프라노 김제니, 알토 추희명, 테너 김세일, 베이스 노대산 등 국내 최정상 솔리스트가 함께 출연하여 관객들에게 안식과 평안의 시간을 선사한다.



2023 제20회 부산국제연극제 축하공연  
부산연극제작소 동넨 1945

일 시 | 6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3일-4일 토-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  
문 의 |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802-8003



올해로 성년을 맞은 부산 국제연극제의 포문을 여는 축하무대, 부산연극제작소 동넨 '1945'. 2023 부산연극제 대상작으로, 올해 대한민국 연극제 부산 대표로 참가하는 '1945'는 동아연극상을 수상하고 극작가로 잘 알려진 배삼식 작가의 작품으로, 1945년 해방 직후, 우리 민족의 근대사 중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살아가는 많은 군상들을 중심으로 인간의 정체성을 나타낸 작품이다. 1995년 창단한 부산연극제작소 동넨은 '연극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창작의 실험성과 전통연희양식의 현대화 작업을 통해 레퍼토리 공연을 제작해오고 있다.

2023 최현우 THE BRAIN

일 시 | 6월 3일 토요일 오후 3:00, 7:00,  
4일 일요일 오후 1:00,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8만8천원, S석 6만6천원  
문 의 | (주)하늘이엔티 02-333-9009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매지션 최현우가 펼치는 상상 그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매지션 콘서트 'THE BRAIN'. 올해로 데뷔 27주년을 맞은 최현우는 세계마술을 림픽(FISM) 클로즈업 부문 한국인 최초 수상자이자 최연소 심사위원으로, 그동안 다양한 장르와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와 획기적인 마술로 관객들을 사로잡아왔다. 마술사 최현우가 기획한 대표적인 공연 브랜드인 '더 브레인'은 사람의 심리를 읽어내는 '멘탈리즘'을 활용한 '멘탈매지'를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선보인 첫 번째 시리즈로, 마술의 퍼포먼스 요소와 심리학, 뇌과학, 행동과학 등의 과학 전문 지식을 융합한 특별한 공연이다.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소년B가 사는 집**

일 시 | 6월 14일-15일 수-목요일 오전 10:30  
오후 2:00(단체관람), 16일 금요일  
오전 10:30, 오후 2:00(단체관람),  
7:30(일반관람), 17일 토요일 오후  
5:00(일반관람)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단체관람 문의 607-3111~3



지난해 부산시립극단이 청소년들의 예술문화체험을 위해 특별히 제작, 호평 받았던 창작극 '소년 B가 사는 집'. 부산연극제작소 동넨의 상임연출가 최용혁이 연출을 맡은 '소년 B가 사는 집'은 현실 사회의 문제를 섬세하게 다루는 이보람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한 소년과 그를 바라보는 가족들, 그들을 향한 세상의 냉담한 시선을 다룬 청소년들을 위한 성장드라마이다.  
• 출연/이현주, 김은희, 황창기, 이수연, 우수주, 박미서, 김희수, 윤영식

뮤지컬 **빨래**

일 시 | 6월 17일 토요일 오후 2:00, 6:00,  
18일 일요일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7천원, S석 5만5천원  
문 의 | (주)하늘이엔티 070-4282-2932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나영'과 몽골 이주노동자 '솔몽고'를 중심으로 힘겹고 먹먹한 서울살이의 고단한 일상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뮤지컬 '빨래'. 지난 2005년 초연 이후 현재까지 누적관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5,000회 공연을 달성한 '빨래'는 초연 그 해 제11회 한국 뮤지컬 대상에서 작사·극본상, 제4회 더 뮤지컬 어워즈 작사·작곡상 및 극본상을 수상하고, 2017년 제6회 예그린 어워즈에서 예그린 대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특히 '빨래'는 매번 천여명이 넘는 자원자들의 오디션을 통해 신인을 발굴하여 그동안 이정은, 이규형, 박지연, 홍광호, 박호산, 정문성 등 스타급 배우들을 배출해왔다.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배시시 명품극장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

일 시 | 6월 28일 수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선착순 예약, 전체관람가)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예술의전당의 우수 공연과 전시 콘텐츠를 대형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민회관 배시시 명품극장. 특히 생동감 넘치는 고화질 영상과 10여 대의 카메라로 다각도에서 담아낸 역동적인 화면, 현장감 넘치는 5.1채널 입체 서라운드 음향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6월에는 지난 2015년, 이견음악회를 통해 첫 내한공연을 가졌던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를 만날 수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3 부산 버스킹 페스타

일 시 | 7월 1일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인 부산 지역의 대중예술인 발굴과 부산 대중음악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는 '2023 부산 버스킹 페스타'. 지난 4월 버스킹 예선을 거쳐 선정된 3인용스윙팀 The Tunas, 밍글, 옐로온, 오빠야문열어떨기사왔어, 용용클래, 집시유랑단, 콩코드유니버스, 현미밴드, 후고 등 10개팀의 본선 경연과 함께 특별게스트 딕핑스의 무대가 펼쳐진다. 딕핑스는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슈퍼스타 K 4'에 출연,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준우승한 후 평범함을 거부하는 음악, 감성을 뒤흔드는 목소리로 대한민국 대표 인디밴드로 자리매김했다.

음악

## 게네랄파우제 6월 공연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8:00(2일 오후 7:00),  
토요일 오후 7:00(24일 오후 2:00),  
6월 1일(목) 오후 8:00 **게네랄파우제**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게네랄파우제 070-4177-3927

클래식부터 재즈 및 크로스오버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게네랄파우제 6월 무대.

### 1일(목) 오후 8:00 **여름의 문턱에서**

피아니스트 민주신과 더블베이스스트 박주민으로 구성된 피주베주는 피아노와 더블베이스만으로도 빈틈없이 짝 찬 무대와 친절한 해설로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2일(금) 오후 7:00 **Incognito tribute**

특유의 자연스러운 음악과 진행으로 관객과 편안하게 소통하는 강혜인 콰텟의 무대. 그동안 마이클 잭슨, 비틀즈, 스티비 원더 등 여러 음악가들의 헌정공연을 통해 고정 관객들을 확보한 강혜인 콰텟은 이번 무대에서 세계 최고의 펑크/재즈/소울/댄스 밴드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인코그니트(Incognito) 헌정무대로 꾸민다.

- 피아노/강혜인 • 보컬/정세미
- 콘트라바소/심규환 • 드럼/홍영호



3일(토) 오후 7:00 **Change of heart**  
재즈기타리스트 이달현을 주축으로 드럼 윤혁성, 베이스 박지원이 만나 강렬한 사운드로 퓨전락을 들려주는 이달현 트리오의 무대.

### 9일(금) 오후 8:00 **지브리의 '안녕, 여름!'**

2022 부산월드클래스에 선정된 작곡가 강유(본명 강현민)가 이끌고 있는 도담양상블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이웃집 토도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지브리스튜디오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의 OST를 들려준다.

- 바이올린/김민화 • 첼로/정혜주
- 플루트/조다은 • 클라리넷/강철주
- 피아노/손안나 • 작곡/강현민

### 10일(토) 오후 7:00 **BRASS on stage**

Customer is King(C.I.K.) 라는 문구 아래에 여섯 명의 관악기 주자로 결성된 team C.I.K.의 무대.  
금관악기의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 색소폰/김도훈 • 마칭 호른/이시원
- 수자폰/김성환 • 트럼본/신광호
- 트럼펫/이성우 • 드럼/김경민

17일(토) 오후 7:00 **Voyage III**  
부산의 재즈를 30년 이상 지키으며 노래해온 재즈 보컬리스트 최은아를 주축으로 한 최은아 트리오의 무대.

여름 여행을 떠나는 느낌의 재즈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 관객들에게 따뜻하고 감수성 가득한 무대를 선사한다.

- 보컬/최은아 • 피아노/장세연
- 더블베이스/신세영

### 23일(금) 오후 8:00 **Romantic Touch**

독일 유학파 출신의 피아니스트 강대현, 김진희가 슈만 부부의 곡을 비롯 낭만주의 시대의 피아노곡으로 하우스콘서트의 묘미를 선사한다.

### 24일(토) 오후 2:00 **19세기의 모차르트, 펠릭스 멘델스존**

콘서트 가이드로 활동하는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이 매월 한차례 진행하는 렉터콘서트. 작곡가 멘델스존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들과 함께 2대의 클라리넷과 피아노가 들려주는 하모니로 천재 작곡가 멘델스존의 생애를 따라간다.

- 피아노/이혜경 • 클라리넷/김정민



24일(토) 오후 7:00 **Boss'n Samba**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은 밴드 리더이자 재즈 음악가인 피오트르 파블락(Piotr Pawlak)을 주축으로 결성된 피오트르 재

즈트의 무대. 브라질의 삼바, 미국의 팝과 재즈를 혼합하여 보사노바 장르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곡가 주앙 지우베르투(Joao Gilberto) 헌정공연으로 시작된 '보사앤삼바'에서는 그의 삶과 깊이 연관된 브라질의 삼바와 보사노바를 쉬운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특히 이번 공연은 6월 한달동안 32곳의 소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3 원먼스 페스티벌' 무대로, 입장료 없이 진행된다.

- 보컬/서민진 • 기타/김경모
- 콘트라바소/신세영
- 드럼/피오트르 파블락



30일(금) 오후 8:00 **Stardust**  
뉴욕에서 수학, 귀국 후 국내 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즈 보컬리스트 서민진을 주축으로 결성된 서민진 밴드의 무대.

그래미 어워드 2관왕에 빛나는 재즈가수 서마리 조이(Samara Joy)가 불러 유명해진 'Stardust'를 비롯해 숨겨진 보물같은 재즈 스탠다드를 들려준다.

- 보컬/서민진 • 기타/김경모
- 콘트라바소/신세영
- 드럼/피오트르 파블락

## 음악, 꿈으로 피어나다

일 시 | 6월 3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모차르트한국콩쿨 부산지부 010-2662-1957



모차르트한국콩쿨 부산지부 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총 7명의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무대.

모차르트한국콩쿨은 독일 모차르트국제콩쿨에 참가하기 위한 한국 예선전으로, 피아노, 성악(동요), 관현악, 피아노듀오 부문으로 참가가능하며, 지부대회(예선)에서 입상한 참가자는 서울본부대회(본선)에 참가할 수 있다.

- 동요/유효주(화암초등 4학년)
- 테너/최준혁(부산예고 졸업)
- 바이올린/정유현(부산대 1학년)
- 피아노/임나윤(부산예중 1학년), 윤서희(부산예고 3학년), 안태규(울산대 대학원 석사과정), 오채아(경희대 대학원 석사과정)

## 2023 Piadolce 창단연주회

일 시 | 6월 3일 토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Piadolce 010-8533-2496



피아니스트 하소영을 단장으로 유지은, 조은애, 윤인아로 구성된 피아노 앙상블 Piadolce의 창단 무대.

'piano'와 'dolce'의 합성어인 'Piadolce'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대중들에게 전하고자

결성된 팀으로, 이번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무대를 통해 피아노 앙상블의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드뷔시와 라벨의 곡으로 꾸며지는 1부 '인상주의(Impressionism)'에 이어 2부 '낭만주의(Romanticism)'에서는 멘델스존과 쇼팽, 그리그의 곡을 솔로 및 듀오로 들려준다.

## 제501회 스페이스 옴 음악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 옴**  
문 의 | 스페이스 옴 557-3369

\*\*\*  
지난 5월 26일 옴 음악회 500회를 맞기도 한 스페이스 옴은 누구나 쉽게 예술문화를 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 전시, 강좌 등을 열 어왔다.

### 2일(제501회) 라엘앙상블의 청포도처럼 달콤상콤한 음악회

바이올리니스트 김나형, 플루티스트 전하나, 클라리네티스트 이현진, 콘트라베이스리스트 박시현, 피아니스트 김지현으로 구성된 라엘앙상블의 무대. 청포도가 익어가는 6월을 맞아 음악에 재미와 감동을 더한 상콤한 무대를 선사한다.

- 입장료/전석 2만원

### 9일(제502회) 라틴재즈밴드 갯츠 콘서트 'Welcome to Cuba'



제1회 부산 시민공원 재즈페스티벌 금상, 제2회 해운대 재즈페스티벌 대상을 수상한 라틴재즈밴드 갯츠가 흥겨운 라틴재즈로 여름밤을 달군다.

### 프로그램

Cherry pink and apple blossom white, Rico vacilon, Piel canela, Son de la loma, Guantanamera, I've got to learn to mambo, 깊은 밤을 날아서 등 수곡

- 입장료/무료



### 16일(제503회) 리릭챔버앙상블 'the story\_Haydn'

창원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수석 강선혜를 리더로, 창원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부수석 장아름, 창원시립교향악단 비올라 부수석 임정은, UKO 첼로 수석 변은석으로 구성된 리릭챔버앙상블의 무대.

화려한 테크닉과 따뜻한 음색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리릭챔버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현악사중주와 교향곡 형식의 확립에 기여한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작품 64 '종달새'와 작품 77를 들려준다.

- 입장료/전석 2만원

### 24일(제504회) 카스타나 듀오의 '자유낙하 무도회'

프로젝트 밴드 카스타나 탱고의 음악감독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 오사카 국제 음악콩쿠르 3위, 바르톡 국제 피아노콩쿠르 2위 및

특별상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조영훈으로 구성된 카스타나 듀오의 무대.

2020 한국음악상 젊은 음악가상을 수상한 반도네이스트 김종완과 함께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곡가 카를로스 과스타비노, 홀리안 아귀레, 아길레스 로제로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 입장료/전석 3만원



### 30일(제505회) 스트라이허 앙상블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음악산책

포항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수석 남가영을 리더로, KNN방송교향악단 단원인 바이올리니스트 송해민, KNN방송교향악단 비올라 부수석 나윤채, 코리안뮤직앙상블 멤버인 첼리스트 이강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인 더블베이스리스트 박혜승으로 구성된 스트라이허 앙상블의 무대. '현악기 연주자들'이라는 뜻을 지닌 스트라이허 앙상블은 2009년에 창단 후 지금까지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미리 만나는 부산국제아트센터 클래식 파크 콘서트

일 시 | 6월 3일-4일 토-일요일 오후 6:30  
부산시민공원 **하리아야 잔디광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광역시 944-202

\*\*\*

2025년, 2026년 개관 예정인 부산국제아트센터와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친숙하게 클래식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야외 클래식 음악회 '클래식 파크 콘서트'.

3일과 4일, 두차례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 지휘하는 KBS교향악단과 최수열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의 무대가 차례로 마련된다.

콘서트는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된다. 특히 파크 콘서트의 콘셉트에 맞춰 피크닉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 돗자리를 가지고 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3일(토) KBS교향악단(지휘/정명훈)

오페라 아리아와 합창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박소영, 테너 박승주, 바리톤 김기훈, 베이스바리톤 길병민과 부산시



립합창단, 2023 부산오페라하우스 시즌합창단이 무대에 선다. MBC 김정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우리에게 친숙한 푸치니, 베르디의 오페라 아리아와 합창, 그리고 로시니 오페라 서곡과 마스크니 오페라 간주곡 등을 들려준다.



### 4일(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최수열)

최수열 예술감독이 직접 선곡한 명곡들을 들려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오페라하우스 시즌 오케스트라와 첼리스트 송영훈,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함께 무대에 선다.

특히 배우 김석훈이 사회를 맡아 관객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간다.

### 프로그램

축전서곡(쇼스타코비치), 사랑의 인사(엘가), 슬라브무곡(드보르자크), 천둥과 번개 폴카(슈트라우스 2세), 삼중협주곡 '악장(베토벤), 카르멘 서곡&하바네라(비제), G선상의 아리아(바흐) 등

## 가족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일 시 | 6월 3일 토요일 오후 4:00  
울속드문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5세 이상 관람,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드문문화회관 220-5811~4

\*\*\*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명의 명작동화를 가족오페라로 제작한 '헨젤과 그레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오페라를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헨젤과 그레텔'은 동화로운 알고 있던 내용

을 다양한 무대로 시각화하고, 배우들의 연기, 노래로 스토리를 전달하는 등 오페라와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이번 무대를 제작한 라모아트컴퍼니는 지난 2014년 창단된 후 평창문화올림픽 초청공연, 대구오페라하우스 기획공연 등 지난 10년간 전국 단위의 다원예술 분야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왔다.

##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금정문화회관의 대표적인 브랜드공연 '금정수요음악회' 6월 무대.



**7일(제819회) 숲오페라 앙상블 '버섯피자'**  
 숲오페라앙상블이 마련하는 콘서트 오페라 '버섯피자'. 숲오페라앙상블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듯이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 되어 음악이라는 아름다운 숲에서 더불어 즐기자는 뜻으로 결성한 단체로, 그동안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오페라 무대를 지향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작곡가 시모어 바랍의 블랙코미디 오페라 '버섯피자'는 19세기 이태리를 배경으로, 네 남녀의 얽히고 설킨 사랑, 증오, 배신, 질투 속 숨겨진 비밀이 아기를 그린 작품이다.

- 소프라노/김보민, 최햇살

• 테너/장지현 · 바리톤/최모세

**14일(제820회) 레망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바수니스트 이수빈, 호른니스트 박용인,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 오보이스트 정새롬, 플루티스트 안병건으로 구성된 레망앙상블의 무대. 프랑스로 '손'의 복수형인 '레망(Les mains)'은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손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낸다는 뜻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예술가들이 예술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를 예술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기 위해 창단된 팀이다.

**21일(제821회) JM앙상블 '울림'**  
 오보이스트 권성은, 플루티스트 황미리, 피아니스트 유영욱으로 결성된 JM앙상블의 무대. 'Joy of Music'의 약자인 JM앙상블은 팀 특유의 음색이 돋보이는 따뜻한 하모니와 진정성 있는 음악을 통해 관객들과 아름다운 소통을 나누고 있다.



## 28일(제822회) 바이올린 앙상블 MORAN 제3회 정기연주회



지난 2020년 창원시립교향악단 악장이자 인제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리나를 중심으로 그녀의 제자들이 모여 창단한 바이올린 앙상블 MORAN의 무대. 부산, 경남의 유일한 바이올린 앙상블팀으로, 화려

하면서도 여유와 품위를 가진 모란꽃처럼 서로 다양한 매력을 가진 연주자들이 클래식에 국한되지 않고 현대음악, 그리고 더 나아가 크로스오버를 통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MORAN만의 색깔로 선보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비발디 '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나단조 작품 3'을 비롯해 그라치나 바세비츠, 프리츠 뵘의 곡을 들려준다.

- 바이올린/이리나, 김가영, 김하영, 김지현, 최예린, 강혜원, 김영아, 장혜진, 이고운, 김소연, 김지현, 김윤정
- 피아노/송학

##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3회 협주곡의 밤

일 시 | 6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010-7535-6452



계명대학교 관현악전공 외래교수로 있는 지휘자 오창록이 이끄는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차세대 신예연주자들이 함께 하는 제13회 협주곡의 밤.

- 지휘/오창록
- 바이올린/강예지(정원 초등 3학년), 차은유(센텀중 1학년), 김서정(부산 예중 2학년)
- 클라리넷/김태린(부산예고 2학년), 문예란(부산예고 1학년), 이주아(부산예고 1학년), 주현서(부산고대부설초등 1학년)
- 플루트/이은채(부산예중 2학년)
- 색소폰/신유리(정관중 3학년)

## 울속도문화회관 굿모닝 콘서트

일 시 | 6월 9일(금), 23일(금)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입장료 전석 1만5천원 (블랙업커피 포함, 예매 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공연의 여운과 커피의 향기로 두 배의 기쁨을 누리는 울속도 음악산책 '굿모닝 콘서트'.

**9일(제19회) 비원 of No boundary**  
 지난 2019년 경계가 없고 자유로운 음악을 추구하는 연주자들로 결성된 퓨전국악밴드 비원(悲願)의 '노 바운더리(Noboundary)'.  
**23일(제20회) The passion**  
 부산의 중견성악가들이 마련하는 열정의 무대. 초여름에 어울리는 스페인 민속음악 '사르수엘라'를 비롯하여 집시와 라틴풍의 클래식 성악곡들로 관객들의 마음을 쿨링시키는 시원한 무대를 선사한다.

##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신인아티스트 콘서트

일 시 | 6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문 의 |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010-5701-6426



제9회 국제아티스트음악콩쿠르 우수입상자들과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신인아티스트 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노, 바이올린 부문의 차세대 연주자들이 펼치는 열정 넘치는 무대가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열정과 도전의식을 지닌 지휘자 손명균이 이끄는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는 지난 2007년 창단 후 참신하고 폭넓은 레퍼토리를 통해 청중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 지휘/손명균
- 피아노/김정훈, 지채현, 김다운, 하은조, 김하은
- 바이올린/권지윤, 이윤설

## 전은주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6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전은주 010-7751-8389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France Conservatoire Massenet 최고연주자과정, France Conservatoire Reuil Malmaison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전은주 독주회.

전은주는 그동안 부산음악협회콩쿠르, Concours de France Musical 국제콩쿠르에서 1등 수상하고 한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전주곡 작품 32 제9번, 제10번  
슈베르트/즉흥곡 작품 142 D.935 제1, 2, 3번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작품 110 제31번

## 부산 챔버필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2023 차세대 신인 아티스트 협주곡의 밤

일 시 | 6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클링엔터테인먼트 010-5773-9190



제5회 신라대학교 음악 아카데미 전국음악협연 콩쿠르 입상자들과 부산 챔버필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2023 차세대 신인 아티스트 협주곡의 밤.

피아노, 성악, 현악, 관악 등 다양한 부문의 수상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무대로, 차세대 신인들의 열정적인 연주가 펼쳐진다.

- 지휘/박환희
- 협연/김라희, 김가윤, 인하은, 박준형, 정준희, 김정훈, 예지영, 김나연, 이석민

## 레인보우 키즈 클래식 보라

일 시 | 6월 10일 토요일 오후 1:00, 3:00

청년창조발전소 공연장

입장료 | 어른1+아이1 3만원(연령 제한 없음)

문의 | ㈜샤콘스 746-2018



문화로 도시를 재생하는 부산 문화 로컬크리에이터 도시 재생 전문기업 (주)샤콘스가 어린이들을 위해 기획한 '레인보우 키즈 클래식'.

'레인보우 키즈 클래식'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누리과정에 맞춘 6가지 색깔 맞춤공연으로, 놀이로 즐기는 클래식 무대를 통해 어린이들이 부담없이 클래식과 친해질 수 있다. 이번 '보라' 무대에서는 누리과정 '신체건강' 클래식 '그러면 안돼!'를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클래식 공연과 함께 펼친다.

- 바이올린/윤보영
- 피아노/방은승

## 김진희 피아노 독주회 베토벤을 위하여

일 시 | 6월 11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진희 010-9928-3733



부산 현대음악양상블 단원이자 아인클랑 피아노양상을 대표, 부산피아노 듀오협회, 경남피아노 듀오협회,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피아노음악연구회, 부산피아노연주자 클럽, 독우회, 울산피아노 아카데미 회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진희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 과정 및 최고연주자 과정,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김진희는 독일을 중심으로 독주회 및 협연, 실내악 연주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김진희는 이번 무대에서 '비창', '월광' '열정' 등 베토벤의 3대 피아노 소나타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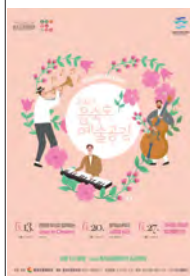
## 을숙도 예술공감

일 시 | 6월 13일(화), 20일(화), 27일(화)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예매 시 20% 할인)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13일(제29회) 제즈 인 시네마

기존 패러다임을 깨는 실험무대와 장르융합으로 새로운 공연문화를 지향하는 아티스타의 무대. 영화음악을 재즈로 재편곡, 그동안 낯설게만 느껴지던 재즈의 세계를 좀 더 쉽고 흥미롭게 만날 수 있다.

20일(제30회) 창작실내악극 '시리령 실근'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를 모티브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국악그룹 트락의 창작실내악극.

27일(제31회) 가곡과 아리아 양상블의 밤 부산의 성악가 및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부산청년 성악가협회 회원들이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로 아름다운 양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 제47회 짜장콘서트 피란수도 1000일, 부산의 노래

일 시 | 6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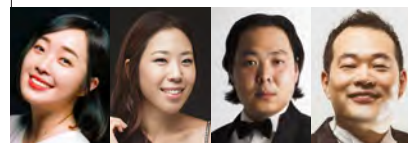
입장료 | 전석 1만원

(<https://naver.me/x5WiW4Qo>에서 사전예약, 청소년 및 5명 이상 단체 50% 할인)

문의 | 음악풍경 기획실 987-5005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대표 김창욱)이 지난 2019년부터 매달 가져온 짜장콘서트 47번째 무대. 한국전쟁 제73주년을 맞아 피란수도였던 부산에서 만들어지고 널리 불려진, 혹은 부산을 소재로 한 동요, 가곡, 가요 등을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 소프라노/신하람, 김민성
- 테너/최광현 • 베이스/박상진
- 연주, 반주/프로무지카(바이올린 원아름, 첼로 문혜정, 피아노 정은희)
- 진행/이진이



## 글로벌 드림콘서트

일 시 | 6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문 의 | 글로벌영재음악교육원  
 010-5701-6424



고신대학교 협력교육기관인 '글로벌영재음악교육원'이 주관하는 글로벌 드림콘서트. 글로벌영재음악교육원은 우수한 교수진과 함께 그동안 잠재력과 창의성을 가진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글로벌영재음악교육원 교수인 피아니스트 이수정, 박소진, 플루티스트 유혜성과 함께 우수한 영재학생들이 다채로운 무대를 꾸민다.

- 출연/최연영, 이민홍, 정재훈, 이지원, 최혜령, 김성윤, 신윤서, 박찬술, 박지겸, 신준우, 제예승, 이찬영, 이하준, 공채영, 강경빈, 박소은, 주현우, 최주혁, 진연우

## 이윤지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6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거쳐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윈스터 국립음대 석사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이윤지 독주회.

이윤지는 2019년 서울과 부산에서의 귀국 독주회 이후 수차례 독주회 외에도 코리아 제이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UKO Pilgrim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한국리스트협회 정기연주회, 피아노음악연구회 특별기획 릴레이 콘서트, 센토 챔버 소사이어티 연주회, 비르투오 조 앙상블 정기연주회, 앙상블 멜랑제 정기연주회,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수아트홀 기획 신년음악회 등 솔로, 반주, 앙상블 등 다양한 무대에 서었다.

## 2023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 오페라야 놀자! 아이다

일 시 | 6월 17일 토요일 오후 2: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만 4세 이상 관람, 예매 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을숙도문화회관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오페라를 선보이는 '오페라야 놀자!' 세 번째 무대 '아이다'.

그동안 선보였던 작품들이 티켓 오픈 하루만에 매진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오페라야 놀자!'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의 거인 베르디의 걸작오페라 '아이다'를 만날 수 있다. 특히 매 공연마다 부산시 캐릭터인 갈매기 '부기가' 출연, 어린이들의 동심의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 J Choir 제1회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지난 2020년 지휘자 전진을 중심으로 창단된 후 합창음악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레퍼토리를 추구해 온 전문예술단체 J Choir의 창단연주회.

실력있는 전문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콘서트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 낭만주의 작곡가 멘델스존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교향곡 제2번 '찬미의 노래(Lobgesang)'를 부산 초연으로 들려준다. 1840년,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 400주년을 기념해 작곡된 '찬미의 노래'는 합창과 솔리스트,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대규모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 최정상급의 성악가로 인정받고 있는 소프라노 구민영·권소라, 테너 전병호가 솔리스트로 관객과 만난다.

## 콘서트 가이드 김성민과 떠나는 아르헨티나 탱고여행

일 시 | 6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콘서트 가이드 김성민과 함께 아르헨티나 탱고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렉처 콘서트.

누에보 탱고의 창시자로, 자신만의 탱고 스타일로 독창적인 아르헨티나 탱고의 시대를 열었던 작곡가 피아졸라의 대표곡을 들려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탱고 밴드 '친친탱고'와 한국을 빛낸 100인 대상을 수상한 국내 유일의 프로페셔널 아르헨티나 탱고 댄서 'ARIS KIM&SAM ROSE'가 출연, 눈과 귀가 즐거운 탱고 무대를 펼친다. 특히 친친탱고만의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로 풀어내는 수준 높은 연주와 아시아 최초로 뉴욕 카네기홀 탱고 초청공연을 펼친 댄서들의 공연을 통해 탱고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다.

## 이현욱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6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이현욱 010-8502-4620



부산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실기수석 입학 및 우수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에콜 노르말 음악원,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D.M.A)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이현욱 독주회.

제6회 일본 Osaka International competition에서 1등없는 2등 및 특별상 등을 수상한 이현욱은 그동안 피아노 블러브드 창단멤버로 예술의전당, 영산아트홀 정기연주회, 고양아람누리, 마포아트센터, 영화의전당, Bela Bartok recital hall 초청연주회 등 다수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 프로그램**  
 헨델/모음곡 제2번 바장조 HWV 427  
 베토벤/소나타 제23번 작품 57 '열정'  
 플랑크/3 Novelettes, FP 47&173  
 라흐마니노프/악흥의 순간 작품 16

### 을숙도문화회관 청년예술공감

일 시 | 6월 22일(목), 29일(목)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부산에서 활동하는 젊은 예술인들의 열정을 응원하고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을숙도문화회관이 마련한 특별한 무대 '청년예술공감'.

22일(제1회) 덩가(歌) 덩가(歌)  
 가야금 병창과 가야금 전공자가 함께 어우러져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융합을 통해 대중성 있는 무대로 관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창단한 '노래하는 야금야금'의 '덩가(歌) 덩가(歌)'.

29일(제2회) 포핸스로 듣는 친근한 클래식  
 피아니스트 유지현, 정다스리의 듀오무대로 마련되는 '포핸스로 듣는 친근한 클래식'.

### 스테이플러스 제9회 정기연주회 참 좋은 클래식-Good Enough Classic

일 시 | 6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스테이플러스 010-4904-4983



피아니스트 이선화, 노은주, 장효진, 정꽃님, 박재영, 구화진, 김은정으로 구성된 피아노 전문 연주단체 스테이플러스(STAY+)의 무대. '참 좋은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스테이플러스(STAY+)의 다채로운 무대와 더불어 소프라노 강수진, 플루티스트 최낙주, 이시현이 출연, 보다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 소프라노/강수진
- 플루트/최낙주, 이시현

### 영남국악관현악단의 The Big Concert

일 시 | 6월 24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VIP석 5만원, R석(1층) 4만원  
 S석(2층) 3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한국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영남국악관현악의 The Big Concert'.

이 시대의 진정한 소리꾼 장사익과 국악 신동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소리꾼으로 거듭난 유태평양, 대구문화재단 청년예술가 소리꾼 김단희,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 음악 부감독으로 있는 가야금연주자 민정민, 사물놀이 노리광대가 출연한다.

전공자, 무형문화재 이수자 등 전문연주자들로 구성된 영남국악관현악단은 지난 2001년 11월 창단 후 전통음악의 보전과 전승,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 지휘/김현호

### 일상으로 녹아내린 V 리얼 케이팝

일 시 | 6월 25일 일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1만원(현장 구매만 가능)  
 문 의 | 사운드팩토리 판 010-8012-2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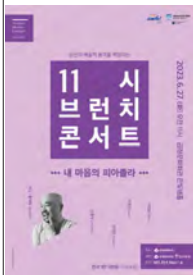
2021년 부산광역시 전문 예술단체로 지정된 사운드팩토리 판의 무대.

'좋은 음악'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픈 국악연주자들이 모인 부산 최초의 국악레이블로, '월드국악'을 통해 가장 한국적인 소리로 세계를 노래하는 '얼터너티브 국악그룹 초아', 동서양 악기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양상블 베리떼', 악기무의 다양한 시도를 꾀하고 있는 '국악그룹 이별', 판소리의 대중화를 위해 창작성악곡 개발에 애쓰고 있는 '국악그룹 헤이브', 가요처럼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소프트한 창작국악을 지향하는 '국악그룹 미몽' 등 다섯 단체가 함께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의 전통예술을 다양한 음악요소와 결합시킨 '재미있고 즐거운 국악'을 만날 수 있다.

###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내 마음의 피아졸라

일 시 | 6월 27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클래식과 재즈를 접목시킨 누에보 탱고의 창시자 피아졸라의 다양한 음악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KBS클래식FM '재즈수첩'을 23년째 진행하며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재즈 역사로 강의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황덕호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춤을 위한 '발의 탱고'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귀의 탱고'로 바뀌놓은 피아졸라의 대표곡을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 그리고 콘트라베이스의 4중주 연주로 들려준다.

- 해설/황덕호
- 콘트라베이스/조용우 • 바이올린/문지원
- 첼로/이호찬 • 피아노/이성승

### 너에게 주는 음악 편지 TO. YOU

일 시 | 6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레가토 치유협회 010-3590-0474

독일 트로싱엔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을 거쳐 독일 아우구스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초로 최고점수로 졸업한 뒤 독일과 벨기에 등에서 연주활동과 강의를 하고 귀국 후 다양한 무대에 서운 피아니스트 정경아와 박선재, 그리고 일본의 클라리네티스트 조코마츠가 함께하는 치유음악회.

유럽과 도쿄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코마츠는 피아니스트 정경아와 함께 트리오 비용의 멤버로 활동중이다.

'너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노 듀오와 클라리넷 연주를 통해 관객들에게 음악 편지를 들려주며 힐링과 치유의 무대를 선사한다.



### 제493회 가람초청음악회 2023 원먼스 페스티벌 2023 Ensemble Lieto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가람아트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가람아트홀 621-6669



32곳의 소공연장에서 한 달동안 펼쳐지는 우리 동네 문화살롱 페스타 두 번째 ‘2023 원먼스 페스티벌’ 무대.

가람아트홀에서는 피아니스트 박나희, 바이올리니스트 정은주, 첼리스트 이현아 등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학사, 석사 졸업생들로 구성된 앙상블 리에토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탈리아어로 ‘기쁜, 즐거운, 행복한’이라는 의미를 지닌 앙상블 리에토는 지난 2021년 창단 이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 트리오 내림나장조 K.205  
포레/피아노 트리오 라단조 작품 120  
피아졸라/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 2023 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클래식으로 듣는 영화음악 with 트리오 시네마틱

일 시 | 6월 28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한국영화음악을 이끌어가고 있는 영화음악감독을 중심으로 매월 색다른 주제가 어우러지는 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부산영화음악협회 대표이자 부산 출신의 영화음악감독인 손한묵과 함께하는 영화음악콘서트로,

6월에는 트리오 시네마틱과 함께하는 클래식으로 듣는 영화음악 무대가 펼쳐진다. 피아니스트 최영민, 바이올리니스트 김성호, 첼리스트 정은혜로 구성된 트리오 시네마틱은 이번 무대에서 영화 속 빛나는 클래식음악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클래식 음악이 영화 속에서 감동과 울림을 더해주는 특별한 경험을 가질 수 있다.

### 하모니카와 함께하는 추억의 음악속으로

일 시 | 6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 010-9944-8825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 회장으로 있는 박기국 총감독과 회원들이 펼치는 특별한 무대 ‘하모니카와 함께하는 추억의 음악속으로’.

우리에겐 친숙한 하모니카 선율 속에 관객들과 함께 추억여행을 떠난다.

- 총감독/박기국
- 연주/김정아, 성순조, 전무희, 하윤선, 장경란, 김말자, 강양순, 이종달, 박미숙, 안미향, 김정자, 황수자, 안춘희
- 앙상블/하모니카앙상블, 라온제나앙상블

## 연극

###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일 시 | 3월 25일(토)-6월 18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2:00, 7:00(월요일 공연 없음)  
부산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9만원, R석 16만원, S석 13만원, A석 9만원, B석 7만원  
문의 | 클럽서비스(주) 1577-3363



한국 초연 22년 만에 성사된 역사적인 한국어 공연으로 화제를 모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전 세계 1억 4천 5백만명을 매혹시킨 걸작으로 토니상, 올리비에상을 포함하여 메이저 어워드 70여 개를 석권한 ‘오페라의 유령’은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서 34년 넘게 동시에 공연된 유일한 작품으로, 가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불세출의 명곡이 선사하는 가면 속의 감춰진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관객들을 매혹시킨다.

‘오페라의 유령’ 역의 조승우, 김주덕, 전동석을 비롯해 다시는 만나기 힘든 최정상 캐스팅으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 연극 완벽한 커튼콜

일 시 | 4월 13일(목)-7월 23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2:30, 5:00(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12세 이상 관람, 예매시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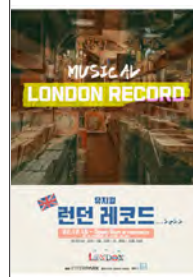
분장실이라는 독특한 소재와 한번에 2가지 공연을 볼 수 있는 신선한 시도, 파격적인 웃음으로 화제가 된 연극 ‘완벽한 커튼콜’.

연극 ‘설록홀츠’가 열리는 공연장의 분장실. 각종 언론사 인터뷰 요청부터 공연 전 점검사항까지 정신없이 돌아가고, 드디어 막오른 무대는 시작부터 실수연발, 위태위태하게 흘러간다. 설상가상으로 무대 뒤편 공연은 뒷전, 배우들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분장실의 민낯을 유쾌하게 그린 ‘완벽한 커튼콜’은 기발한 연출과 베테랑 배우들의 연기가 관객들에게 쩌 웃음을 선사한다.

### 뮤지컬 런던레코드

일 시 | 4월 22일(토)-6월 30일(금)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 없음) 부산엠스테이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예매 시 50% 할인)  
문의 | 엠스테이지 010-2840-4834



국내 창작 뮤지컬 최초로 전 세계 뮤지컬의 본고장인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에 진출하는 뮤지컬 ‘런던 레코드’.

지난 4월부터 부산엠스테이지 전용관에서 열리고 있는 ‘런던레코드’는 조승필, 이문세, 이승철 등 10여 년 동안 콘서트 연출을 맡았던 김인성 연출가가 극작, 작곡, 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K-Pop을 좋아하는 전 세계인의 취향에 맞춰 작곡된 최신 트렌드 음악들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특히 이번 작품은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 다시 한 번 꿈을 꾸며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준다.



### 연극 언플러그드

일 시 | 5월 11일(목)-7월 16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4만원(12세 이상 관람, 예매시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아프지만 가슴뛰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어쿠스틱 기타와 라이브 버스킹으로 그려낸 연극 '언플러그드'. 수년째 무명가수로 활동하다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라이브 바에서 잘리고 버스킹을 시작한 남자, 그리고 남자 앞에 나타난 한 여자. 두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듀엣 '오렌지스카이'를 결성하고 인디밴드들의 꿈의 무대, 언플러그드 페스티벌에 초청받는 데... 누구나 한번쯤은 가슴 설레었던 순간이 언플러그드 음악과 함께 펼쳐진다.

###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동화뮤지컬 페페의 꿈

일 시 | 6월 17일 토요일 오후 3: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2만원(5세 이상 관람)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클래식과 함께하는 신나는 동화여행 '페페의 꿈'. '페페의 꿈'은 수줍음 많은 겁쟁이 페페가 유일한 친구인 오로라 공주가 파고다 여왕의 마법에 걸려 깊은 잠에 빠지자 공주의 마법을 풀기 위해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동화속 나라로 모험을 떠난다. 특히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이 어린이들을 위해 5개의 동화 스토리를 바탕으로 동심과 마법의 세계를 표현한 '어미거위 모음곡'이 페페의 여행에 함께 한다.

- 예술감독, 작·곡·신동일
- 극작/이태권 • 각색, 연출/박현철
- 지휘/조대명
- 연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 2023 가마골소극장 기획전 연극 아버지를 찾아서

일 시 | 6월 17일(토)-25일(일)  
 주말 오후 3:00(평일 공연없음)  
**일광 가마골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만 11세 이상 관람)  
 문 의 | 가마골소극장 723-0568



이라크 작가인 아세르 A 라작의 원작을 무대화한 연극 '아버지를 찾아서'. 연극 '아버지를 찾아서'는 외세, 현실에도움이 되지 않는 종교, 전란 중에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적 모순에 저항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두명의 배우가 출연하여 작중인물 역을 나누어 연기하고 노래하는 음악극이다.

- 원작/아세르 A 라작
- 역/F/이부라임, 배미향
- 연출, 대본 구성/강호석
- 출연/박정우, 김세연

### 연극 새빨간 거짓말

일 시 | 6월 23일(금)-9월 3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만 13세 이상 관람)  
 문 의 | 쥬플레이 더 부산 1600-0316



오감을 자극하는 스릴러 연극 '새빨간 거짓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완벽주의자 이유리. 어느 날 그녀는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고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오르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진다. 과연 이들 중 범인은 누구이며, 그녀의 잘린 신체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특히 이번 무대는 탄탄한 스토리와 예측불가능한 전개, 설 틈 없이 조여오는 긴장감으로 차원이 다른 공포를 선사한다.

### 뮤지컬 영웅

일 시 | 6월 27일(화)-7월 2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6:30, 일요일 오후 2:00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 15만원, R석 13만원  
 S석 11만원, A석 9만원, B석 7만원  
 문 의 | 파워엔터테인먼트(주) 1660-3570



최근 누적관객수 100만을 기록한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의 신화 '영웅'. 지난 2009년 안중근 의사의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영웅'은 1909년 독립투사들의 혈맹, 하얼빈 의거,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작품으로, 가슴 벅찬 감동의 이야기와 귀로 사로잡는 풍성한 음악으로 매혹 뜨거운 환호와 기립박수를 받아왔다. '영웅'은 그동안 총 9개 시즌과 722회에 달하는 공연을 거치면서 스테디셀러 뮤지컬로 자리매김했으며 한국뮤지컬대상, 더 뮤지컬 어워즈, 예그린뮤지컬어워드 등 다수 시상식에서 작품상, 연출상, 무대미술상, 남우주연상을 휩쓸었다.

### 무용

### 동화속 발레 갈라콘서트 백조의 호수

일 시 | 6월 8일 목요일 오후 2:00,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48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과 부산발레시어터가 함께 기획,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화속 발레 갈라콘서트 '영도. 발레에 빠지다' 시리즈 두 번째 무대 '백조의 호수'. 지그프리트 왕자와 오데트 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동화 '백색 오리'를 원작으로 한 발레 '백조의 호수'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과 더불어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로 꼽히는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2014년 설립된 후 창작 공연부터 클래식 전막 발레 공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발레시어터가 '백조의 호수' 주요 장면을 갈라무대로 선보인다.

### 이주호&부산내셔널발레단 발레리나, 발레리노 무용수그이상

일 시 | 6월 18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문의 | 부산내셔널발레단 010-9505-0796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국립발레단, 홍콩 국립발레단, 에스토니아 바네무이네 국립발레단 펠스트 솔리스트로 활동했던 이주호와 부산내셔널발레단의 무대.

‘발레리나, 발레리노 무용수 그 이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인간이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라인을 만들고 공연을 접하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무용수들의 무대 뒤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와 발레 ‘해적’ 중 ‘오달리스크 파드 트루아’, 그리고 이 시대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ID(아이덴티티)를 각 무용수들의 성격, 성향, 개성을 각자의 방식대로 표현, 본인이 추구하고 원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_D(IDENTITY)’ 등이 선보인다.

###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바디콘서트

일 시 | 6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홍보영상으로 유명세를 떨친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무대.

‘정의하기 어렵고 모호하다(Ambiguous)’는 뜻을 지닌 팀명처럼 음악과 무용의 몸짓이 가장 정확하고 진실된 언어를 형성한다고 믿는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는 이번 무대에서 인간의 몸과 춤의 관계를 뛰어넘는 전율을 관객과 함께 공유하고자 만든 콘서트 형식의 창작 무대 ‘바디콘서트’를 선보인다.

총 10개의 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프트 펑크, MC 해머, 비운세의 팝에서부터 헨델의 ‘울게 하소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등의 클래식, 그리고 전통민요 ‘아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귀에 익숙한 다채로운 음악을 배경으로 창작되었다.

### 영화

### 애니메이션으로 즐기는 키즈 오페라

일 시 | 6월 3일 토요일 오전 11:00  
메가박스 양산 증산점  
6월 3일 토요일 오후 3:00  
메가박스 사상점  
입장료 | 어른+아이1 3만원(연령 제한 없음)  
문의 | (주)샤콘느 746-2018



영화관에서 즐기는 특별한 키즈 오페라 공연 ‘애니메이션으로 즐기는 키즈 오페라’.

문화로 도시를 재생하는 부산 문화 로컬크리에이터 도시 재생 전문기업 (주)샤콘느가 어린이들을 위해 기획한 행사로, 모

차르트가 음악으로 그려낸 환상적인 이야기 ‘마술피리’(오전 11:00)와 적국의 장군과 사랑에 빠진 아이다 공주의 슬픈 사랑 이야기 ‘아이다’(오후 3:00)가 애니메이션으로 상영된다. 특히 부산시 소통 캐릭터인 부기가 영상 속 주인공 공으로 등장하며, 아동심리치료 바이올리니스트 윤보영, 음악치료 피아니스트 방은승의 연주와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도 펼쳐진다.

### 행사

### 6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오페라 감상회

일 시 | 매주 화요일·금요일·토요일  
오후 2:00, 7:0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6월 감상회, 매주 화요일에는 ‘슈만과 클라라’ 특집을, 금요일에는 베르디 탄생 210주년을 맞아 베르디 오페라를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오페라(베르디 탄생 210주년 특집)/가면무도회(2일), 운명의 힘(9일), 돈 카를로(16일), 아이다(23일), 팔스타프(30일)  
콘서트(슈만과 클라라 특집)/영화 ‘애수의 트로이 메라이’(6일), 피아노곡, 가곡(13일), 피아노 협주곡, 첼로협주곡(20일), 교향곡 제1번, 3번, 4번(27일)

### 김옥균의 클래식뮤직감상이가 데미 클래식음악 영상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1:0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 1개월 5만원  
문의 |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 이자 현재 클래식 해설가, 시인, 음악 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 뮤직아카데미’.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과 함께 유명 작곡가의 탄생지 기행, 국내외 최신 클래식 음악의 해외연주회 실황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알기쉬운 서양음악사 특강-고전파 음악의 이해&하이든 현악사중주 ‘종달새’,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제23번’  
클래식 음악의 이해와 감상법&베토벤 ‘영웅교향곡’, ‘피아노협주곡 제3번’

클래식 음악영화-카핑베토벤. 아마테우스, 불멸의 연인  
핀란드 음악기행- 벨리우스 ‘바이올린협주곡’, 교향시 ‘핀란드어’  
엘가 ‘수수께끼 변주곡’, ‘첼로협주곡’, 슈베르트 가곡 ‘바위 위의 목동’  
드보르작 오페라 ‘루살카’ 전막 감상

### 제185회 알바트로스 시낭송 콘서트 ‘편지’ 주제 시낭송회

일 시 | 6월 17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협회  
010-63670-0149

- 출연/박성미 시인 외 회원, 초대시인
- 초청 음악/고종진(클래식기타리스트), 김모화(시노래 가수)

## 6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15일 목요일 오전 11: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5일(월) 오후 7:00 예술과 희망의 원리

• 강사/정해성(문화평론가, 라움 Y 대표)

12일(월) 오후 7:00 역사 이해의 다섯 시선

• 강사/양순철(서울기독대학교 겸임교수)



15일(목) 오전 11:00 낭독  
과 낭송, 시조창(時調唱)  
과 詩수다.뽕집을 비추는  
볼록거울(김참 쫘, 파란,  
2016년)

19일(월) 오후 7:00 오디

세이아, 그 극복의 여정  
• 강사/조윤솔(인문학자)

26일(월) 오후 7:00 오즈

야스지로, 허우 샤오시엔, 김현정 감독 영화에서  
마주한 꿈(고, duhka)와 아시아 영화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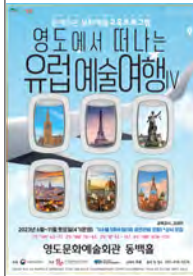
• 강사/허정식(영화학자)

##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예술여행 IV

일 시 | 6월 3일(토)~11월 11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영도문화예술회관 동백홀·봉래홀

입장료 | 무료(기수별로 25명 선착순)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4



영도문화예술회관이 지난 2020년부터 열었던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예술여행' 네 번째 시리즈.

올해는 유럽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문학 작품과 이야기를 통해 '시작'(1기, 6월 3일~7월 1일), '여성'(2기, 7월 8일~8월 5일), '꿈'(3기, 9월 2일~10월 7일), '사람'(4기, 10월 14일~11월 11일) 등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오페라의 역사, 미술, 문화, 인물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유럽에서 10년간 전문해설가로 활동했던 김성민 강사가 생생한 현지의 감성으로 전하는 해설을 통해 인문학과 예술이 접목된 색다른 강의를 만날 수 있다.

매 기수별로 5번의 강좌가 펼쳐지며 마지막 강좌는 공연관람으로 진행된다.

## 영도!! 예술 감상 어드벤처

일 시 | 6월 3일(토)~11월 18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9:00  
영도문화예술회관 4층 강익실

입장료 | 무료(초등 고학년~중학생 선착순 30명 이내)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4

클래식라디오 010-3881-3753



영도문화예술회관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벽을 낮추기 위해 마련하는 2023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영도!! 예술 감상 어드벤처'.

이번 프로그램은 현악기로 떠나는 음악여행(1기, 6월 3일~24일), 알고 보

면 재미있는 재즈 이야기(2기, 7월 1일~22일), 부는 재미 듣는 기쁨 관악악기(3기, 8월 19일~9월 9일), 신명나는 국악 이야기(4기, 9월 16일~10월 14일), 둠치둠치 타악이야기(5기, 10월 21일~11월 11일) 등 다섯차례로 나누어 진행되며, 음악을 통해 창의력과 감성을 기르고 음악의 구조와 요소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 전시

### 2023 상지인문학아카데미 정두환의음악으로본세상이야기 '음악 공간에서 만나다'

일 시 | 6월 28일 수요일 오후 6:30  
상지건축 대학의실  
입장료 | 무료  
문 의 | 상지건축 대외협력본부 240-1526, 1529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만나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의 음악으로 본 세상 이야기.

천재라는 분야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음악', 그 음악의 본질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동시대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가 필요하며 각각의 지성과 이성, 그리고 본성이 만날 때 시대를 읽어내는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각자의 삶을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길이다.

이번 강좌는 음악이라는 소재로 세상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음악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위안받을 수 있는 자리이다.

###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교육 전시 다섯 번째 계절 낮선 행성, U+1F728

일 시 | 5월 2일(화)~6월 11일(일)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입장료 | 무료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57

금정문화회관이 2023년 첫 기획전시로 마련한 '다섯 번째 계절 낮선 행성, U+1F728'.

• 운영시간/오전 10:00~오후 6:00(매주 월요일 휴관)

### 요시고 사진전 따뜻한 휴일의 기록

일 시 | 5월 27일(토)~9월 3일(일)  
KT&G 상상마당 부산  
입장료 | 1만5천원  
문 의 | KT&G 상상마당 부산  
070-8893-0892~4

### 이혜형·김아나 콜라보레이션 전시 엄마미소

일 시 | 5월 13일(토)~6월 25일(일) 갤러리 한스  
문 의 | 갤러리 한스 010-4574-0660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한 서양화가 이혜형과 도자작가 김아나의 생애 첫 콜라보레이션 모녀전 '엄마미소'.

두 작가가 엄마가 되어 함께하는 첫 전시로, 회화와 공예의 즐거움을 함께 만끽할 수 있다.





### 파미르의 시간

강진숙 지음 / 호밀밭 / 1만8천원

동래여고 국어교사 강진숙의 파미르 여행기. 실크로드의 심장, 세계의 지붕, 해발고도 4732m의 파미르. 그곳에서 저자가 보낸 시간과 꿈과 희망을 보여준다. 이곳을 지키는 사람들의 힘과 지혜는 아름다운 사진에 담았다. 저자를 파미르로 이끈 것은 대학 선배가 했던 말이다. “파미르에 꼭 가봐. 지구에 남은 마지막 공간이야. 더 늦기 전에 가야 해.” 파미르 여행은 저자에게 인생 한 굵이를 넘는 여행이었다. 파미르는 페르시아를 비롯한 투르크족 몽골족 티무르제국, 러시아의 지배를 받으며 동서양 여러 문명과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 수많은 세력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겹겹이 쌓은 역사가 흐르는 곳이다. “파미르에서는 하루에 다양한 계절을 경험한다. 여기서는 여름인가 싶다가도 또 저기는 겨울이다.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동부 지역은 추운 겨울이다.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남부의 와칸 계곡으로 접어들면 추수가 한창인 가을이고, 와칸 계곡의 끝자락인 서부 지역으로 돌아서면 햇살이 따가운 여름이다. 파미르의 시간과 자연은 바깥세상과는 다르게 흘러간다. 하루에 일 년의 시간이 담겨 있다.” 파미르의 시간을 느끼게 하는 한 대목이다.



### 갈대 속의 명인

이레네 바예호 지음, 이경민 옮김 / 반비 / 2만6천원

종이책이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온 지 오래다. 그러나 여전히 책은 존재한다. 반면에 내용을 저장했다가 재생해서 보여주는 디지털 장치는 계속 변해왔다. USB의 형태도 언제 변할지 알 수 없다. 그에 비하면 책은 참으로 오랜 세월 살고 있다. 이 책의 저자 이레네 바예호는 “책은 숟가락, 망치, 바퀴, 가위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 한번 창조된 이후로 그보다 나은 게 등장하지 않았다”고 단언한다. 인류 역사 속에서 책이 견뎠던 시간과 여정은 그 자체로 바예호의 단언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한다. 바예호는 고전문헌학을 전공한 스페인의 문헌학자이다. 고대의 책과 도서관 세계를 연구하기 위해 뛰어난 방대한 자료 속에서 발견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았다. 제목의 ‘갈대’라는 단어에서 파피루스가 연상된다. 점토판 갑골 죽간 파피루스 코덱스 양피지 등은 종이 등장하기 전 책의 형태였다.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바친 사랑의 선물은 20만 권의 책,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알렉산드로스가 다리우스왕의 소장품 중 가장 값비싸고 독특한 보물상자에 보관한 것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등 책을 둘러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 이토록 클래식이 끌리는 순간

최지환 지음 / 북라이프 / 1만8천원

클래식 음반 컬렉터 겸 칼럼니스트 최지환이 클래식 입문자와 애호가에게 추천하고 싶은 명곡 28곡을 엄선했다. 깊이 있고 품격 있는 해설과 클래식 마니아 사이에서 입소문 난 최지환의 명강의를 한 권으로 만나볼 기회다. 알던 곡은 새롭게 들리고, 모르던 곡은 절로 들어보고 싶어 지도록 다양한 매력의 명연주로 구성했다. 저자가 선별한 QR코드를 통해 서로 다른 연주자별로 연주되는 불멸의 명곡을 비교 감상해 보길 추천하고 있다. 음악을 듣는 동안 클래식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엘리트 예술’이 아니라 감정의 예술임을 느끼게 된다. 저자는 문학, 미술, 서예, 영화, 와인, 건축 등 우리 주변의 친숙한 분야를 클래식 음악에 접목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낙엽이 뒹굴 때 듣는 제철 음악’, ‘음악에도 마리아주가 있다’ 등의 흥미로운 주제가 가득하다. 또한 재미난 입담으로 어려운 클래식을 흥미진진하게 풀어간다. ‘전장에 울려 퍼진 베토벤의 울부짖음’, ‘BTS 이전에 정경화가 있었다’, ‘텍사스 시골뜨기가 쓴 반전 드라마’ 등은 제목만 봐도 관심이 간다. ‘꼭 들어야 할 명반인가?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명반인가?’ 등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주제를 거침없이 다루고 있다.

### 2023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위한 로비음악회 성료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로비음악회가 5월 1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펼쳐졌다.

이날 로비음악회에서는 도용복 회장을 비롯한 후원회원 및 가족 110여명과 이정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부산문화회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립합창단 중창팀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실내악팀이 출연, 후원회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

지난 2018년 1월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발족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인 후원회원 모집을 통해 후원활동 및 기부문화 조성에 힘써오는 한편,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이 품격높은 문화공간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 교육프로그램 개강

배시시 아트파크(6월 17일~7월 8일, 8월 5일~26일)  
무대크루로 일하기(6월27일~30일)

(재)부산문화회관은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배시시 아트파크'와 무대크루 양성을 위한 전문 무대예술아카데미 '무대크루로 일하기'를 6월부터 운영한다.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열리는 우리동네 예술 놀이터 '배시시 아트파크'는 부산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들을 대상으로, 뮤지컬과 오페라, 두 장르로 나뉘어 진행된다. 4회차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뮤지컬/오페라의 기초 이론 및 감상예절 교육, 뮤지컬/오페라의 제작과정과 유명 넘버/아리아 감상, 그리고 교육 마지막 날에는 (재)부산문화회관이 제작하는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와 오페라 '토스카'를 감상할 수 있다. '배시시 아트파크'는 6월 17일부터 7월 8일(뮤지컬), 8월 5일부터 26일(오페라)까지 매주 토요일 열린다.

'무대크루로 일하기'는 2023 찾아가는 아르코무대예술아카데미의 일환으로, 무대기술분야 구직을 희망하는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교육 프로그램이다. 6월 27일부터 나흘간 부산시회관 소극장에 열리며, 1일차 무대예술 기초교육과 공연장 투어를 시작으로 2일차 무대감독·조명, 3일차 음향·영상·종합실습에 이어 마지막날인 4일차에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는 '문화예술 직업상담소'가 진행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이동훈 신임 예술감독**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천경필 신임 수석지휘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임 예술감독에 이동훈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상임지휘자가 선임됐다. 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에는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지낸 천경필 지휘자가 선임됐다.

이동훈 신임 예술감독은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과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동 대학 교육대학원에서 국악교육정책을 졸업한 후 단국대학원 일반대학원에서 국악지휘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ASIA전통오케스트라 부지휘자(2016년~2018년), 영동군난계국악단 상임지휘자(2016년~2017년),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상임지휘자(2018년~2023년)를 역임했으며, 국립국악관현악단, KBS국악관현악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등 국내 우수 국악관현악단을 지휘한 바 있다. 이동훈 예술감독의 취임공연은 7월 2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천경필 수석지휘자는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게디니 국립음악원과 이태리 밀라노 'G. Donizetti' 아카데미 합창지휘과, 로마 A. I. ART 아카데미, VARESE 최고 합창지휘자 코스를 최우수 졸업하고 이태리 VARESE 시립음악원 합창단, 대전시립합창단을 객원 지휘했다.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8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2016년~2023년 2월)로 있으며 끊임없는 열정으로 청소년합창음악을 이끌어온 천경필 수석지휘자는 현재 카이스트 코러스 상임지휘자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동훈 예술감독



천경필 수석지휘자

**6월 찾아가는 예술단**

평소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맞춤형 공연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이 6월에도 다양한 곳을 찾아 시민들과 만난다.

- 일정**
- 6월 1일(목) 오전 11:00 동원종합사회복지관\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6월 1일(목) 오후 2:00 부산동구청\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6월 2일(금) 오후 2:00 화정종합사회복지관\_부산시립극단
  - 6월 3일(토) 오후 5:00 강서기적의 도서관\_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6월 6일(화) 오전 10:00 부산시청 강당\_부산시립합창단·부산시립무용단·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부산시립극단 '현충일 추념식'
  - 6월 7일(수) 오후 1:30 부산종합버스터미널\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6월 12일(월) 오후 1:30 부산인재개발원\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6월 15일(목) 오후 1:30 다사랑 복합 문화예술회관\_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6월 15일(목) 오후 2:00 부산시청 대강당\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6월 25일(일) 오전 10:00 부산시청 대강당\_부산시립합창단·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25 기념식'
  - 6월 28일(수) 오후 2:00 부산노인종합복지관\_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23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 3만원 | S석 2만원

주최 |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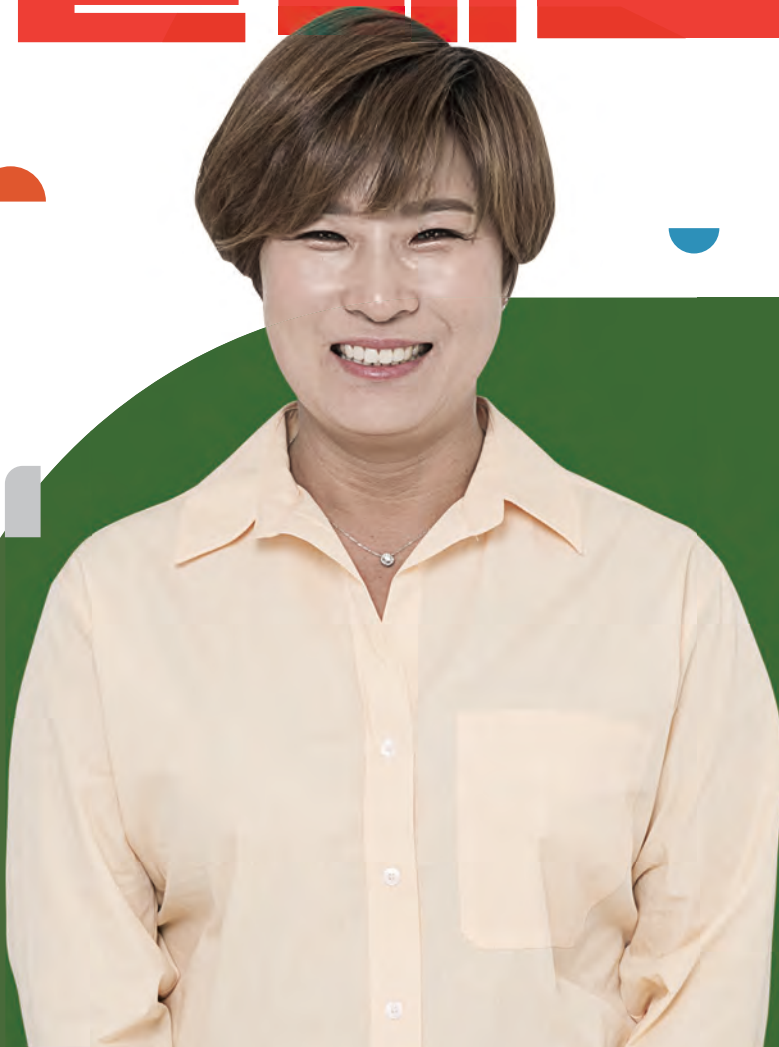
예매 및 문의

[www.bscc.or.kr](http://www.bscc.or.kr) 051-607-6000

티켓 오픈일

정기회원 선오픈 2023. 3. 7.(화) 14시

일반회원 오픈 2023. 3. 8.(수) 14시



리치언니

**박세리**

**6.9.(금) 15:00**

두려움을 넘어  
도전을  
인생의 습관으로

공연 오보에 고관수 | 피아노 이은정

우리동네 예술 놀이터 BSCC ART PARK

# 배시시 아트파크

뮤지컬·오페라 문화예술교육부터 관람까지,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배시시 아트 파크에 놀러오세요!

- 대상** 지역 거주 초·중·고등학생 자녀 포함 가족 (소외계층 우선)  
기수별 30명 선착 모집
- 장소**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 참가비** 무료 (교육 비용 및 공연 관람비 포함)
- 프로그램**
  - 뮤지컬/오페라 기초 이론 및 감상예절 교육
  - 작품 제작 과정 및 유명 작품 넘버/아리아 배우기
  - 제작 공연 관람

**제작 뮤지컬**  
관람작품 <야구왕마린스>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2023. 6. 17 ~ 7. 8. 매주 (토)  
※ 7월 8일만 14:00~17:00 운영  
17| 10:00 ~ 12:00  
27| 13:00 ~ 15:00

**제작 오페라**  
관람작품 <토스카>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23. 8. 5. ~ 8. 26. 매주 (토)  
※ 8월 26일만 14:00~17:00 운영  
37| 10:00 ~ 12:00  
47| 13:00 ~ 15:00



2023. 5. 22.(월) ~ 선착순 마감

온라인 신청 QR코드 접속 후, 네이버 폼 작성  
전화 신청/문의 051-607-6000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KCAE Korean Culture and Arts Center Federation





# 2023 찾아가는 아르코무대예술아카데미

# 무대



## 본격 무대예술 직업 탐방 프로젝트



# 프로젝트

# 이행기



신청 바로가기

# 로

# STAGE CREW

### 부산·경남편 2023. 06. 27. (화) ~ 06. 30. (금)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대상 무대기술분야 입직 희망자 및 예비인력, 기초교육이 필요한 종사자  
모집인원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내 거점 고등학교, 대학, 예술단체, 기획자) 100명 이내  
교육내용 무대기술분야 직업탐구, 분야별 기초교육, 교양교육, 네트워킹  
교육비 5만원, 수료 후 환급 (확정 안내 후에 납부 가능)

### 신청자 현재 모집중!

# BSCC

P R O G R A M

##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3 시즌 프로그램

### 예매 오픈

2023. 5. 4(목) 오후 2:00

※ 정기회원 선오픈 2023. 5. 3(수) 오후 2:00

###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시, 1,000원 추가 할인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 마감은 공연 1일 전 14:00 • 취소 마감은 공연 1일 전 17:00
공연 1일 전 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 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ARS 1번)

# 2023. 7-12월

## July - December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 부산문화회관

유럽 최고 수준의 스페니시 챔버 앙상블  
**콘체르토 말라가**

**문화 | 대극장** 2023. 4. 6.(목)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임지영&문태국 슈퍼 듀오와 함께하는  
브람스 음악세계의 진수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공연**

**문화 | 대극장** 2023. 4. 22.(토) 5:00pm  
V 150,000원 R 120,000원 S 70,000원 A 50,000원  
• 지휘 | 마르코 레토나  
• 연주 |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협연 | 임지영(바이올린), 문태국(첼로)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빈 Guitar 국제 콩쿠르 우승자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3. 4. 27.(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 출연 | 기타리스트 캐시 마르탱, 로안나 코조글로우, 장승호  
• 콘서트 가이드 | 국지연



별과 꿈, 동심의 만남! 우리가 꿈꿔온 설렘이 시작된다  
어린이 베스트 캐릭터 뮤지컬  
**<피터팬과 후크선장>**

**문화 | 사랑채** 2023. 6. 9.(금)-7. 23.(일)  
평일 11:00am 주말 11:00am, 2:00pm  
※월-화요일 공연없음  
전석 20,000원 ※36개월 이상 관람  
• 제작 | 극단 오오씨어터  
• 출연 | 박규한, 김성열, 이충환, 정지수 외 다수



2023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  
**이바노프랭키 필하모닉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3. 6. 28.(수) 7:30pm  
R 20,000원 S 1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 연주 | 이바노프랭키 필하모닉 챔버 오케스트라  
• 지휘 | 김현국 • 피아노 | 황성훈  
• 첼로 | 양옥진 • 오보에 | 권성은



소프라노와 12명의 첼리스트가 빛어내는 천상의 하모니  
**조수미 &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문화 | 대극장** 2023. 7. 4.(화) 7:30pm  
VIP 160,000원 R 120,000원 S 8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 출연 | 소프라노 조수미, 베를린 필 12첼리스트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  
운명을 불사른 정열의 붉은꽃  
**오페라 <카르멘>**

**문화 | 중극장** 2023. 7. 13.(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 미술관장장역 | 이주현  
• 오페라 해설가역 | 손지현



제주시아트센터-제주4·3평화재단 공동기획 및 제작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

**문화 | 대극장** 2023. 8. 18.(금) 7:30pm  
무료 ※티켓오픈 추후공지, 초등학생 이상 관람  
• 총감독, 연출 | 강혜령  
• 원작 | 현기영  
• 대본 | 김수열  
• 작곡 | 최정훈  
• 출연 |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극단가람, 밀물현대무용단, 순이삼촌오페라합창단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자극과  
클래식 음악이 함께하는 공연  
**음악동화 그림자극 <피터와 늑대>**

**문화 | 사랑채** 2023. 8. 18.(금)-9. 24.(일)  
평일 11:00am 주말 11:00am, 2:00pm  
※월-화요일 공연없음  
전석 20,000원 ※36개월 이상 관람  
• 제작 | 극단 영  
• 출연 | 최진희, 원우연, 이승, 이한강, 이명진 외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KBS 성우 짱구엄마 송연희가 들려주는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문화 | 중극장** 2023. 8. 20.(일) 11:00am, 3:00pm  
R 40,000원 S 20,000원 ※만 5세 이상 관람



2023 부산 오페라 시즌  
**오페라 <토스카>**

**문화 | 대극장** 2023. 8. 26.(토)-27.(일) 3:00pm  
VIP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8세 이상 관람  
• 작곡 | G.푸치니 • 연출 | 정선영  
• 지휘 | 김현수  
• 합창·연주 | 2023부산오페라하우스 합창단·오케스트라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  
기다림과 불멸의 또 다른 이름, 사랑  
**오페라 <나비부인&투란도트>**

**문화 | 중극장** 2023. 8. 31.(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 미술관장역 | 이주현  
• 오페라 해설가역 | 손지현



선물처럼 찾아온 특별한 하루!  
**뮤지컬 <이상한 엄마>**

**문화 | 중극장** 2023. 9. 9.(토)-10.(일)  
11:00am, 2:00pm, 4:00pm  
R 60,000원 S 40,000원  
※12개월 이상 관람  
※티켓오픈 추후공지  
• 원작 | 백하나



©할리퀸크리에이션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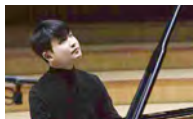
세기의 오페라 대결이 시작된다!  
**뮤지컬 <파리벨리>**

**문화 | 대극장** 2023. 9. 23.(토)-24.(일)  
※중학생 이상 관람  
※공연회차, 출연진 및 티켓오픈 추후공지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3. 10. 6.(금) 7:30pm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예측할 수 없고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에 온 맘이 들끓어  
**뮤지컬 <마리 퀴리>**

**문화 | 대극장** 2023. 10. 14.(토)-15.(일)  
VIP 99,000원 R 88,000원 S 66,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공연회차, 출연진 및 티켓오픈 추후공지  
• 프로듀서 | 강병원 • 극작 | 천세은  
• 작곡 | 최중윤 • 연출 | 김태형  
• 안무 | 신선호  
• 음악감독 | 신은경  
• 제작 | 라이브(주)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I  
등백꽃 질 무렵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문화 | 중극장** 2023. 10. 19.(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 미술관장역 | 이주현  
• 오페라 해설가역 | 손지현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익숙하고 편안한 음악을 통한 추억 여행  
**<모던 애프터눈>**

**문화 | 챔버홀** 2023. 10. 21.(토) 5:00pm  
전석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 출연 | 김소영, 박강현, 이호찬, 오신영



부산 지역 예술단체의 저력을 볼 수 있는 공연예술축제  
**2023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문화 | 중극장** 2023. 11. 2.(목), 5.(일), 9.(목)



NHK 다큐멘터리 '대항하'의 주인공  
**오카리나의 장인 <소지로 내한공연>**

**문화 | 대극장** 2023. 11. 9.(목) 7:30pm  
R 40,000원 S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2023 대학 교향악 축제**

**문화 | 대극장** 2023. 11. 18.(토)-26.(일)  
평일 7:30pm, 주말 3:00pm  
전석 10,000원 ※티켓오픈 추후공지  
• 11.18.(토) 3:00pm | 경성대학교  
• 11.19.(일) 3:00pm | 동의대학교  
• 11.24.(금) 7:30pm | 인제대학교  
• 11.25.(토) 3:00pm | 동아대학교  
• 11.26.(일) 3:00pm | 부산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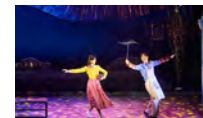
공개 오디션을 통한 청년 희망 날개 프로젝트  
**부산, 노래로 하나되다**

**문화 | 대극장** 2023. 12. 2.(토) 5:00pm  
전석 3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티켓오픈 추후공지  
• 출연 | 청년 성악가(공모) 및 부산성악가협회원



평범한 오늘 시작된 특별한 시간여행  
**뮤지컬 <렛미플라이>**

**문화 | 중극장** 2023. 12. 15.(금)-16.(토)  
평일 7:30pm, 주말 3:00pm  
R 60,000원 S 50,000원 ※8세 이상 관람  
• 작 | 조민형 • 작곡 | 민찬홍  
• 연출 | 이대웅



러시아 극작가 안톤 체홉의 대표작!  
시나위의 감성으로 풀어낸 명작의 연극미학  
**<벚꽃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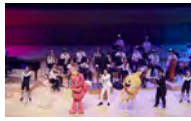
**문화 | 중극장** 2023. 12. 22.(금)-23.(토)  
평일 7:30pm, 주말 3:00pm  
R 30,000원 S 20,000원 ※14세 이상 관람  
• 작 | 안톤 체홉 • 연출 | 이기호  
• 기획 | 극연구집단 시나위  
• 출연 | 박상규, 우명희, 박창화 외 11명



부산시민회관

우리 아이 첫 클래식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뚜뽀를 찾아라**

**시민 | 대극장** 2023. 5. 20.(토) 3:0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36개월 이상 관람  
• 출연 | 핑크퐁, 아기사아, 대니 구, 펭귄코러스, 바삐르 오케스트라



한국인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피아노의 음유시인  
**유기 구라모토 콘서트**

**시민 | 대극장** 2023. 5. 26.(금) 7:30pm  
V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초등학교 이상 관람



예술의전당 우수 예술콘텐츠 상영프로젝트  
**배시시 명품극장**

**시민 | 소극장** 2023. 6. 28.(수), 8. 30.(수),  
10. 25.(수), 11. 29.(수) 매주 수요일 7:00pm  
무료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기원 페스티벌!  
**부산버스킹페스타**

**시민 | 소극장** 2023. 7. 1.(토) 3:00pm  
전석 20,000원  
• 출연 | 2023년 버스킹 예선 통과팀(10개팀)  
• 예술감독 | 김종근  
• 협력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  
• 게스트 | 디평스



한때 우리는 모두 '야구왕'이었다!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시민 | 대극장** 2023. 7. 5.(수)-16.(일)  
수-목요일 10:30am, 금요일 7:30pm,  
토요일 11:00am, 2:00pm, 일요일 11:00am  
VIP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48개월 이상 관람, 티켓오픈 추후공지  
• 작 | 김정민 • 음악감독 | 성찬경  
• 연출 | 이대웅



관객과 평단을 동시에 사로잡은 수작!  
**연극 <12인의 성난 사람들>**

**시민 | 소극장** 2023. 7. 7.(금) ~ 8.(토)  
평일 7:30pm, 주말 3:00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전석 2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 작가 | 레지널드 로즈(Reginald Rose) • 연출 | 류주연  
• 번역 | 김용준  
• 출연 | 이현경, 오재균, 민병욱, 최명경, 이재인, 방기범, 김애진, 반인환, 홍성호,  
김용식, 김서아, 황비홍, 허준호  
• 후원 | 예술경영지원센터



어른들을 위한 그때 그 시절 이야기!  
**연극 <검정 고무신>**

**시민 | 소극장** 2023. 7. 22.(토) 3:00pm  
전석 20,000원 ※8세 이상 관람  
• 제작 | 극단 예저또  
• 작 | 김지연 • 연출 | 최재민



부산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2023 시민뜨락축제**

**장소 미정** 2023. 8. 19.(토)-9. 2.(토)  
매주 토요일 12:20pm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무료



디즈니의 마법, 그 이상을 경험하다!  
**2023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

**시민 | 대극장** 2023. 8. 26.(토) 3:00pm  
VIP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48개월 이상 관람  
• 출연 | 디토 오케스트라, 디즈니 싱어즈(신재범, 김환희, 이종석, 홍경아 외)



2023 부산 인터네셔널 뮤직페스타(BIMF)  
**디바(Diva) in 재즈**

**시민 | 대극장** 2023. 9. 1.(금)-2.(토)  
평일 7:00pm, 주말 3:00pm  
R 8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8세 이상 관람  
• 출연 | 이은미&민경인트리오, 말로, 시호&시게키, 최은아, 워나&조윤성트리오,  
이효정



2023년 국립발레단이 야심차게 선보이는 신작,  
부산에서 만나다!  
**발레 <돈키호테>**

**시민 | 대극장** 2023. 9. 16.(토)-17.(일)  
토요일 5:00pm, 일요일 2:00pm  
VIP 90,000원 R 7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 음악 | 루트비히 민쿠스 • 원안무 | 마리오스 프티파  
• 재안무 | 송정민 • 각색 | 정다영  
• 작, 편곡 | 김인규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주)화승



관객이 뽑은 '국립극단에서 보고 싶은 연극 1위'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시민 | 대극장** 2023. 11. 3.(금)-4.(토)  
평일 7:30pm, 주말 3:00pm  
R 50,000원 S 30,000원 ※14세 이상 관람  
• 원작 | 기군상 • 각색, 연출 | 고선웅



동화구연을 활용한 우화와 무용의 만남!  
**무용 <여우와 돌고래>**

**시민 | 소극장** 2023. 11. 18.(토) 3:00pm  
전석 20,000원 ※36개월 이상 관람  
• 안무 | 임진호, 이경구 • 드라마트루그 | 지경민  
• 제작 | 고블린파티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 부산시향의 심포니야(夜) I

문화 | 대극장 2023. 1. 18.(수)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해설 이준형



제596회 정기연주회

####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3. 1. 19.(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 첼로 심준호



기획음악회

####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II

문화 | 챔버홀 2023. 2. 3.(금) 7:30pm  
전석 10,000원



제597회 정기연주회

#### 사랑의 죽음

문화 | 대극장 2023. 2. 21.(화)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홍석원



기획음악회

#### 부산시향의 줄인 I

문화 | 챔버홀 2023. 3. 3.(금) 7:30pm  
전석 10,000원



기획음악회

#### 부산시향의 심포니야(夜) II

문화 | 대극장 2023. 3. 21.(화)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해설 이준형



기획음악회

#### 미완성음악회 I \*오프리허설

문화 | 대극장 2023. 3. 22.(수) 7:30pm  
전석 5,000원

•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손민수(2023 올해의 예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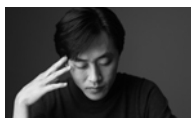


제598회 정기연주회

####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

문화 | 대극장 2023. 3. 23.(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손민수(2023 올해의 예술가)



제599회 정기연주회

#### 멘델스존과 버르토크

문화 | 대극장 2023. 4. 21.(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금노상  
• 바이올린 나승준(2023 정기연주회 오디션 합격자)



기획음악회

####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II

문화 | 챔버홀 2023. 5. 4.(목) 7:30pm  
전석 10,000원



기획음악회

#### 우리아이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3. 5. 19.(금) 11:00am, 7:30pm  
전석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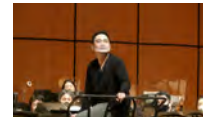


기획음악회

#### 미완성음악회 II

문화 | 대극장 2023. 6. 14.(수) 7:30pm  
전석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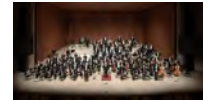
• 지휘 최수열



기획음악회

#### BPO Odyssey

문화 | 대극장 2023. 6. 15.(목) 7:30pm  
전석 10,000원



제600회 정기연주회

#### 말리의 마지막 교향곡

문화 | 대극장 2023. 6. 16.(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최수열



제601회 정기연주회

#### 쇼스타코비치와 프로코피예프

문화 | 대극장 2023. 7. 21.(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서진 | 바이올린 김재원



제602회 정기연주회(2023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 네 개의 프랑스 관현악

문화 | 대극장 2023. 9. 7.(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올리비에 샤를리에



제603회 정기연주회

#### 부산시향의 차이콥스키

시민 | 대극장 2023. 9. 2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김덕기 | 피아노 세르게이 타라스프



기획음악회

### 제79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2023. 10. 6.(금) 7:30pm  
전석 5,000원



기획음악회

### 부산시향의 심포니아(夜)III

문화 | 중극장 2023. 10. 25.(수)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해설 이준형



기획음악회

### 미완성음악회III

문화 | 중극장 2023. 10. 26.(목) 7:30pm  
전석 5,000원  
• 지휘 최수열



제604회 정기연주회

### 손민수의 브람스 협주곡

문화 | 중극장 2023. 10. 2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손민수(2023 올해의 예술가)



기획음악회

### 부산시향의 줌인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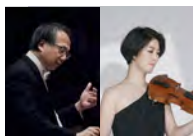
문화 | 챔버홀 2023. 11. 3.(금) 7:30pm  
전석 10,000원



제605회 정기연주회

### 프로코피예프와 라흐마니노프

문화 | 대극장 2023. 11. 1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사오치야 류 | 바이올린 백주영



기획음악회

###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III

문화 | 챔버홀 2023. 12. 1.(금) 7:30pm  
전석 10,000원



기획음악회

### 미완성음악회IV

문화 | 대극장 2023. 12. 13.(수) 7:30pm  
전석 5,000원



제606회 정기연주회

### 영웅의 생애

문화 | 대극장 2023. 12. 14.(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I '사랑의 노래'

문화 | 중극장 2023. 3. 23.(목)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임창은 | 클라리넷 이효주  
• 바이올린 이소정 | 타악 성형원



특별연주회

### 어린이 뮤지컬 '옛날 옛적에'

문화 | 대극장 2023. 5. 4.(목) 7:30pm, 5.(금) 11:00am  
R 20,000원 S 10,000원  
• 지휘 이기선



제190회 정기

### 모차르트 레퀴엠

문화 | 대극장 2023. 6. 22.(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이기선



특별연주회

### 2023 Summer Fantasy

문화 | 대극장 2023. 7. 20.(목)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임희준



특별연주회

###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II

문화 | 중극장 2023. 9. 21.(목)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손동현



특별연주회

### 제34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3. 10. 17.(화)-19.(목) 7:00pm  
무료



특별 및 교류연주회

### 현대합창의 밤

문화 | 대극장 2023. 10. 20.(금) 7:30pm  
전석 10,000원



제191회 정기

### 멘델스존 엘리야

문화 | 대극장 2023. 11. 23.(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이기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2023 신년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3. 2. 2.(목) 7:30pm  
 전석 10,000원  
 • 사회 백규진



특별연주회

감각, 생명

문화 | 대극장 2023. 3. 31.(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특별연주회

Muy bien, 열씨구 좋다!

문화 | 중극장 2023. 4. 28.(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제219회 정기연주회

Insight Music: 통찰의 시간

문화 | 대극장 2023. 5. 18.(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특별연주회

문화 | 챔버홀 2023. 6. 22.(목) 7:30pm  
 전석 10,000원



제220회 정기연주회

이동훈 신임 예술감독 취임연주회

문화 | 대극장 7월 27일(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제221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9. 13.(수) 7:30pm  
 R 20,000원 S 10,000원



특별연주회

제48회 청소년 협연의 밤

문화 | 중극장 2023. 10. 12.(목) 7:30pm  
 전석 5,000원



제222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1. 16.(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제223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2. 12.(화) 7:30pm  
 R 20,000원 S 10,000원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50주년 기념 특별공연

The 50\_Time to Dance

시민 | 대극장 2023. 2. 25.(토) 3:00pm  
 전석 20,000원



제87회 정기공연

1002 Nights\_천 두번 째의 밤

시민 | 대극장 2023. 5. 12.(금)-13.(토)  
 금요일 7:30pm, 토요일 4:00pm  
 R 30,000원 S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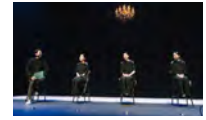
- 안무 이정윤(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 지휘 최수열(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 협연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공연회

이정윤의 댄스살롱\_The50/그 동안

문화 | 중극장 2023. 7. 12.(수)-22.(토)  
 금요일 8:00pm, 토요일 4:00pm



제88회 정기공연

The Legacy

문화 | 대극장 2023. 10. 27.(금) -28.(토)  
 금요일 8:00pm, 토요일 4:00pm  
 R 30,000원 S 20,000원

- 안무 이정윤(예술감독)



특별공연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 '디딤&Step'

문화 | 중극장 2023. 12. 8.(금)-9.(토)  
 금요일 8:00pm, 토요일 4:00pm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피터팬'

문화 | 중극장 2023. 2. 25.(토) 4:00pm, 7:00pm  
 2. 26.(일) 1:00pm, 4:00pm  
 전석 10,000원

- 원작 J.M.배리 | 각색 강보람
- 작곡 전현미 | 연출 김지용



제74회 정기공연

집집 > 하우스 소나타

문화 | 중극장 2023. 3. 30.(목)-4. 1.(토)  
 평일 7:30pm, 주말 5:00pm  
 전석 20,000원

- 작 한현주 | 연출 주혜자





특별공연

### 뮤지컬 '미운오리새끼'

문화 | 사랑채 2023. 5. 3.(수)-5. 28.(일)  
• 원작 H.C.안데르센 | 각색 신서영  
• 작곡 진소영 | 연출 김지용



특별공연

### 소년B가 사는 집

시민 | 소극장 2023. 6. 14.(수)-17.(토)  
수·목요일 10:30am, 2:00pm(단체관람),  
금요일 10:00am, 2:00pm(단체관람), 7:30pm, 토요일 5:00pm  
전석 20,000원  
• 극작 이보람 | 연출 최용혁



제75회 정기

### 스타프로젝트 2023-극작가 김문홍전

-안개주의보, 목련꽃 그늘 아래서, 사자의 편지  
시민 | 소극장 2023. 9. 7.(목)-9(토), 14.(목)-16.(토),  
21(목)-23(토), 시간미정  
• 연출 미정



제76회 정기공연

### 크리스마스 캐롤

문화 | 대극장 2023. 12. 7.(목)-10.(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0회

### 정기공연

문화 | 대극장 2023. 3. 28.(화) 7:3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 2023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대극장 2023. 5. 23.(화) 7:30pm  
전석 5,000원



특별연주회

###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3. 6. 17.(토) 5:00pm  
무료



특별연주회

###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3. 7. 22.(토) 5:00pm  
무료



제71회

### 정기공연

문화 | 대극장 2023. 9. 5.(화) 7:30pm  
전석 2,000원



### 특별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0. 31.(화) 7:3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 유망주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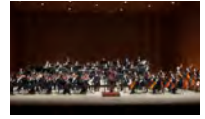
문화 | 챔버홀 2023. 11. 11.(토) 7:30pm  
전석 2,000원



제72회

### 정기공연

문화 | 대극장 2023. 12. 26.(화) 7:30pm  
전석 2,000원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희망을 노래하다'

문화 | 챔버홀 2023. 2. 21.(화) 7:30pm  
초대



특별연주회

### 가정의 달에 부르는 우리들의 노래

문화 | 챔버홀 2023. 5. 27.(토) 5:00pm  
무료



### 특별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3. 7. 15.(토) 5:00pm  
전석 2,000원



제163회

###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9. 9.(토) 5:0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3. 11. 3.(금) 7:30pm,  
11. 4.(토) 5:00pm  
무료



제164회

###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2. 16.(토) 5:00pm  
전석 2,000원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 특별한 혜택



## 우크라이나 이바노프랭키 필하모니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

6월 28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40매)

## 2023 부산버스킹페스타

7월 1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초대권 40매)

## 조수미 &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종료**

7월 4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10매)

##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7월 5일(수)-16일(일) 수·목요일 오전 10:30,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일요일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금·일요일 공연에 한해 회차별 R석 20매)

## 연극 <12인의 성난 사람들>

7월 7일(금)-8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초대권 20매)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http://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3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  
**<운명을 불사른 정열의 붉은꽃 - 오페라 카르멘>**

7월 13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 30매)

**연극 <검정 고무신>**

7월 22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초대권 20매)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8월 20일(일) 오전 11:00,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R석 20매)

**2023 부산 오페라 시즌 오페라 <토스카>**

8월 26일(토)-27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40매)

**2023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 종료**

8월 26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  
**<기다림과 불멸의 또 다른 이름, 사랑 - 오페라 나비부인&투란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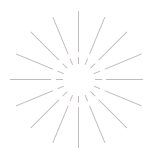
8월 31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 30매)

**2023 부산 인터네셔널 뮤직페스타(BIMF)**  
**<디바(Diva) in 재즈>**

9월 1일(금)-2일(토) 평일 오후 7:00, 주말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40매)

**국립발레단 <돈키호테> 종료**

9월 16일(토)-17일(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16일자 공연 5석 20매)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I**  
**<동백꽃 질 무렵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10월 1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 30매)

**음악을 통한 추억여행 <모던 에프터눈>**

10월 21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초대권 20매)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11월 3일(금)-4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40매)

**오페리나의 장인 <소지로 내한공연>**

11월 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40매)

**가족을 위한 무용 동화 <여우와 돌고래>**

11월 1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초대권 20매)

**뮤지컬 <렛미플라이>**

12월 15일(금)-16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S석 20매)

**연극 <벚꽃동산>**

12월 22일(금)-23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3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문화예술팀(051-607-6000)**



#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VIP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부산시립예술단 기획공연,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불가능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회원카드 제시) | 제휴업체 할인(사정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051-607-6041, www.bscc.or.kr)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부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김홍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홍근 삼강종합건설(주)  
성원기 하나유치원 원장  
안금주 세무법인 인성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수 엘가 대표  
이성임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수민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정애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이현숙 (주)미성하이텍  
임말섭  
임은자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전)국회의장  
정의화 숙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종래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한원우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051-607-6042)



부산시립합창단 오국보훈의 달 기념 및  
BUSAN METROPOLITAN CHORUS 제19회 정기연주회



World EXPO 2030  
BUSAN, KOREA

Wolfgang Amadeus Mozart



2023.  
6. 29 (목)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모차르트

레퀴엠  
REQUIEM

지휘 이기선  
소프라노 김제니  
알토 추희명  
테너 김세일  
베이스 노대산  
출연  
부산시립합창단  
KNN방송교향악단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예매 [www.bscc.or.kr](http://www.bscc.or.kr)

티켓 R석 20,000원 S석 10,000원 A석 5,000원

문의 607-6000(ARS1번)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 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배시시TV



(재)부산문화회관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면세포인트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명합니다.

COUP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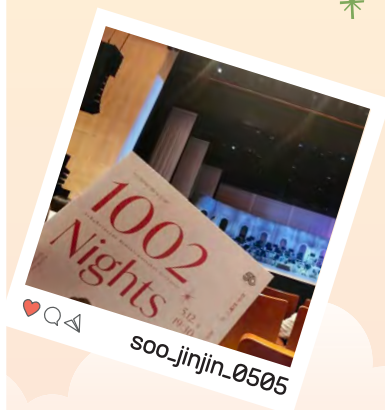
5% Discount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 올려주시면  
매월 5명 추첨을 통해 예술의초대에 사진 게재 및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6월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부산문화회관.다녀왔어요 (또는 #부산시민회관.다녀왔어요) #예술의초대.6월호

COUPON

COUPON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3. 6. 30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 소년 B가 사는 집

2023. 6. 16 금 - 17 토 평일 19:30 주말 17:00

2023. 6. 13 화 - 16 금 **단체관람** 10:30, 14: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작 이보람 연출 최용혁

예술감독 김지용 조연출 김동규 작곡 이영재 남태인 무대 이안호 조명 조세현 음향감독 이호원 영상감독 최승환  
소품/의상 손해윤 분장디자인 이지원 무대감독 정순지 기획/홍보 권미정 박지현

출연 황창기, 김은희, 박미서, 이태성, 서예은, 이혁우, 서보기, 염지선, 오희경, 우성주, 김은옥, 이현주, 채민수, 이소희, 강승환, 양희진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극단 입장권 전석 2만원 예매 051-607-3113 (공연사업팀)

COUPON



###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COUPON



###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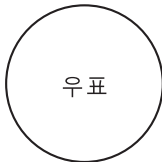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50  
051)513-4500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받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모바일 엽서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2023

6

JUNE



600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6 Last Works-3  
Mahler's 9th Symphony

## 말러의 마지막 교향곡

지휘 최수열

말러 / 교향곡 제9번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시립교향악단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문의 051-607-6000(ARS 1번)

[www.bscc.or.kr](http://www.bscc.or.kr)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기원

# 부산 2023 버스커스 페스티벌

2023. 7.1.SAT 3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GUEST  
딕펄스



본선

3인용스윙벳 / The Tunas / 밍글 / 옐로은  
오빠야문열어팔기사왔어 / 용용클태 / 집시유랑단  
콩코드유니버스 / 현미밴드 / 후고



티켓 2만원 예매 및 문의 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http://www.bscc.or.kr) 051-607-6000 (ARS 1번)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2023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

# 우크라이나 이바노프랭키 필하모니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



지휘자  
김현국



첼리스트  
양욱진



오보이스트  
권성은



피아니스트  
황성훈

2023. 6.28(수)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누군가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THE MUSICAL  
데스노트

2023.07.26 ~ 08.06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홍광호 김준수 고은성 김성철 이영미 장은아 서경수 장지후 류인아 장민제 김용수 서범석 박현선 외

제작 OD COMPANY 주최 부산광역시 TBC TJB 주관 bJ

Music by FRANK WILDHORN Lyrics by JACK MURPHY Book by IVAN MENCHELL Arrangements & Orchestrations by JASON HOWLAND Original Direction by TAMIYA KURIYAMA

Produced by CHUNSOO SHIN

©Tsumumi Ohba, Takeshi Obata / Shueisha Original Production by Horipro Inc.



최고와 최고가 만났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성공 유치 기원

# 조수미 &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THE 12 CELLISTS OF THE BERLIN PHILHARMONIC ORCHESTRA WITH SUMI JO



2023. 7. 4<sup>TUE</sup> 7:30<sup>PM</sup> 부산문화회관 대극장